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0 호 10월 25일

평양 로동 신문사 발행 1955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제10호 (119)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잡지

1955년10월25일

내 용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창조적 습득을 위하여

맑스—레닌주의는 조선 로동당의 지도적、고무적 기치로서 오늘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 위업에 궐기한 조선 인민의 지도적 사상이다。

맑스—레닌주의는 매개 로동당원들의 당 생활의 모든 분야를 관통하면서 그들에게 불패의 힘과 신심을 주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당의 당원들에게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창조적 습득은 정치적 활동가로서의 그들의 당 생활에서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것은 당원들에게 있어서 항상 제一차적인 당적 의무로 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대한 창조적 태도——이것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창조적 학습과 연구 및 그의 선전에서의 필수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당 내에서 일부 간부들과 당원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창조적으로 학습할 대신에 그것을 독경식으로 혹은 교조주의적으로 학습하는 유해한 편향들을 아직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당 선전과 학습에서의 독경주의、교조주의가 일정한 규모와 범위 내에서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창조적 습득을 장애하는 것만큼、또한 무엇보다도 독경주의、교조주의가 맑스—레닌주의 리론 및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량립될 수 없는 것만큼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당 사상 사업 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창조적 습득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면서 맑스—레닌주의 리론 학습에서의 교조주의、독경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은 목전 사상 사업 분야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라고 강조하여 지적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는 자연 및 사회 발전 법칙에 관한 과학이며 피압박, 피착취 대중의 혁명에 관한 과학이며 모든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관한 과학이다.

맑스—레닌주의는 로동 계급과 그 전위적 당의 실천적 활동에 목적 의식성과 힘을 부여하면서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을 혁명 승리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적 건설에로 인도한다.

쓰딸린이 교시한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은 로동 계급의 당으로 하여금 환경을 옳게 분별케 하며 주위의 사변들의 내부적 호상 관계를 리해하게 하며 사변의 진행을 내다 보게 하며 그리고 그 사변이 어떻게 어데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사변이 장래 어떻게 어데로 반드시 발전하여 가는가 하는 것까지 식별할 수 있게 한다.

맑스—레닌주의의 위력, 불패성, 생활성은 그가 자연과 사회의 발전 법칙, 구체적인 생활의 심오한 진리를 반영하며 항상 발전하며 운동하는 현실 실재로부터 출발하는 가장 과학적인 진리인 데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객관적인 실천으로부터 산생되고 그것이 다시 객관적인 실천에서 증명된 것인바 그것은 인류가 달성한 과학과 실천의 집대성이며 따라서 최고봉의 과학이다.

리론과 실천의 통일은 백전백승하는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특질인바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성격에서 흘러나오는 필연적 요구이다. 즉 맑스—레닌주의에 있어서 리론의 기초는 실천인 동시에 리론은 다시 실천에 복무하게 되며 실천에서 검열 풍부화된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함에 있어서 리론과 실천 간의 호상 관계를 무시하고 그를 호상 분리시키는 것은 전혀 옳지 않으며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학습과는 하등의 공통성도 없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맑스—레닌주의를 습득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맑스—레닌주의는 그것이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며 따라서 그의 학습은 창조적으로 되여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는 데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창시자들은, 맑스—레닌주의는 전투적 당성으로 일관되여 있으며 그것은 가장 혁명적이며 창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였다.

위대한 레닌이 교시한 바와 같이 우리의 리론은 독단론이 아니라 행동상 지침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력사적 행정의 매개의 특수 시기의 구체적 경제 정치적 정세에 의하여 변형되는 일반적 임무만을 극상해야 지적함에 능한 그러한 『공식』을 송독, 또는 그저 되풀이 하는 사실을 옳게 조소하면서 맑스주의자

는 어제의 리론을 그냥 붓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산 생활, 현실의 정확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그 론쟁할 수 없는 진리를 파악할 것이다 라고 교시하였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는 한 자리에 머물어 있지 않으며 항상 새로운 실천으로써 풍부하여지며 지어 그의 부분적인 명제와 결론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여서 사회 발전에 따라 변하지 않을수 없으며 보다 새로운 실천적 조건에 적합한 새로운 명제와 결론에 의하여 보충 교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를 습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맑스—레닌주의 리론 및 방법의 본질을 똑똑히 파악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맑스—레닌주의 리론 및 방법의 본질을 파악할 대신에 학습에서 개별적인 공식과 명제와 결론을 고정 불변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를 기계적으로 암송하며 지어는 이렇게 습득한 개별적인 공식, 명제, 결론이 어떠한 환경 조건에서든지 모두 그대로 적용되여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학습에서의 본질적인 요구와는 전적으로 배치된다. 맑스—레닌주의 학습에서의 이러한 교조주의, 독경주의는 맑스—레닌주의적인 관점, 태도, 방법과는 전혀 량립될 수 없다.

교조주의, 독경주의는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습득에 심중한 해독을 끼치며 맑스—레닌주의의 사상 리론의 영향력의 확대 강화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적 단련과 정치 리론적 장성을 가로 막는다. 또한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심오한 본질을 심오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하며 매 시기와 계단에 따라 당이 제시하는 과업을 실천함에 이를 옳게 적용 할 수 없게 하며 나아가서는 당이 내세운 혁명 과업을 목적 의식적으로 옳게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창시자들이 교시한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를 옳게 습득하려면 우선 이 리론의 문자와 본질 사이의 차이를 갈라 내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오직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방법의 본질을 철저하게 리해함으로써만 그 보편적 원리를 구체적인 실천 행동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본질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에 정통하여야 한다는 리론적 및 실천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방법을 한갖 지식으로서만 소유하는 데 그의 주되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방법을 습득하는 목적은 그를 구체적인 실천적 활동에 적용하기 위한 데 있다. 즉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 나라 발전의 특수성과 우리 당 활동의 구체적인 실정에 알맞게 적용하는 데 있

는 것이다。

만일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서적들을 송경하듯이 읽기만 하거나 그 리론을 맹목적으로 암송할 뿐 그를 실생활에, 즉 당이 내세운 구체적인 과업 실행에 적용할 줄 모른다면 그를 맑스—레닌주의를 옳게 소유한 사람으로, 높은 정치적 식견과 강한 당성을 소유한 열렬한 정치적 활동가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소유한 혁명적 리론과 방법은 그것이 혁명적 실천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것으로 될 것이며 벌써 그의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우리는 맹목적인 실천가로, 보잘 것 없는 실무주의자로 되지 않기 위하여, 혁명 대렬에서 목적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정치적 활동가로 되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를 습득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우리가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하며 다른 나라 당들의 투쟁 경험들을 습득하는 것은 결코 단순히 지식을 배우기 위하여서만이 아닌 것이다。우리는 우리 나라의 혁명 문제,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적 제 정세를 연구하기 위하여 맑스주의적 리론, 관점,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며 우리 투쟁에 있어서 행동상 지침을 얻기 위하여 선진적 당들의 풍부한 혁명 투쟁 경험을 연구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를 습득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위대한 쏘련 공산당의 혁명 력사의 학습이다。국제 로동 운동의 첫 돌격대이며 그의 고무적 력량인 위대한 쏘련 공산당의 빛나는 투쟁 력사는 프로레타리아 혁명,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운동의 가장 전형적인 모범이다。

반세기에 긍한 쏘련 공산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력사는 행동에 있어서의 맑스—레닌주의이다。그 누구를 불문하고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을 학습하려 하며 맑스—레닌주의의 본질을 똑똑히 리해 파악하려 한다면 쏘련 공산당의 혁명 투쟁 력사를 학습하여야 하며 거기에서 실천적 교훈을 얻어 내야 한다。쏘련 공산당의 혁명 투쟁 력사의 학습은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방법을 습득함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된다。

그런데 쏘련 공산당의 혁명 력사를 학습함에 있어서도 역시 거기에서 행동상 지침과 산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미 지나간 과거의 단순한『경험집』으로 간주하고 다만 거기에서 일정한 지식만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가 여전히 일부에서 지속되고 있다。비교적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맑스—레닌주의를 연구한 우리의 일부 간부들과 일부 인테리들 속에서도 이러한 태도들이 발로되고 있다。

이러한 일꾼들은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도 쏘련 공산당의 혁명 력사로부터 생동하는 교훈을 얻으려 할 대신에

그의 기본 내용을 피상적으로 혹은 통채로 삼키는 식으로 학습하거나 개별적인 사건과 년대, 수자들을 맹목적으로 암송하고 있다。맑스—레닌주의를 이와 같이 학습하는 데로부터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방법을 조건과 환경을 고려함이 없이 되는대로 혹은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폐단들이 발생되는 것이다。

례를 들어 사회주의 건설 경험을 학습함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칙에 립각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여러 나라들에서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건설의 속도, 지어는 그의 방법까지도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리해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때에는 맑스—레닌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폐단들이 발생될 수 있다。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일꾼들이 당의 정책 실행에서도 오유를 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 태도는 다른 형제적 당들의 투쟁 경험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학습 태도는 그 모두가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하는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형제적 당들의 투쟁 경험을 학습할 때 그의 투쟁 경험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립장에 설 것이 아니라 지어진 조건과 환경에서 왜 문제가 그렇게만 해결되고 달리는 해결되지 않았는가 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와 그에 따르는 투쟁 경험을 알아 내도록 하는 립장에 서야 하며 또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가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하며 다른 나라의 형제적 당들의 투쟁 경험을 학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방법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의 혁명 문제를 연구하며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정세를 분석하며 우리의 투쟁에서 행동의 지침을 얻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만큼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 다른 나라의 형제적 당들의 혁명 투쟁 경험의 본질을 학습함과 동시에 그를 우리 나라 실정에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형편들을 또한 똑똑히 리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조건과 환경과 시간을 무시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리론 및 방법과는 배치된다。우리는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방법에 의거하여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무엇보다는 먼저 리해하여야 할 것이다。자기 나라의 형편을 료해함이 없이는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방법, 선진 혁명 당들의 투쟁 경험을 우리가 처한 구체적 조건과 환경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당원들은 자체의 것을 심오하게 연구하려 하지 않는다。이러한 태도는 우리 당의 투쟁 력사를 학습함에 있어서도 표현되고 있다。일부 간부들과 당원들은 자체의 것, 우리 당의 투쟁 력사는 마치도 맑스—레닌주의와는 인연이 먼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를 심각하게 학습하려 하지 않는다。우리 당이 걸어온 투쟁 력사와 우

리 당 정책의 기본을 학습하려 하지 않는 이러한 경향은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함에 있어서 가장 유해한 경향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 새 형의 당이다。 따라서 우리 당의 정책의 과학적 기초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이며 그에 기초한 우리당 정책은 조선 인민의 리해 관계와 혈연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우리 당은 창건 이후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의 정확한 령도 하에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인민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여 왔으며、또 하고 있다。 우리 당의 로선、정책은 그 모두가 맑스—레닌주의의 조선 현실에의 창조적 적용의 모범으로 된다。

따라서 매개 로동당원은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방법을 옳게 소유하고 그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의 정세를 옳게 분석 료해하며 우리 당의 투쟁 력사를 연구하며 그에서 산 지식과 경험을 얻음으로써 당이 제시한 과업 실천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도록 마땅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당원들과 간부들은 아직도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그 수행 방도、우리 나라 발전의 구체적 실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으며 또 목전의 우리 당의 총적 임무는 무엇이며 공화국 북반부에서 왜 사회주의 기초를 건설할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되며 민주 기지 강화가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의 촉진 및 완성과 어떠한 련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등 문제들도 명백하게 리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어는 과학 리론 연구 분야에서 사업하는 일부 당원들 속에서도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 문제들을 대담하게 연구 분석하여 체계화할 데 대하여 만족하게 노력할 대신에 때로는 현실과 떨어진 빈말 공부에만 몰두하는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당원들이 당이 내세운 정책의 실행에 목적 의식적으로 동원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당원들은 점차 맹목적인 실무주의자로 전락될 것이며 그리하여 드디여는 정치적 활동가로서의 면모를 상실하게 된다。

매개 당원들은 응당히 우리 나라가 어떠한 발전의 길을 걸어 왔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며 또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각 계단에 있어서의 경제 형태들과 계급적 제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혁명 수행 과정에서의 적아의 력량 관계를 옳게 분석 파악함으로써 어떠한 세력이 우리 혁명 수행을 방해하며

우리 동맹자는 누구인가를 옳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국제 정세 하에서 전진하고 있으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정확히 리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정확한 해결은 오직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학습만이 보장한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맑스—레닌주의의 리론 및 방법의 연구는 아무러한 의의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의 투쟁 력사를 창조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이 있다。 우리 당의 정책들과 그 정책이 구현된 당 및 정부 결정들 그리고 김 일성 동지의 제 로작은 우리에게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실천과의 창조적 결합의 모범을 뵈여 주며 맑스—레닌주의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리해하는 것을 도와주며 우리 나라 현실과 우리 당의 정책의 본질을 똑똑히 리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진지하고 심오하게 우리 당의 결정들과 김 일성 동지의 제 로작을 계통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학습에 속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자체의 것을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방법에 의거하여 심오하게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 연구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족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일부 당원들과 간부들이 이 문헌을 맑스—레닌주의 고전들과 또 선진 혁명당들의 투쟁 경험들과의 련계 없이 형식적으로 연구하는 그것이다。

우리 나라 자체의 것을 연구함에 있어서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은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이 문헌 정신을 어디까지나 맑스—레닌주의 고전들과 선진 혁명 당들의 경험들과 련결시켜 연구 학습하며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우리 혁명을 촉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유력한 담보의 하나로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학습함으로써만 당 문헌들의 심오한 사상 리론적 내용도 보다 정확히 리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맑스—레닌주의의 선전의 규모와 범위가 현저히 확대되여 가고 있으며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하려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열의는 비상히 제고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맑스—레닌주의의 학습에서 교조주의와 독경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이다。

현 계단에 있어서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조선 인민의 승리적 투쟁에서의 필수 조건의 하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의 우리 당의 사상 사업의 가일층의 강화이

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회주의적 의식의 장성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습득을 위한 견결한 투쟁、우리 당 사상 사업의 가일층의 강화는 이미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지배적 사상으로 되고 있는 맑스—레닌주의의 영향력을 보다 확대 강화할 것이며 당 및 국가 기관、사회 협동 단체 간부들의 사상、리론적 장성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회주의적 의식의 장성을 일층 촉진함으로써 그들을 현 계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장차에 있어서도 당이 제시한 전투적 혁명 임무의 완수에로 성과적으로 동원되게 할 것이다。

우리 당의 사상적 기수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로동 신문』은 금년 一一월 一일로 그의 창간 一〇주년을 맞는다。

지금으로부터 一〇년전 위대한 쏘베트 무력에 의하여 우리 인민이 악독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후 우리 당은 자기의 합법적 대중 신문을 가질 수 있게 되였다。이리하여 一九四五년 一一월 一일 조선 공산당의 기관지로서 『로동 신문』의 전신인 『정로』의 첫호가 발간되였다。

불쉐위끼적 새 형의 신문 『정로』의 합법적 발간은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대중적 보급 침투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백전 백승의 학설인 맑스—레닌주의가 우리 나라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쏘련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이 승리한 이후부터였다。『一〇월 혁명 승리의 결과에 맑스—레닌주의 선진적 혁명 사상이 조선에 침투되여 급히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조선 민족 해방 운동의 전략 전술의 기초로 되였다』(김 일성)。

조선의 로동 계급은 비록 청소하였으나 벌써 一九二〇년대에 민족 해방 운동의 선진적 투사로서 그 무대에 진출하였다。선진적 로동자들과 인테리들은 악독한 일제 경찰의 간악한 폭압을 무릅쓰고 비밀리에 맑스、엥겔스、레닌、쓰딸린의 로작들과 위대한 쏘련 공산당의 투쟁 경험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조선 로동 계급과 인테리층의 선진 분자들의 계급적 및 정치적 의식이 제고됨에 따라 맑스—레닌주의 리론은 점차로 로동 계급과 농민들의 대중적인 투쟁과 결합되여 그에 정치성과 목적 지향성을 주게 되였다。이리하여 로동 운동은 조국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민주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위업에서 농민 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였다。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우리 혁명 투쟁이 적극적 무장 투쟁의 단계로 이행한 시기에 조

선 공산주의자들은 『화전민』, 『三·一월간』등 자기의 맑스—레닌주의적, 전투적 출판물들을 비합법적 환경 속에서 발간하였다. 그리하여 일제의 경찰, 정탐, 간첩, 테로망이 전국에 펼쳐진 극히 곤난한 조건 하에서 조선 인민에게 맑스—레닌주의의 사상을 선전 보급하면서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로 전체 조선 인민을 더욱 힘차게 고무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이 출판물들의 활동은 불가피적으로 제약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직 해방의 사도——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한 일제 기반으로부터의 우리 조국의 해방과 그가 지어준 유리한 조건 하에서만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학설과 쏘련 공산당의 풍부한 투쟁 경험을 자유롭고 심오하게 섭취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는바 이 위대한 사상과 고귀한 경험의 대중적 전파자, 선전자의 영광스러운 역할은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창간되고 지도되는 『로동 신문』이 담당하게 되였다.

조선의 근로 대중의 전위대이며 정치적 참모부인 우리 당은 자기 존재의 첫날부터 당원들과 전체 인민을 혁명의 종국적 승리에로 불러 일으킴에 있어서 그들을 혁명적 의식, 맑스—레닌주의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과학적 세계관을 확립시키는 데 제一차적 의의를 부여하였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혁명적 리론이 없이는 혁명적 실천도 있을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의 힘은 그것이 어떠한 정세 밑에서든지 옳은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하며 주위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내적 관계를 리해할 수 있게 하며 모든 사건의 진행 과정을 예견할 수 있게 하며 또 모든 사건이 현재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는가만이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전진할 것인가를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거기에 있다. 만일 맑스—레닌주의의 사상으로 무장되지 못한다면 누구나 암중 모색할 수 밖에 없으며 미래에 대한 확고한 전망과 자기 사업에 대한 확신을 잃어 버리며 따라서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투쟁에 견결히 나설 수 없는 것이다.

더우기 간악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팟쑈적, 단말마적 암흑 통치로써 맑스—레닌주의의 학설의 보급을 여지없이 탄압하고 조선의 수 많은 우수한 공산주의자들을 야만적으로 투옥, 학살한 실정은 우리 나라의 대다수 근로 인민으로 하여금 맑스—레닌주의의 과학적 사상으로부터 거의 절연된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몰렴치한 외곡과 날조, 허구적 비방과 중상으로써 조선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려 하였다.

혁명 투쟁에 있어서 리론이 가지는 일반적 의의로부터 뿐만 아니라 조선이 과거에 처하였던 이와 같은 특수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 밑에 『로동 신문』은 창간되는 첫날부터 맑스—레닌주의의 학설의 급속하고 광범한 보급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선차적 임무로 제기하고 그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모든 력량을 기울였다.

이리하여 『로동 신문』은 우리 나라의 광범한 대중들을 사회 발전 법칙과 자본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의 승리의 필연성, 우리 혁명의 최종적 목적과 당면 목적 및 그의 전망에 대한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시키며 그들 속에 우리 혁명 위업의 정당성과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심을 침투시키는 데 부단히 주력하였다.

『로동 신문』은 맑스—레닌주의의 선전에 있어서 항상 교조주의, 독경주의를 배격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우리 나라 현실에의 창조적 적용에 노력하였다. 우리 당과 그의 창건자, 조직자이며 수령인 김 일성 동지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모범을 뵈여 주었다. 우리 당은 조선 사회의 발전 수준과 그 특수성, 제二차 대전 후의 국내외의 정세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조선 근로자들과 전체 인민 앞에 우리 혁명의 강령을 주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규정하였다.

일제의 장구한 식민지 통치 하에서 락후한 반봉건적 사회로 남아 있던 우리 나라는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해방되였다.

해방 후 남조선에 진주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로골화 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완전한 자유와 독립에로의 길을 가로 막았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우리 당은 새로운 제국주의의 침략과 봉건적 잔재를 반대하는 반제 반봉건적, 전 인민적 민주주의의 혁명의 완수, 부강한 민주주의의 통일 독립 국가 건설을 당면의 최고 목적으로 규정하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인민 정권 수립 및 제반 사회—경제적 개혁의 실시, 북반부에서의 혁명적 민주 기지 창설의 과업들을 규정하였다.

『로동 신문』은 당이 제시한 정치 로선에 튼튼히 립각하여 우리 인민을 혁명의 제반 과업 실천을 위한 투쟁에로, 민주주의의 통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동원 궐기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신문은 우리 나라가 과거 어떠한 발전의 길을 걸어 왔으며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조선 인민을 억압 착취하는 자들은 어떠한 계급들이며 또 어떠한 계층과 분자들이 로동자, 농민들을 교활하게 기만하고 적들에게 복무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 혁명의 원쑤들인 미제 침략 세력과 그 주구로 되고 있는 지주, 예속 자본가, 친미,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매국적, 반동적 본질을 철저히 폭로하였다. 신문은 인민의 원쑤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으

로, 봉건적 및 식민지적 제도 복구의 기도에 복무하는 일체 반동적, 부르죠아적 이데올로기와의 비타협적 투쟁의 정신으로 로동 계급과 전체 인민을 교양하였다.

이와 동시에 신문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혁명의 제반 과업 실천을 위한 기본 동력은 로동 계급의 지도 하에서의 로 농 동맹이며 전체 혁명 력량은 로 농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광범한 민족 통일 전선이라는 것을 널리 대중에게 파악시킴으로써 동맹자들과 손을 잡을 줄 알게 하며 원쑤들에 대하여서는 혁명적 경각성을 일층 제고하도록 당원들과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을 교양하였다.

특히 『로동 신문』은 대중 속에서의 고상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애국주의의 교양에 자기의 주요 관심을 돌리였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조선 인민에 대한 『황민화』 정책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자기 조국을 거부하고 자기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폐기할 것을 강요하였었다. 한편 그들은 부르죠아 배외주의 사상으로써 조선 인민을 마취시키려 하였다.

더우기 일제는 맑스—레닌주의 혁명 사상의 침투를 두려워 하며 위대한 쏘련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와 희망과 기대를 꺾어 버리려고 온갖 비렬한 수단을 다하였으며 우리의 린방인 중국 인민에 대한 적대, 불화의 감정을 조성시키기에 광분하였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은 쏘련에 대한 온갖 허위적 중상을 감행하며 꼬쓰모뽈리찌즘과 팟쇼적 인종론과 편협한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독소로써 우리 인민의 국제주의 정신과 애국주의를 말살하려는 데 있어서 일제를 훨씬 릉가하고 있다.

원쑤들의 이러한 사상적 침략에 항거하여 『로동 신문』은 근로 대중을 국제적 련대성의 정신으로, 형제적 제국가 인민들과의 불멸의 친선의 정신으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성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성새인 위대한 쏘련과의 친선 단결의 강화만이 우리 조국의 무궁한 륭성 발전의 결정적 담보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쏘련 인민과의 영구 불멸의 친선의 정신으로 조선 인민을 일관하게 무장시켰다.

오늘 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애국주의는 불가분하게 유기적으로 통일되여 있다. 우리 인민은 해방 이후 조국의 자유 독립과 자기들의 행복을 위한 혁명적 투쟁 행정에서 이 진리를 체득하고 있다. 대중의 친근한 교사로서 『로동 신문』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통일된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의 교양을 사

상적, 리론적으로 방조 강화하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의 새 형의 애국주의는 해방 이후 자기들의 진정한 조국에 창설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 인민의 주권에 대한 사랑과 헌신성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문은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심각히 인식시키며 그에 대한 사랑과 수호의 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하는 데 부단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신문은 우리 나라의 부의 원천이며 근로 대중의 물질—문화 생활 향상을 위한 원천으로 되는 전 인민적 소유, 국가 사회 재산에 대한 애호 절약의 정신으로, 로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조직성과 규률성, 동지적 협조와 자각적 헌신성의 정신으로, 개인적 리익을 사회적 리익에 복종시키는 집단주의적 정신으로 조선 인민을 교양하는 데 노력하였다.

맑스—레닌주의를 리론적 기초로 하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는,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 대중이라는 원칙에 튼튼히 립각하고 있다. 신문은 나라와 력사의 주인으로서의 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그들의 자각을 촉진하며 일상적으로 그들의 창조적 력량을 발양시켜 생산과 건설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하게 하는 방향에서 그들을 교양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적 새 형의 신문——이는 그에 고유한 프로레타리아적 당성과 사상성으로 하여 이여의 모든 신문들과 구별된다.

『로동 신문』은 항상 온갖 봉건적, 부르죠아적, 기회주의적 사상의 반동적 본질을 폭로함으로써 그의 침습으로부터 당을 수호하며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시키면서 당의 순결성과 그의 사상, 의지의 통일을 철옹성같이 고수하였다.

신문은 당내에 침입한 반당적, 종파주의적 요소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지방주의적, 개인 영웅주의적 요소들에 무자비한 타격을 주었으며 당의 로선을 외곡하는 온갖 좌우경적 경향들을 제때에 폭로 분쇄하였다.

『로동 신문』은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서 당의 확대 공고화를 위하여 자기의 조직자적, 선전자적 역할을 제고하였으며 당 및 국가 사업에서의 온갖 무규률적, 비조직적, 경향들을 반대하며 당적 지도의 집체성의 원칙을 고수하여 타협 없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인민에 대한 당의 지도적, 향도적 역할의 제고를 방조하였다.

『로동 신문』은 항상 낡은 것을 반대하고 새 것을 조장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검열된 예리한 무기인 비판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로동 신문』은 비판의 무기를 통하여 사업에서 프로레타리아적 당성과 리탈되는 모든 경향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 사업상 결함들과 오유들을 폭로 시정하고 보수주의와 침체성, 공명심과 관료주의 등 봉건적, 일제적 및 소부르죠아적 온갖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에 대하여 무자비한 타격을 주면서 대중의 적극적 창조력을 발양시킴으로써 우리의 혁명 사업을 부단히 추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로동 신문』은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 밑에 당원들과 근로 대중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사상 교양을 강화하며 당을 사상적, 조직적으로 공고히 하며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공고히 하며 전체 인민의 정치—정신적 통일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정부와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집결시키면서 우리 나라 발전의 매개 단계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과업을 승리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로 조선 인민을 고무 궐기시키는 집단적 선전자, 선동자 및 조직자로서 당과 광범한 대중을 밀접히 련결시키는 인전대로서의 역할을 일관하게 수행하였다。

맑스—레닌주의는 우리 인민의 지도적, 지배적 사상으로 되였다。

당과 정부의 지도 하에 우리 인민이 五년 간의 평화적 건설을 통하여 조국의 북반부를 강력한 민주 기지로 전변시켰으며 조국 해방 전쟁에서 무궁 무진한 력량을 발휘하여 력사적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또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에서 거대한 승리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되고 그에 의하여 지도되고 고무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 『로동 신문』은 우리의 사업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친일, 친미파, 민족 반역자, 파괴, 암해 분자 및 기타 반동 분자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폭로 분쇄하면서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전체 근로 대중을 인민 정권을 강화하며 제반 민주 개혁과 민주 건설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였다。

혁명적 민주 기지의 물질적 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인민 경제 부흥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 신문』은 대중의 생기 발랄한 창조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선진 기술과 경험을 광범히 보급하며 물자 절약, 기계 애호, 원가 저하,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한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면서 애국적 증산 경쟁 운동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였다。

『로동 신문』은 우리 조국 북반부에 창설된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의 각 분야에서 자기의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조선 인민의 일치한 념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달성에로 광범한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을 조직 동원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평화적 건설 사업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전쟁 도발로 말미암아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이 발발되자 『로동 신문』은 『모든 것을 전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전체 조선 인민을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자유와 독립과 영예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로 한 사람같이 궐기시키는 사업에서 충실하게 당을 방조하였다。

신문은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성의 정신으로, 대중적 영웅주의와 혁명적 락관주의의 사상으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사상으로 전체 인민을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면서 그들을 전선과 후방에서 전투적, 로력적 위훈에로 불러 일으켰다。

신문은 당원들과 전체 대중 속에서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과 적개심을 분발시키며 혁명적 경각성을 고도로 제고시키며 사소한 안일성과 해이성, 무규률성과도 무자비하게 투쟁하면서 종국적 승리에로 그들을 고무 추동하였다。

신문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한 온갖 식인종적 만행과 략탈적 본성을 전 세계 여론 앞에 폭로함으로써 세계 인민들로 하여금 미제 침략자들을 二〇세기의 식인종으로, 인류의 원쑤로 락인하게 하였으며 평화 애호 인류의 동정을 우리의 편에 집중시켰다。

영광스러운 승리로써 정전을 달성한 후 『로동 신문』은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기본 방향에 의거하여 전쟁에서 파괴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물질적 담보로 되는 민주 기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투쟁에 전체 인민을 궐기시키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 달성을 위한 과업은 그의 물질적 담보로 되는 공화국 북반부 민주 기지에서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며 로농 동맹을 가일층 강화하며 이를 위하여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적, 혁명적 의식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는 당원들과 근로 대중들의 맑스—레닌주의적 계급 교양 사업을 가일층 개선 강화하며 봉건적, 부르죠아적 의식 잔재의 표현인 관료주의, 탐오, 랑비 현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로동 신문』은 당의 요구를 받들어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적, 계급적 의식을 제고시키며 우리 혁명을 좀먹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와의 타협없는 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신문은 대중적 증산 경쟁 운동의 조직자로서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생산 예비의 동원, 원가 저하를 위한 투쟁에서의 창조적 발기와 경험들을 광범히 전파 보급하면서 도시와 농촌에서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에로 전체 근로자들을 힘있게 추동하고 있다.

『로동 신문』은 전체 인민과 함께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역도들의 새 전쟁 도발 기도를 걸음마다 폭로하며 달성된 정전을 공고히 하며 조선 인민의 당면한 최대의 념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며 나아가서 극동 및 전 세계의 평화의 공고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로동 신문』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을 받들어 위대한 쏘련, 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나라 출판물들과 함께 평화를 위한 투쟁의 충실한 무기의 하나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의 수중에 있는 위력한 무기이며 당 정책 실현의 적극적 방조자이며 『대중적 선전자, 선동자이며 조직자』인 『로동 신문』이 걸어온 지난 一〇년 간의 업적은 우리 당의 모든 승리적 성과들과 함께 빛나고 있다.

당과 수령과 인민의 요구에 충실한 『로동 신문』은 오늘날 로동 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 대중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로동 신문』은 대중 속에서 위신있는 신문으로 장성 발전하였다.

『로동 신문』의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쏘련의 레닌, 쓰딸린적 『쁘라우다』는 고귀한 모범으로 되였으며 되고 있다.

영광스러운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당과 인민이 기대하는 방향에로 『로동 신문』은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세계 민주 력량의 지지는 우리 혁명 승리의 위력한 담보

송 예 정

조선 혁명은 불가제승적으로 발전하여 가는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일환이다.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 승리의 결과로 인류 력사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전환의 길에 들어 섰다.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은 세계 제국주의의 련쇄의 약한 고리를 절단하여 방대한 로씨야 제국의 판도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주권을 확립하였으며 그럼으로써 인류 력사에 새로운 기원,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에서의 새로운 시기를 열어 놓았다.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의 뒤를 이어 그리고 그와의 긴밀한 전투적 련계 밑에서 여러 자본주의 국가 프로레타리아트들이 근로 농민과 동맹하여 직접 주권 장악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게 되였다.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은 제국주의를 다만 그 본거들에서만 진동시킨 것은 아니였다. 그것은 제국주의를 그 후방으로부터도 타격하였던 것이다. 우선 그것은 짜리 로씨야의 지배 하에 놓여 있던 수 많은 변강 약소 민족들을 해방시킴으로써 이들을 영영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 리탈시키였다. 이 해방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적 역할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 밑에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그것은 인류 력사상 처음으로 로씨야 변강 약소 민족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민족적 평등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一〇월 혁명은 또한 전 세계의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해서도 심각한 혁명적 영향을 주었다. 로씨야에서의 쏘베트의 모범을 따라 페르샤, 중국, 인도 등에서는 로동자, 농민 쏘베트들이 출현하였다.

이리하여 一〇월 혁명을 계기로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예속국들을 평온 무사하게 착취하고 압박하던 시

대는 종말을 짓고 식민지 예속국들에서의 민족 해방 혁명의 시대, 그 나라 프로레타리아트들의 각성, 궐기의 시대, 혁명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실현의 시대가 닥쳐 왔던 것이다。

一〇월 혁명에 의하여 처음으로 수립된 쏘베트 국가는 제국주의 국가들과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혁명 운동의 강력한 근거지로, 성새로 되였고 이 성새를 중심으로 공동의 적, 세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와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적 투쟁이 전개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자기의 강력한 근거지를 가졌으며 수억만의 동맹군을 가지게 된 세계 사회주의 혁명은 그의 불가제승적인 전진을 시작하게 되였던 것이다。

제二차 세계 대전에서의 반퐛쇼 쁠럭의 세계사적 승리와 거기에서의 쏘베트 군대의 결정적 역할은 세계 사회주의 혁명 발전을 새로운 단계에로 올려 세워 놓았다。

퐛쇼 독일과 이태리 그리고 군국주의 일본의 패망은 전체로서의 자본주의 체계의 현저한 약화를 가져 왔다。 제二차 세계 대전을 경과하면서 그리고 대전 후의 해방적 분위기 속에서『전승』자본주의 국가들 내부에서도 민주 력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과거에 퐛쇼 국가들의 예속 하에 있던 구라파와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여 쏘련을 중심으로 한개의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되였다。 동방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도 류례 없는 앙양을 보이게 되였고 특히 위대한 중국 인민 혁명의 승리는 실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 이후 인류 력사가 쟁취한 가장 거대한 혁명적 달성이였다。

이와 같이 인류 력사 발전의 현 계단에 있어서 세계 사회주의 혁명은 불가제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조선 혁명은 이 세계 혁명의 전 체계 내에서 견실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 혁명이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일환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가 곧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 혁명의 성격, 그의 전개력, 그의 구체적 발전 행정은 무엇보다도 조선 사회 자체의 정치, 경제, 문화적 제 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조선 혁명은 현재 그가 처한 력사적 제 조건에 의하여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단계를 경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혁명이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일환으로 되는 주되는 리유는 우선 조선 인민과 세계 프로레타리아트가 제국주의라는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 혁명의 모든 성과는 동시에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성과로 된다는 거기에 있다。

조선 혁명이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일환으로 된다는 것은 또 조선 혁명이 전 세계의 반제국주의적 혁명 력량과의 공고한 련대성 속에서 발전하여 가고 있으며 전

세계 반제국주의 전선에서의 모든 전투적 성과는 또한 직접 간접으로 조선 혁명에 영향을 주며 그의 성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 계단에 있어서 조선 혁명의 주되는 적은 제국주의이다。 그런데 제국주의에 대한 타격은 우리 혁명 력량에 의해서도 주어질 뿐만 아니라 세계 혁명의 총력량에 의하여서도 주어진다。

이 타격의 형식은 극히 다양할 수 있다。 즉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승리,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의 발전, 세계 평화 옹호 운동의 강력한 전개, 또는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을 반대하며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시키기 위한 세계 혁명 세력의 강력한 지지 성원 등이 그것이며 제국주의 국가들 호상간의 알력과 충돌의 격화도 우리 혁명 수행에서의 간접적 예비로서 일정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 * *

약간의 력사적 사실들을 통하여 세계 혁명의 일환으로서의 조선 혁명의 발전 과정을 고찰하여 보기로 하자。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한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거대한 영향은 세계 혁명의 발단으로부터 미치기 시작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 강점 초기에 있어서 조선의 민족 해방 운동의 대렬에는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이 서 있었다。 이 민족주의자들은 혹은 침략자들의『도의심』에 호소함으로써, 혹은 다른 제국주의자들의『원조』에 의거하여 조선을 독립시키고 자기들의 계급적 독재를 실현하여 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비현실적이였으며 반동적이였다。 그들의 기도의 비현실성은 그들이 제국주의의 본질, 제국주의자들이 줄 수 있는『원조』의 정체를 타산하지 못한 데 있었다。 그들 민족주의자들은 일본 제국주의 이외의 다른 제국주의, 례하면 미 영 제국주의도 조선에 대한 침략적 야욕에 충만되여 있었으며 기회만 있으면 조선을 강점하려고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리해하지 못하였었다。

조선의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의 기도의 비현실성과 반동성은 또한 그들이 해방 투쟁의 유일한 주력군인 로농 대중에 의거하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혁명적 각성을 무서워하고 그를 억압하려고 한 데 있었다。

조선에서의 민족 해방 투쟁은 오직 그것이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일환을 이루게 되고 따라서 그의 강력한 영향과 지지를 받게 됨으로써만 활발한 전개력을 가지게 되였던 것이다。 一九一九년 三월에 일어난 광범한 반일 인민 봉기는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의 강력한 영향 하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三월 인민 봉기의 행정은 조선의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의 계급적 제한성

과 비겁성을 철저히 폭로하였으며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운동을 그들의 타협주의적 해독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계기로 되였던 것이다。

물론 三월 인민 봉기에 이르기까지는 조선의 로동 계급이 아직 그의 형성 초기에 있었다。 그러나 一九二〇년대에 들어 서면서 로동 계급이 더욱 더 장성함에 따라 맑스주의적 혁명 사상은 조선에 보다 강력히 침투되게 되였고 점차 민족 해방 운동의 전략 전술의 기초로 되게 되였다。 산업 중심지들에는 비밀리에 맑스—레닌주의의 소조들이 출현되였다。 맑스—레닌주의는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에 침투되면서 그에게 목적지향성을 부여하게 되였다。 로동 계급과 농민은 점차 자기들의 정치적 단체들을 형성하게 되였다。 一九二五년에는 조선 공산당이 창건되였는데 이것은 비록 일시적이나마 조선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의 고무자로 되였다。

一九三〇년 대에 이르러 민족 해방 투쟁은 새로운 적극적 형태——무장 투쟁의 형태를 취하게 되였는데 이 투쟁의 선두에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서 있었다。

三〇년대의 항일 무장 투쟁은 중국 동북 지방을 중심으로 중국 인민의 해방 투쟁과 직접적인 혁명적、전투적 련계를 맺고 있었는 데 三〇년대 항일 무장 투쟁의 강력한 생활력의 중요한 원천의 하나는 그가 강력한 국제주의적 련계 속에 있었다는 데 있다。 쏘련은 그의 위력을 부단히 그리고 급속히 증대시키면서 언제나 조선에서의 혁명 투쟁의 믿음직한 성새로 되였고 그의 존재 자체로써 우리 인민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 격려하였다。

제二차 세계 대전에서의 쏘베트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한 반팟쇼 진영의 승리적 종결 특히 쏘베트 군대에 의한 일제 통치 기반으로부터의 조선 해방은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의 력사와 조선 인민의 전력사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원을 열어 놓았다。 제二차 세계 대전 후 조성된 국제 무대에서의 새로운 력량 대비、자본주의 각국에서와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의 혁명 력량의 강력한 앙양과 혁혁한 혁명적 제 성과는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보다 높은 단계를 의미하는 동시에 조선 혁명의 국제적 배경의 결정적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쏘베트 군대에 의한 일본 군대의 궤멸은 곧 조선에서의 일제 식민지 통치의 종언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 혁명의 새로운 발족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八·一五 해방은 이와 같이 다만 우리 혁명의 새로운 발족으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혁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극히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주었다。

해방전 조선에서 반동의 주되는 력량은 일제 강점자

들이였다。 국내 반동 진영의 력량은 식민지로서의 해방전 조선의 사회、정치、경제적 발전의 특성으로 인하여 극히 미약하였고 이에 대비하여 로동 계급을 수위로 하는 근로 계급들은 량적으로 많고 비교적 단련 조직된 력량을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태는 쏘베트군대에 의한 일제 식민지 통치 제도의 타도를 계기로 조선에서 혁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극히 유리한 력량 배치를 조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쏘베트 군대의 조선에의 직접적 진주는 혁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제반 조건을 조성함에 있어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였다。 쏘베트 군대의 북조선 주둔은 북조선에서의 일제 통치 잔재의 철저한 파괴와 민주주의의 급속한 앙양을 가져 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 침략 세력의 북조선에 대한 온갖 침략적 기도를 견제하였다。 쏘베트 군대의 주둔은 또 그 자체로써 조선 인민에게 심각한 혁명적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사실 八·一五 해방을 계기로 전 조선에 걸쳐 민주 력량은 왕성하게 자라나게 되였으며 이 민주 력량 앞에 국내 반동 세력은 위축 마비되지 않을 수 없었다。

八·一五 해방 직후의 혁명적 정세 하에서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조선 근로 계급들 중의 가장 성실한 부분을 규합하면서 조선 공산당을 조직하였다。 우리 혁명은 자기의 전투적 사령부를 가지게 되였다。 이 모든 사실은 앙양되는 우리 혁명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강점은 우리 혁명의 전개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 오게 되였다。

미제 침략자들은 한편으로는 해방 직후 남조선에서 급격히 자라나던 민주 력량을 억압하며 지방 인민 위원회들을 파괴하였으며 다른 편으로는 민주 력량 앞에서 결정적 약세를 가지고 위축되여 가던 반동 세력을 집결 육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들은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북반부를 강점하고 나아가서는 대륙을 침습함으로써 그들의 세계 제패의 오랜 야망을 실현하여 보려는 것이였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은 오랜 력사를 두고 유기적、통일적으로 발전하여 오는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문화를 인공적으로 분할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그의 발전에 참을 수 없는 손실을 가져 오리라는 것은 명백하였다。 이와 같은 정세 하에서 조선 인민은 그 투쟁의 예봉을 무엇보다도 미제 침략자들에게 돌려야 하였으며 민주주의의 기치 하에 조국을 통일시키는 데 전력량을 돌려야 하였던 것이다。 우리 당은 이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당면한 최대의 투쟁 강령을 작성하였으며 이 강령에 따라 조선 인민을 투쟁에로 궐기시켰다。

외래 제국주의의 침략 세력의 침습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이 정의의 투쟁은 세계 혁명의 강력한 지

원 하에서 진행되였으며 또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우선 모쓰크바 三상 회의에서의 조선 문제에 관한 결정 채택과 그의 실천을 위한 쏘베트 동맹의 꾸준한 투쟁에서 표현되였다。 조선 문제에 관한 모쓰크바 三상 회의 결정은 쏘련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 제국주의자들의 고의적 파탄 정책으로 인하여 실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 문제에 관한 모쓰크바 三상 회의 결정의 거대한 력사적 의의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전 조선의 식민지화를 기도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계획을 세계 인민들 앞에 폭로하면서 이를 파탄시킨 데 있는 것이다。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북반부에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하는 것이였다。 북반부의 민주 기지 창설은 조선 혁명의 당면의 최고 임무로서의 민주주의적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기본적 수단인 동시에 북반부에서의 사회、정치、경제적 발전의 객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이리하여 북반부에 인민 주권이 창건되였고 제반 민주 개혁들이 실시되였다。

북반부에 민주 기지를 창설 강화함에 있어서도 역시 세계 혁명의 지지 방조 특히 쏘베트 군대의 북조선 주둔과 쏘베트 인민의 경제—기술적 원조의 역할이 거대하였다。 쏘베트 군대의 북반부 주둔은 직접 남조선을 강점한 미 제국주의 세력과 기타 국제 반동 세력이 북반부에 그의 마수를 뻗칠 수 없게 하였다。 쏘베트 군대의 북반부 주둔은 또 그 자체로써 조선 인민에 대하여 심각한 혁명적 영향을 끼치였다。 조선 인민은 쏘련과 사회주의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적의에 찬 중상 비방의 모든 허위성을 직접 체험으로써 깨닫게 되였다。 쏘베트 군대의 원조는 일본인들의 만행에 의하여 파괴된 북조선의 산업을 부흥 발전시키는 데 실로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이 역할은 조선 인민이 자체의 민족 간부들을 거의나 가지고 있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더욱 귀중한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쏘베트 동맹의 원조는 량적으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실로 사심 없고 진정으로 조선 인민의 리익과 번영을 념원하는 그러한 원조인 것이다。

쏘베트 동맹과 주둔 쏘베트 군대의 원조를 받으면서 우리 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북반부 인민은 자기의 주권과 인민 민주주의 제도에 의거하여 경제 문화 생활에서 류례 없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북반부에서의 이와 같은 발전은 남반부 인민에 대하여 심각한 정치、사상적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조선 혁명의 력량은 계속 장성 강화되였다。

조선 혁명에 대한 세계 민주 력량의 지지 성원은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광범하게 표현되였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 세계 민주 력량이 조선 전선에 돌린 국제주의적 지지 성원은 무엇보다도 조선 전쟁의 심대한 국제적 의의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조선 전쟁을 새로운 세계 대전을 도발하기 위한 전제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조선 전쟁의 행정 여하는 전 세계에서의 공고한 평화에 심대한 위협을 조성할 수가 있었다。 북반부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제 성과를 말살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야망과 그에 근거한 침략 행동은 곧 세계 혁명의 귀중한 성과에 대한 침해로 되며 특히는 인민 중국의 안전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였다。 따라서 침략 군대들을 타도 분쇄하고 전쟁을 승리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조선 인민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며 세계 민주 진영의 중요한 일각을 수호하는 것이며 동방과 전 세계에서의 공고한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였다。 그것은 또 동시에 미 제국주의와 전체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되는 것이였다。

정의의 전쟁을 진행하는 조선 인민에 대한 국제 혁명 세력의 지지 성원은 광범하고 다양하고 강력하였다。 세계의 형제적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은 평화 옹호 운동의 기치 하에서 사상과 신앙의 여하를 불구하고 오로지 전쟁을 증오하며 공고한 평화를 념원하는 모든 선량한 인민들을 조선에서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는 침략 전쟁을 반대하는 데로 추동하였다。 쏘베트 동맹을 수위로 하는 세계 혁명 력량은 미제 침략자들에게 침략 행동을 중지할 데 대한 경고를 주면서 그네들의 무모한 행동을 견제하였다。 쏘련과 중국 그리고 기타 인민 민주주의 제국 인민들은 싸우는 조선 인민에게 방대한 물질적 원조와 정신적 지지 성원을 보내 주었는데 이것은 조선 인민 자체의 전투적、로력적 위훈과 아울러 가렬한 전쟁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며 후방 인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그럼으로써 전쟁의 승리적 전진을 보장한 중요 담보로 되였다。

중국 인민은 자기의 가장 우수한 아들 딸들로써 구성된 강력한 지원군을 조선 전선에 파견하였는데 영용한 조선 인민군과 중국 인민 지원군과의 협동 작전은 조선에서의 전국을 근본적으로 전변시켜 놓았다。

조선 인민군과 중국 인민 지원군에 의하여 침략군에 가하여진 타격은 실로 심대하였다。 침략자들은 그들의 침략에 대항하는 힘의 강대성이나 그들이 당한 패배가 우연적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혹한 전쟁을 통하여 알게 되였다。 심대한 손실과 부단한 패배를 수반하는 성산 없는 전쟁은 적 진영 내부에 심각한 모순과 알력을 조성하였다。

침략자들에 대한 전 세계의 평화 옹호 운동의 압력은 더욱 장성하여 갔다。 이와 같은 시기에 쏘베트 동맹은 그의 무게 있는 발언으로써 조선 전쟁을 정전에로

유도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자본주의 세계에서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수위로 하는 一六개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하여 감행된 조선에서의 침략 전쟁은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였다。 이것은 실로 조선 인민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동시에 세계 혁명의 빛나는 승리였다。

정전후 오늘 조선 인민 앞에는 계속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 있다。

북반부 인민은 오늘 전쟁에서 입은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달성함에 필요한 모든 력량을 준비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조선 인민의 이 장엄한 투쟁은 역시 세계 혁명의 강력한 지지 원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혁명적 원조는 우선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제국으로부터의 방대하고 적절한 경제적、기술적 원조와 문화 교류의 형식으로 주어지고 있다。

정전 후 조선 인민의 평화적 복구 건설 투쟁에 대한 이와 같은 원조의 위력은 우선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급속한 템포에서、정전후 二년간의 복구 건설 사업에서 달성한 성과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대한 형제적 인민들의 지지 성원의 위력은 또 오늘 북조선 인민 경제가 그의 비교적 약한 공업적 토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공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켜 가며 또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도 동시에 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거기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서의 급속한 템포와 발전의 이와 같은 성격은 과거에 제국주의 포위 속에서 일국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쏘련에서는 가져 보지 못하던 새로운 유리한 국제적 환경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게 되였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정전 후 조선 혁명에 대한 민주 진영의 지지 원조는 또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제 무대에서의 꾸준한 투쟁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형제적 국가들의 이와 같은 투쟁、조선 인민 자체의 강력한 힘、그리고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일치한 목소리는 조선에서 전쟁을 재도발하려는 미제와 그의 주구 리승만 역도들을 엄연히 견제하고 있다。 최근 국제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의 깊은 제 사건들——제네바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오지리 문제의 해결、쏘련과 서부 독일 정부 간의 외교 관계 설정 등은 조선 문제

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당한 투쟁도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조선 혁명에 대한 진보적 력량의 지지 성원에 대한 간단한 력사적 고찰은 이 지지 성원이 날이 갈수록 점차 강력하여졌으며 광범하고 다양하여졌다는 것을 결론할 수 있게 한다。

우에서 지적된 모든 사실들과 론거들은 조선 혁명의 발전에 대한 세계 혁명의 영향의 극히 거대한 의의를 말하는 동시에 조선 혁명이 외부로부터 수입되는 것도 아니며 또 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조선 혁명은 조선 인민이 수행하는 것이며 그의 직접적이고 주되는 담당자는 조선 인민 자체이다。 외부적 요인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만약 조선 내부에 그를 접수할 능력이 결여되여 있거나 미약할 때 조선에서 혁명이 현실로 될 수 없다。

여기에서 내부적 요인이란 로동 계급을 수위로 하는 전체 근로 인민의 정치적 각성과 조직성、일반적 문화 정도、나라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 간의 모순의 발전 정도 등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방전 조선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전개된 영웅적 항일 무장 투쟁과 그의 영향하에 장성 강화된 전체 조선 인민의 혁명 력량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놀아 온 거대한 역할을 옳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의 혁명 력량은 자체의 힘으로 일제 식민지 통치를 타파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혁명 력량은 조선에서의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일제 기반으로부터 조선이 해방되였을 때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개시된 혁명을 발전시키며 혁명 력량을 장성 강화하는 기본 세력으로、핵심으로 되였던 것이다。 만약 조선 인민 자체 내부에 이와 같은 혁명 력량이 이미 조성되여 있지 않았더라면 조선에서의 혁명의 발전은 더욱 곤난하고 장구한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써 우리는 혁명 수행에서의 외부적 요인은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오직 내부적 제 요인을 거쳐서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하여 결코 우리는 우리 혁명 발전에 끼치는 세계 혁명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과소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한편으로는 세계 제국주의 진영이 형성되여 있고 그의 횡포하고 집요한 침략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다른 편으로는 세계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되여 세계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인류 력사 발전의 현계단에 있어서 한 나라에서의 혁명과 정치、경제적 발전에 대한 국제적 요인의 영향과 의의는 어느 력사적 시기에 있어서보다도 증대되여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요인의 영향은 진보적 방향에 대해서나、반동적

방향에 대해서나 다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력사는 어떤 나라 내부의 계급들 간에 력량 관계가 진보적 계급들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국제 반동 세력의 개입 간섭으로 말미암아 혁명의 일시적 정체나 후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는바 해방 이후 남반부의 정세는 이러한 실례의 하나로 된다。

국제적 요인의 영향을 어떻게 받아 들이는가、어떠한 속도로、어떠한 심도로 받아 들이는가 하는 것은 이를 받아 들이는 국내적 요인의 제 특성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이다。 또 이런 혹은 저런 정도로 접수된 이 영향은 그것으로써 그 나라 발전의 전 과정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자체의 력량과 아울러 한개의 동력 체계의 구성 부분으로 된다。 그러나 국제적 요인까지도 포함한 전 동력 체계에 있어서 주되는 것은 내부적 요인이다。 그것은 내부적 요인이란 곧 자기의 전투적 지도부와 모든 전투 조직체들과 생산적 조직체들과 문화 단체들을 가진 그 나라의 인민을 의미하며 그 나라에서의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의 지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제적 요인은 국내적 요인에 영향을 주며 해당 사회의 전진 운동을 촉진 또는 지연시킨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할은 형식에 있어서 극히 다양할 수가 있으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와 개별적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으니 조선에서 일제 식민지 통치 기구를 타도함에 있어서의 쏘베트 군대의 역할은 바로 이와 같은 경우이다。

이상에서 주로 세계 사회주의 혁명이 조선 혁명 발전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런데 세계 혁명과 조선 혁명과의 관계는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님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국제적 호상 원조의 특징은 우방에 대한 원조가 동시에 자기 자체에 대한 지지로 된다는 데 있다。 조선 혁명은 세계 혁명의 지지 성원 속에서 발전하였으며 하고 있는 동시에 그는 또 그로서 직접、간접으로 세계 사회주의 혁명 발전의 총과정에 기여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는 것이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의 지도 하에 三〇년대로부터 조직 전개된 영웅적 항일 빨찌산 투쟁은 쏘련과 중국 인민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기도와 행동을 견제함에 있어서 귀중한 작용을 놀았다。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일제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후 발전하는 조선 혁명、우선 북반부에서의 사회 경제적 제 개혁은 동방 약소 민족들을 크게 고무 추동하였다。

더우기 미제 무력 침공자들을 반대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은 세계 혁명에 대한 조선 인민의 실로 거대한 기여로 되였다。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있어서의 조선 인민의 세계 혁명에 대한 기여는 우선 그가 자기의 영웅적 투쟁으로써 세계 반동의 괴수인 미 제국주의와 그의 추종 세

력에게 준 심대한 군사、정치적 타격이다。 이와 같은 타격의 무한히 귀중한 국제적 의의는 그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세계 전쟁 도발의 흉계를 파탄시킨 거기에 있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에서의 미국 계획의 실패는 전쟁 방화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전쟁 모험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암담한 결과에 대하여 심중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조선 및 중국을 반대하는 침략 행위는 제三차 세계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결정적 걸음이였다。 그러나 제三차 세계 대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결코 미국 지배층이 세계 대전을 폭발시키려고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조선 사변이 그들에게 전혀 상상 이외로 불리하게 전환되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겁을 먹게 된 때문이며 또한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의 현명한 정책이 조선 분쟁을 세계 대전에까지 확대되지 못하게 방지하였기 때문이다』(선집 제四권 二〇八——二〇九페지)。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으로써 제국주의의 침략 군대들에 가하여진 엄중한 타격은 자본주의 세계 내부의 압력과 모순을 가일층 격화시켰다。

이와 같은 모순의 격화는 성산 없는 전쟁에 직접 아무런 리익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참전하게 된 추종 국가들에게 미제가 조선 전쟁에서의 막대한 희생을 전가시키려고 기도 한데서 불가피하게 야기된 것이였다。 성산 없는 장기적인 침략 전쟁을 감행하면서 미제가 자기의 추종 국가들에게 민주주의 제국과의 경제적 교류의 단절을 강요한 사실이 또한 이와 같은 모순 격화의 원인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 인민은 그의 영웅적 투쟁으로써 미제와 그의 추종국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줌으로써 세계 인민 앞에 제국주의의 약점을 적라라하게 폭로하고 그의 위신을 여지 없이 저락시키였고 그럼으로써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의 해방 투쟁을 무한히 고무 추동하였던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 전쟁의 결과 미 합중국의 만능에 대한 신화가 폭로된 그 사실은 물론 여러 나라 인민들로 하여금 미국의 군사 기술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남에 도움을 줄 것이며 또한 자기 력량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굳게 하여 줄 것이다。 조선 인민의 성과들은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동방 인민들을 고무하는 모범으로 되고 있다』(상동서 二一〇페지)。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강력한 지지 성원 속에서 조국 해방 전쟁의 가렬한 시련을 겪어 이긴 조선 혁명은 오늘날 더욱 더 자기의 위력을 증강하면서 세계 혁명의 강력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 ❋

세계 혁명에 대한 조선 혁명의 기여에 관한 간단한 력

사적 고찰로부터 이 기여가 시간을 경과함을 따라 더욱 더 증대되여 가는 경향을 밟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조선 혁명에 대한 세계 혁명의 영향의 력사적 고찰은 그 영향도 역시 거익 증대되여 가는 경향을 밟고 있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 경향들은 세계 혁명과 그의 유기적 일환으로서의 조선 혁명이 다 같이 그 위력을 부단히 장성시키고 있으며 량자 간의 련계가 더욱 더 공고 심화되여 가는 사실의 표현인 것이다。

세계 혁명과 그의 유기적 일환으로서의 조선 혁명의 이상과 같은 발전 과정과 그들 간의 호상 관계는 법칙적인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바로 인류 력사와 조선 사회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혁명이나 조선 혁명은 일부 인간들의 념원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낡은 생산 방식과 제국주의 체계의 내재적 모순들의 극단한 첨예화에 의하여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의 작용과 그에 의거하는 혁명적 계급들과 피압박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다。 세계 혁명과 조선 혁명의 부단히 장성하는 위력、반동 력량에 대한 그의 련속적인 승리와 우세는 사회주의 제도의 위력의 표현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승리、사회주의의 자본주의에 대한 승리、그의 본질적 우월성의 표현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조선 혁명의 전도는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전도와 직접적으로 련결되여 있으며 세계 사회주의 혁명이 불가제승적인 것과 같이 조선 혁명도 불가제승적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선 혁명이 자기 발전의 특수한 합법칙성과 고유한 행정을 가진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 혁명의 총 과정과 조선 혁명의 구체적 과정 간의 이와 같은 관계는 불가피한 것이니 그것은 세계 혁명이 비록 하나의 통일적 과정을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 나라들의 혁명 또는 혁명 투쟁과의 결합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또는 우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조선 혁명은 무엇보다도 조선의 사회、정치、경제적 제 조건의 반영이며 조선 혁명에 대한 세계 혁명의 영향의 위력은 조선의 내부적 력량을 거쳐서 작용하며 조선 혁명의 직접적 담당자는 조선 인민이라는 사실 등으로써 설명된다。

그런데 여기로부터는 세계 혁명의 일환을 이루는 조선 혁명은 자기 자체의 리익을 위하여서도、그리고 세계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서도 자기의 혁명 력량을 부단히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지닌다는 결론이 나온다。

세계 혁명 전선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 매

개인은 세계 혁명의 리익에 복종하면서 자기의 혁명적 력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신성한 의무를 지닌다。

이 의무는 성공적으로 전진하는 세계 혁명의 총과정에서 락후하지 말며 그에 대하여 부담을 끼치지 말며 오히려 이 총과정에 추진적 영향을 미침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로 세계 혁명의 성공적 전진은 자연생장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 나라들의 혁명 력량의 이와 같은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 인민의 혁명 운동사는 실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전통으로써 관철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의 현명한 지도를 받는 조선 인민이 앞으로 이 영광스러운 혁명적 전통을 더욱 빛내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김 한 주

인민 경제의 기본 부문들인 공업과 농업은 그의 생산 및 소비에 있어서 호상 밀접하게 련결되여 있다。

공업은 건설 자재 농기계、화학 비료 등의 생산 수단과 직물、신발 등의 각종 생활 필수품을 농촌에 공급하며 또 농업은 량곡、육류 등 식량과 각종의 식물성 및 동물성 원료들을 도시—공업 부문에 공급한다。 이러한 호상 관계에 기초하여 공업과 농업 간에 옳바른 균형을 설정하는 문제는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대하여 쓰딸린 동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사회주의 사회란 공업과 농업 일꾼들의 생산—소비 협동체이다。 이러한 협동체에 있어서 만일 공업이 원료와 식료품을 공급해 주며 공업 제품을 소화해 주는 농업과 련결되여 있지 못하며 그리하여 공업과 농업이 인민 경제의 단일한 전일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로부터는 어떠한 사회주의도 생길 수 없다』(저작집 제七권 조선 로동당 출판사판 二六六페지)。

공업과 농업의 호상 관계 및 옳바른 균형의 중요성에 관한 이 명제는 물론 우리의 인민 경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대로 해당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기본 방향은 나라의 장래 공업화의 토대를 축성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에 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나라 공업 부문에서 예견되며 또한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근본적인 질적 변화와 관련하여 우리의 농업 생산도 그에 보조를 맞추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 경제의 기본 부문들인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三년 간의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 기간에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 경제는 전반적으로 혹심한 파괴와 피해를 당함으로써 공업은 농촌에 건설 자재와 농기구 및 화학 비료 등의 생산 수단과 각종 생활 필수품들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였으며 또 농업은 도시—공업 부문에 공업 원료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였다、즉 전쟁은 공업과 농업 간의 정상적인 련계를 현저히 약화시키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공업과 농업 간에 정상적인 련계를 회복시키며 그들의 동시적인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인민 생활의 개선 향상과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보장하며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민주 기지의 가일층의 강화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인민 경제 제 부문 특히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그 중에서도 발전된 중공업의 토대를 가져야 한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 경험은 이것을 명백하게 뵈여 주고 있는바 『쏘련 농업의 가일층의 발전 대책에 관한』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九월 전원 회의의 보고에는 이 문제가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공산당은 전체 인민 경제 부문들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키는 필수 조건으로서 중공업을 백방으로 발전시키는 정책 로선을 시종 일관 실시하였으며 이 도상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인민 경제의 이러한 우선적인 과업의 해결을 위하여 중요 관심이 돌려졌으며 여기에 기본 력량과 자금들이 돌려졌다。 우리의 우수한 간부들이 국가의 공업화 사업에 종사하였다。 우리에게는 중공업과 농업과 경공업을 동시에 높은 템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필요한 전제 조건들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 전제 조건들이 조성되였다。 우리는 강력한 공업적 토대와 강화된 꼴호즈들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건설 각 분야에 준비된 간부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인민 경제가 전쟁 기간에 막대한 파괴와 피해를 입었으며 또 원래 발전된 중공업의 토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업과 농업을 비롯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 결쳐 동시적인 균형적 복구 발전의 방향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은 우선 무엇보다도 위대한 쏘련 및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들로부터의 막대한 물질적 및 기술적 원조가 보장되여 있기 때문이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공업과 농업의 옳바른 균형은 높은 기술적 토대 우에서의 이 부문들의 계획적 발전을 전제로 한다。 어느 한 부문의 기술적 토대 및 경제 형태가 다른 한 부문에 비하여 뒤

떨어져 있을 때에는 조만간 그들 간에 반드시 일정한 불균형이 조성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국영 경제 부문이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는 우리의 공업은 전후에 쏘련의 가장 새로운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여 그 기초 우에서 건설되게 되였는바 이것은 공업의 급속한 발전 속도와 식량 및 원료에 대한 급격한 수요의 증가를 예견하게 하는 것이였다。 우리가 개인농 경리의 체계를 가지고 더우기 전쟁 시기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농촌 경리의 경제적 토대를 가지고서는 급격히 증대되는、 이들 공업 부문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였다。 그것은 분산된 소규모의 개인농 경리는 계획적으로 확대 재생산의 원칙에 따라 발전하지 못하며 따라서 그 속도가 공업보다 매우 뒤떨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농업을 계속 개인농 경리 형태에 남겨 둔다면 그것은 계획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사회주의적 공업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농업 뿐만 아니라 공업과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경제를 실시하며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작용이 농업까지 포괄하도록 협동화의 길을 통하여 농촌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력사적 과업과 관련되는 필연적 요구로 되였다。

협동 경리에 있어서는 토지를 비롯하여 통합된 전체 생산 수단과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선진적 기계 기술 및 영농 방법을 도입하여 농업에서 보다 높은 수확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력을 통합한 결과 각종 부업을 경영하여 그의 생산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발전하는 공업에 식량과 원료를 더 많이 공급하는 동시에 그 대신으로 더욱 풍부하고 값이 눅은 공업 생산품—생산 수단과 소비품을 더 많이 구매하게 됨으로써 농업과 아울러 공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후 시기에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락후하고 파괴된 농업의 물질적 및 기술적 토대를 재건 강화하며 분산된 소규모적 개인농 경리 형태를 확대 재생산의 원칙에서 계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 형태로 개조하는 것이 필수 조건으로 되였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六차 전원 회의는 바로 이와 같은 필연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농업을 점차 기계화하고 협동화하여 알곡 생산을 계속 증대시키는 기초 우에서 목축업과 공예 작물 생산 등을 급속히 발전시킬 『농촌 경리 복구 발전의 기본 방향』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 *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에는 공업 부

문에 있어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의 결과인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의 잔재를 청산하고 장래 우리 나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一九五六년에 이르러 공업 생산과 인민 소비품 생산은 전쟁 전 一九四九년 수준을 현저히 릉가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 경리 부문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 간에 식료품에 대한 주민들의 장성하는 수요와 농업 원료에 대한 경공업 및 식료품 공업의 장성하는 수요를 더욱 충분히 충족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하여서는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당의 옳바른 정책과 광범한 농민 대중의 애국적 창발성에 의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은 공업과 농업 간의 정상적인 생산적 및 소비적 련계의 강화에 특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공업은 농촌에 철재、 쎄멘트 및 목재 등 건설 자재와 농기계、 농기구 및 화학 비료 등의 생산 수단과 면직물、 견직물、 고무신 등 각종 소비품들을 더 많이 공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업 부문의 지도적 역할에 의하여 농촌 경리 부문은 관개 하천 공사를 확장하고 선진적 농기계들과 선진 기술、 영농 방법 등을 도입함으로써 농업 증산을 보장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킬 수 있게 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업의 지도적 역할은 또한 농업 발전의 일정한 수준과 속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우리 공업이 복구 발전됨에 따라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로동자、 사무원 수는 현저히 증가되며 인민 소득도 더욱 장성될 것이 예견되여 있는바 이것은 무엇보다도 량곡 수요의 증가를 전제로 하며 또 량곡 생산의 증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경공업 및 식료품 공업의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원료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전제로 한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에는 면직물、 견직물、 신발、 식료품 기타 생활 필수품 생산을 위한 대소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 신설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경공업의 이와 같은 발전은 면화、 잠견、 축산물 등 농산 원료에 대한 공업 부문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정전후 불과 二년 동안에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 경제 각 부문들에서는 거대한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공업 부문에 있어서는 희천 기계 제작 공장、 희천 자동차 부속품 공장、 평양 농기계 공장、 평양 방직 꼼비나트、 구성 방직 공장 등을 비롯한 선진 기술로 장비된 六○여 개소의 대중 기업소들이 새로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또한 전쟁 기간에 파괴되였던 발전소、 탄광、 광산、 제철소、 제강소、 제련소、 기계 제작 공장、 화학

비료 공장, 쎄멘트 공장, 고무 공장 등 二三〇 여 개소에 달하는 대 중 기업소들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복구 확장되여 조업을 개시하였다.

공업 부문에서 이와 같이 다수의 공장, 제조소들이 신설, 복구 확장된 결과 전후 二년 간에 각종 공업 제품의 생산은 급속히 증가되였다.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의 생산 수준은 一九五四년에 이미 一九四九년 생산 수준을 三% 릉가하였으며 一九五五년 상반년에 월 평균 생산 수준은 一九四九년 월 평균 생산 수준을 四三% 릉가하였다.

전후 二년 간의 공업 발전 수준이 벌써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의 四년간(一九四六——一九四九년)의 발전 수준을 훨씬 초과하게 되였다는 이 사실은 전후 시기에 공업 발전의 속도가 얼마나 급속한가를 명백하게 뵈여 주는 것이다.

농업 부문에 있어서도 일련의 중요한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전후 二개년 간에 수만 정보의 농경지가 복구 확장되고 대규모의 평남 관개 제一 계단 공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관개 하천 시설들이 완성됨으로써 三만 八천 정보의 관개 면적과 七만 四천 여 정보의 토지 보호 면적이 확장되였다.

이와 동시에 一九五三——五四년 간에 농기계 임경소는 一四개소로부터 四五개소로 증가되고 뜨락또르의 수와 그 기경 면적은 각각 三배 이상으로 장성되였으며 화학 비료와 개량 농기구의 공급량은 현저히 증가되였다.

그리하여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농촌 경리의 물질적 및 기술적 토대는 점차 회복되고 또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광활한 길을 열어 주는 농업 협동 경리는 전후 二년 간에 급속히 장성되고 있다.

一九五三년 六월에는 一〇〇 여 개에 불과하였던 농업 협동 조합이 一九五五년 六월에는 一만 一천 여 개로 증가되여 이미 전 농가 호수의 四四%를 망라하게 되였다.

당과 정부의 배려에 의하여 농업 협동 조합들과 농민들에 대한 영농상, 생활상 방조를 위한 제반 조치들이 강구 실시되였다.

당과 정부의 이와 같은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전후 二년간에 다수확 작물을 비롯한 알곡 작물의 파종 면적은 현저히 증가되였으며 선진적 영농 방법과 농기구들이 보다 광범하게 도입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농업도 공업에서와 같이 확고한 발전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농업 생산의 발전은 아직 공업 생산의 발전에 비하여 매우 뒤떨어지고 있으며 량곡, 원료 등에 대한 인민 경제

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업 생산은 이미 一九五四년에 전쟁전 一九四九년 수준을 릉가하였으나 농업 생산은 아직 그 수준에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현 시기에 있어서 공업에 비하여 농업의 발전이 현저히 뒤떨어지게 된 원인은 지난 기간에 농업 생산의 제 조건이 아직 전쟁전 수준에까지 회복되지 못한 그것과 관련된다. 전후 시기에 농촌 경리의 물질적 및 기술적 토대는 날로 강화되고 있으나 전쟁 기간에 파괴되고 황폐화된 토지 및 관개 하천 시설들은 전부 복구되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에서의 축력, 로력, 농기구 및 화학 비료 등의 부족은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전후 二년 간에 거듭된 혹심한 자연 재해는 농촌 경리의 복구 발전에 심중한 저해를 주었다.

이러한 조건들과 아울러 특히 지적할 것은 우리의 농업이 이제 처음으로 소규모적 개인농 경리 형태로부터 협동 경리 형태로 이행하는 사회주의적 개조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그 사실이다. 우리의 농촌에는 아직도 개인농 경리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이미 조직된 농업 협동 조합들도 조직—경제적으로 공고화되지 못하고 적지 않은 결함과 부족점들을 가지고 있다.

일찌기 쓰딸린 동지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경영하던 농업을 새로이 꼴호즈 제도에 넘겨 세우며 재편성하는 개혁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고 가르쳤다. 전쟁에 의하여 막대한 파괴와 피해를 당한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복구 발전과 그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러한 데로부터 출발하여 당과 정부는 금년 六월에 농촌 경리 부문에 더 많은 국가적 자금과 로력을 투하하여 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최단 기간 내에 농촌 경리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킬 전면적 조치들을 취하였다.

당과 정부는 농촌 경리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서 一〇억원 이상의 국가적 자금을 추가 투자하여 명년도 영농기 전으로 관개 면적 三만 정보 이상, 토지 보호 면적 三만 二천 정보 이상을 더 확장할 것을 비롯하여 농촌 경리의 물질적 및 기술적 토대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이미 조직된 농업 협동 조합들을 조직—경제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또한 농민들의 생활을 가일층 향상시키며 그들의 생산 의욕을 더욱 제고시키기 위하여 각 방면으로 국가적 혜택을 증가시키고 있다.

농촌 경리의 강화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이와 같은 전면적 제 대책의 실시는 전후 二년간 우리 나라 인

민 경제 특히 공업 부문에서 달성된 거대한 성과에 기초하고 있다。

공업의 급속한 발전 속도는 한편으로는 농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공업 부문의 요구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공업 부문의 지도적 역할을 일층 제고시킨다。 그러므로 이것은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제 대책이 더욱 성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으로 된다。

※ ※ ※

농업의 락후성을 급속히 퇴치하고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우리 당 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당면 과업의 하나이다。 그러면 오늘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 부문들의 동일한 발전 속도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우선적으로、가장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는 것은 중공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공업에서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증대되게 되며 따라서 이 요인 하나만으로도 공업 전체의 발전 속도는 농업의 발전 속도를 훨씬 릉가하게 된다。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도적 지위는 바로 공업의 이와 같은 급속한 발전 속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전후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은 농업에 비하여 공업의 보다 빠른 속도를 예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시기에 농업이 락후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발전 속도가 공업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의미하는 그것만은 아니다。 원래 농업은 공업과 동일한 속도로서 발전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업과 농업의 발전 속도에 관한 문제와 그의 균형에 관한 문제를 그대로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업과 농업의 발전 속도와 균형에 관한 문제는 호상 밀접한 련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농업 발전의 속도가 공업 발전의 속도에 비하여 객관적 요구보다 더 뒤떨어지게 될 때에는 그들 간에 옳바른 균형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공업이 자기의 생산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는 그런 정도로 농업이 또한 자기의 생산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는 때에는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전후 二년 간에 우리 인민 경제 발전에 있어서 공업과 농업 간에는 얼마만한 불균형이 조성되였다。

이와 같은 불균형의 조건 하에서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은 공업이 자기의 생산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농업도 또한 자기의 생산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발전 속도의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문제를 발전 속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대체로 이상과 같거니와 이 문제는 또한 공업과 농업의 생산적 및 소비적 련계의 측면에서도 관련된다。

그러면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이란 공업이 농업에 소요되는 일체 생산 수단과 소비품들을 충분히 생산 공급하며 또 농업이 도시—공업 부문에 소요되는 일체 식량과 동물성 및 식물성 원료들을 충분히 생산 공급하는 국내적 자급 자족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업과 농업의 생산적 및 소비적 련계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의 자연—기술적 제 조건과 사회—경제적 제 조건에 의하여 제약되며 이러 저러한 정도로 국제적 분업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 나라는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고립된 섬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세계 一위의 공업국인 쏘련을 비롯한 중화 인민 공화국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들로 형성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 되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와 함께 새로운 국제적、사회주의적 분업에 기초하여 인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후 인민 경제 계획은 바로 이와 같이 유리한 가능성에 기초하여 세계 민주 시장과의 옳바른 련계 밑에서 우리의 공업과 농업의 생산적 및 소비적 련계를 일층 강화 발전시킬 것을 예견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직 우리의 공업이 생산하지 못하는 뜨락또르 등 각종 생산 수단들도 농촌에 많이 보낼 수 있게 되였으며 또 우리의 농업이 생산하지 못하는 원료들로 된 각종 소비품들과 식료품들도 많이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이란 결코 고립된 국내적 범위에서의 국내적 자급 자족 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세계 민주 시장과의 옳바른 경제적 련계는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간의 경제적 호상 협조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진영 나라들은 그 경제적 및 기술적 발전 수준 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 호상 협조의 관계 하에 모두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 진영 나라들 간의 경제적 호상 관계는 사회주의 경제 법칙에 의거하고 있으며 그 법칙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본주의 나라들 간의 경제적 련계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진영 나라들의 호상 관계에는 보다 강한 국가나 또는 경제적으로 보다 발전한 국가에 의한 약소 국가의 착취나 노예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제 인민의 민족적 및 국가적 독립에 대한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진

영 나라들의 경제적 련계의 목적은 높은 기술의 토대 우에서 사회주의적 생산의 부단한 장성 및 완성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이 진영의 개별적 나라들의 인민 경제를 호상 보충하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호상 원조는 비단 상업적 련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원조는 과학—기술적 경험의 교환에 의해서와 그리고 이 진영의 일부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주는 직접적、생산적 원조에 의해서도 실현된다。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이 우리에게 주는 거대한 기술—경제적 방조는 그의 구체적 표현이다。 쏘련은 우리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각종 기계와 생산 설비、중요 종류의 원료를 공급하며 기술 문전을 제공하며 또 지질 탐사 및 기업소의 복구 전설에 직접 참가하는 데 이르기까지의 각종 기술적 방조를 줌으로써 우리의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방조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기타 인민 민주주의 나라 인민들도 우리에게 거대한 기술—경제적 방조를 주고 있다。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과의 이와 같은 우호적 협조 및 호상 원조의 관계는 세계 민주 시장의 한 환을 이루고 있는 우리 나라의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완성을 촉진하며 또 이 기초 우에서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부단한 향상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조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을 더욱 더 성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진영 나라들과의 경제적 련계의 강화를 위해서는 주요 종류의 생산물의 생산 계획들을 더욱 더 호상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세계 민주 진영을 구성하고 있는 매개 개별적 나라의 인민 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계획적 협조를 확대 심화하여야 할 객관적 필연성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객관적 필연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획 작성시에 투자가 비합리적으로 또 비경제적으로 배정되게 될 것인바 이것은 또 생산 장성 템포와 로동 생산 능률 장성 템포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노는 것은 세계 민주 진영 내에서의 경제적 협조 및 호상 원조 관계의 가일층의 공고화이며 이 진영 나라들과의 국제적 분업의 보다 효과적인 리용이며 인민 경제 계획들의 더욱 밀접한 결합 및 조화이다。

그러나 한편 국내적 자급률과 균형에 관한 문제도 또한 호상 밀접한 련관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의 인민 경제의 중요 부문들은 통일적 국가 계획의 기초

우에서 발전하며 통일적 지도에 복종되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사회주의적、국제적 분업을 반영하는 민주 진영 나라들의 계획적 협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적、국제적 분업은 그 나라가 경제적 면에서 발전한 나라인가 또는 덜 발전한 나라인가에는 관계없이 매개 나라의 국가적 자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민주 진영 나라들의 전반적、계획적 발전과 이 진영에 참가한 나라들 하나 하나의 전반적、계획적 발전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국내에서 능히 생산할 수 있으며 또 생산하여야 할 것까지 —— 공업 산물이거나 농산물이거나를 막론하고 —— 민주 시장에 의존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회주의적、국제적 분업의 원칙에 배치되며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의 방향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국내에 유리한 자연—경제적 조건이 있는한 그의 생산을 확장하며 자급률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민주 시장에 대한 공급률을 증대시키도록 하는 것이 곧 국제적 분업의 원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긴급한 당면 과업인 농업 발전의 문제를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농촌 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농업에 극히 유리한 자연—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량곡을 비롯하여 공업 원료들을 가능한 정도로 국내적으로 충분히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하며 또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과 정부의 제반 농업 시책은 여기에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농업 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유리한 자연—경제적 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의 수요를 민주 시장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극히 명백한 일이다。

그러므로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업 부문에서와 같이 농업 부문에서도 그의 생산 과제들을 매개 부문별로、품종별로 그리고 또 량적으로、질적으로 완수 및 초과 완수하도록 하는 것이 전제로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공업내 제 부문 간에서 정확한 균형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내 제 부문 간에서도 또한 정확한 균형이 요구되는 것이다。

✽ ✽ ✽

현 시기에 농업의 락후성을 퇴치하고 공업과 농업의 급속한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알곡 문제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농업에서 지도적、기본적 부문으로 되는 것은 알곡 생산 부문이다。

알곡 생산은 모든 농업 생산의 기본이며 이것이 없이는 인빈의 증대되는 식량의 수요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축의 기본 사료도 보장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알곡 증산에 중심을 두면서 지방 조건에 적응

한 농산물의 생산 증가를 위하여 농촌 경리의 모든 력량을 이에 집중시키는 것은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의 중심 고리이다。

알곡은 그 자체로서 인민 생활과 경제 건설에 비상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공고한 알곡 생산의 토대 우에서만 목축업과 공예 작물 및 채소、원예 작물 등의 생산도 급속히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전후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알곡 문제가 더욱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되였는바 그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공업 인구의 급격한 장성、인민 경제적 수요의 계속적 증가、인민 대중의 물질적 생활의 부단한 향상 등 적극적 제 요인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농촌 경리의 물질적 및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제 대책은 무엇보다 알곡 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최근 二——三년 내에 우리 나라에 량곡을 풍부하게 조성하는 것——이것은 농촌 경리 부문에 제기되고 있는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농촌 경리 부문에서 목축、양잠 및 공예 작물 등의 생산이 차지하는 의의를 조금이라도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농업은 육류와 가능한 공업 원료들을 반드시 더 많이 생산 공급함으로써 도시—공업 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우리 나라의 자연 조건은 풍부한 자연 사료를 더 많이 리용하여 목축업을 발전시키며 또 알곡 생산에 영향을 줌이 없이 잠업과 일부 공예 작물들과 과실 등의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무한한 예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알곡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 나라의 자연 조건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목축、잠업 및 공예 작물 등의 생산을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에 또한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농촌 경리는 오직 알곡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 제 부문의 유기적인 발전의 기초 우에서만 급속한 전반적 앙양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최단 기간내에 알곡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며 전체 농업 생산 부문들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대책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농촌 경리의 물질적 및 기술적 토대를 계속 강화하는 데 있다。 이 점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명년도에는 농업에 보다 더 많은 자금과 로력을 투하할 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앞으로 작성될 五개년 인민 경제 계획에도 방대한 관개 시설、수리 공사와 토지 개간 면적을 확장하도록 하며 농기계 생산 및 기타 일련의 근본적인 대책들이 예견될 것이다』。

알곡 생산 총량을 현저히 증가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농업의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야 하는바

그것은 농업에서 기본적 생산 수단으로 되는 토지 경지 면적의 절대적 확장、관개 시설의 확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토지 복구、보호、개량 사업과 관개 수리 시설 확장 사업이 전면에 나선다。 이의 성과적 해결이 없이는 알곡 생산의 현저한 증가도、사료 생산의 문제도、기타 농산물의 증산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토지 경지 면적의 절대적 증가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하에서 알곡 생산을 증대시킴에 있어서 경지 면적의 단위당 수확고를 더욱 제고하는 문제는 거대한 의의를 갖는다。 이것은 우선 다수확 작물 면적의 철저한 확장、선진 영농 기술과 선진 영농 방법의 전면적 도입、토지의 비옥도의 증진、토지 리용률의 제고 등 일련의 대책들의 실시를 요구한다。 특히 다수확 작물 면적의 확장은 알곡 증산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갖는 실효있는 방법이다。

더우기 농촌에서의 로력 부족을 타개하며 전야 작업에서의 농민들의 로동을 경감시키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야 작업의 기계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방향에서 농업 발전의 제 대책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업의 농업에 대한 지도적 역할이 더욱 제고되여야 한다。 一九五五년 상반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 총화는 농업 기계를 비롯하여 세멘트、목재 등 농업 건설에도 막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일련의 공업 부문들이 자기의 생산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문들의 생산 템포를 더욱 높이며 농업에 충분한 건설 자재와 농기계 및 화학 비료 등을 공급하도록 보장하는 문제는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업의 급속한 발전과 전반적 앙양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의 물질적 및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여기에는 반드시 개인농 경리 형태의 협동 경리에로의 이행——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경험은 농업 생산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개인농 경리 형태보다 협동적 경리 형태가 비할 수 없이 우월하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협동 경리는 토지를 확장하고 알곡의 단위 당 수확고를 현저히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생산 조직을 통하여 목축、양잠 및 공예 작물 등의 생산을 증가시키며 그의 상품성을 계통적으로 제고시킬 풍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후 농업의 전반적 발전에 관한 문제는 농업 협동 경리의 장성 강화에 대한 문제와 분리시켜서는 전연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방면에서 현 시기에 특히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농업 협동 조합에 대한 당 및 국가적 지도를 강화하여 그의 량적 장성에만 치

중하지 말고 그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이미 조직된 조
합들을 조직적、경제적으로 강화하는 문제이다。

우리 농촌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협동 조
합들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일련의 유리한 조건들
이 있다。그러나 또한 협동 경리는 아직 초기인것만큼 거
기에는 적지 않은 난관과 애로들이 있는 것이다。우
리 농촌에서 작년에는 다만 一천여개의 협동 조합이 운
영되였다면 금년에는 벌써 一만 一천여개의 조합이 운
영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급속한 량적 장성과 관련하
여 그의 조직적、경제적 공고화에 대한 문제는 현 시
기에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업 협동 경리에 벌써 전 농가 호수의 반수 가까이
망라되고 있는 오늘 이미 조직된 조합들에 대한 문제
는 우리 나라 농업 생산의 성과와 협동화 운동의 금후
발전을 규정할만한 그러한 문제로 되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협동 경리의 전반적 강화 발전을 위
하여 국가적으로 가능한 제반 물질적 및 기술적 방조
를 주는 동시에 유능한 일꾼들을 양성하여 조합에 배
치하며 관리 일꾼들의 실무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며
조합의 내부 질서와 규률을 강화하고 제반 경제 활동
을 정확하게 조직하기 위한 조직적 지도 대책들과 합
께 광범한 농민 대중들의 정치 사상 수준 제고를 위한
계급 교양 사업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는바 이 모
든 대책은 이미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거대한 사업의 첫 출발이며 시초
일 따름이다。 이미 조직된 조합들 가운데서 그의 절
대 다수는 농산、축산 및 기타 부문에서 높은 생산 성과
를 거두고 있으나 이 반면에 아직 일부 조합들은 개인
농 경리와 동일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우기 일부 조합들에서는 민주주의적 관리 원칙이
보장되지 못하고 생산 및 로력 조직이 불합리하여 막
대한 로력이 랑비되며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이 옳게
준수되지 못하고 조합의 귀중한 공동 재산들이 적지 않
게 손실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 당단체들은 이와 같은 결함과 부족점들
을 퇴치하고 매개 조합들이 그의 자연적 및 경제적 조
건에 적응하여 공동 경리를 각 부문에 걸쳐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보장하며 동시에 협동 경리의 조직 범위
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 *

농촌 경리의 물질적 및 기술적 토대를 계속 강화하
고 농촌 경리를 협동화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농업의 발전을 촉진시키여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함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문제
는 다만 이러한 전제 조건들의 조성만으로써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공업과 농업

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기초하여
근로 대중의 적극적 활동에 의거하는 인민 경제의 계
획화 사업이 정확히 실천되여야 한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농업 협동 경리의 장성과
함께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과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 등의 작용이 확대 심화되여 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 생장적 발전의 길을 통하여
인민 경제 제 부문 간에 균형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쓰딸린 동지가 가르친 바와 같이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 법칙은 사회적 생산
을 정확하게 계획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 뿐으로『이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 법칙을 연구하
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것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을 배우지 않
으면 안되며 이 법칙의 요구를 완전히 반영하는 계획
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된다』(『쏘련에서의 사회주의
의 경제적 제 문제』 조선 로동당 출판사판 一二페지)。

농업 발전의 문제만을 따로 떼여 보더라도 쓰딸린
동지의 이 교시는 그대로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 결정 등에 명백히 지적
되여 있는 바와 같이 농촌 경리에 대한 우리의 지도
사업에는 아직도 관료주의와 형식주의가 존속되고 있
으며 특히 농업 계획화 사업에는 엄중한 주관주의적
및 기계적 경향이 발로되고 있다。 실례로 농촌 경리
기관들은 一九五五년 농촌 경리 발전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파종 면적에는 단시일 내에 복구 개간할 수 없
는 토지들을 적지 않게 포함시켰으며 또 총수확고를 규
정함에 있어서는 제반 영농 조건이 아직 전쟁전 수준
에까지 회복되지 못한 불리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전쟁전 최고 수확년도인 一九四八년에 비하여
一一七·八%로 장성시킬 것을 예견하는 등 심중한 주
관주의적 과오를 범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업과 달라
서 농업은 자연적 제 조건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사실
——즉 토양、기후、가축의 생리적 특성 등과 같은 제
요인이 농업 생산에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
실이 충분히 예견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각 지방의
자연적인 기후 풍토 조건과 경제적 조건을 옳게 타산
함이 없이 생산 과제를 기계적으로 할당하며 또 혹은
이러 저러한 농업 기술과 영농 방법을 일률적으로 적
용하는 사실 등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 모든
것은 농업 협동 조합들과 농민들의 창발성을 제약하고
농업 생산의 풍부한 가능성과 예비들을 충분히 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농업
에 대한 계획적 지도、특수적으로는 농산 계획 작성 사
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현 시기에 특히 중요
한 의의를 가진다。

농촌 지도 일꾼들이 동원적이며 현실적인 농산 계획
을 작성하며 농촌 경리를 정확히 지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들에 대하여 리, 부락 및 농업 협동 조합들에 이르기까지 그의 자연적 및 경제적 조건들을 깊이 연구하며 농촌 경리 지식을 소유하고 농업 협동 경리의 관리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체득하여야 한다。 농촌 경리의 물질적 및 기술적 토대가 날로 강화되고 농업 협동 경리들이 급속히 장성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금후 농업 발전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 고리의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 계획의 작성 및 농촌 경리 지도 사업에서 나타나는 온갖 결함과 부족점들을 시급히 퇴치하며 농촌에서의 당 조직 정치 사업을 일층 강화하여 계획 실천을 위한 투쟁에 수백만 근로 대중을 더욱 힘차게 궐기시키는 것은 농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되는 것이다。

당 선전에 대한 당 단체의 지도

림 봉

우리 당의 위력과 불패성의 원천은 그가 자기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또 이것으로써 전체 간부들과 당원들을 무장시키고 있는 데 있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은 현재를 정확히 인식하며 미래를 예견하도록 당을 방조하여 주며 당원들에게 사회 발전 법칙과 정치 투쟁에 대한 혁명적 지식을 부여하며 당의 정책을 명확히 리해하도록 방조하며 당이 제기한 과업의 실천에로 그들을 고무 동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언제나 간부들과 전체 당원들에게 그가 어떠한 부문에서 사업하든지 례외 없이 모두가 자기의 사상—정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부단히 소유할 것을 당적 의무로서 부담시키고 있다。

특히 현 계단에 있어서 당 앞에 나선 혁명의 제 임무는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적 계급 교양을 가일층 강화하며 당 및 국가 기관의 지도 일군들과 매개 당원들의 사상—정치적 단련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증대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는 현 계단에 있어서 당 앞에 나선 사상 사업의 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사상—교양 사업의 제 분야에 대한 당 기관들과 당 단체들의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며 당 사상 사업을 과소 평가하는 옳지 못한 일체 경향들을 비판 근절하며 간부들과 당원 대중 속에서의 맑스—레닌주의 계급 교양 사업을 당 단체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인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후 당 단체들에서의 당 선전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당 단체들은 당 교양 사업의 지도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였는바 당 교양의 사상—정치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당 선전의 조직과 규모와 수준은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가 제시한 과업의 수준보다

뒤떨어지고 있으며 당 단체들의 당 선전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존재한 일련의 결함들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당 교양망들에서의 학습——우선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 연구 사업에서 적지 않은 결함들이 발생되고 있다。

일부 당 단체들의 문헌 연구 그루빠들에서는 문헌의 기본 내용과 당 정책의 기본 문제들과는 리탈하여 당 선전을 진행하는 일이 가끔 나타나고 있다。 당 단체의 지도와 통제 밖에 서 있는 일부 선전원들은 문헌의 내용을 심중하게 취급하지 않으며 이를 외곡、비속화하여 당원들에게 해설하는 참을 수 없는 현상들까지 발로시키고 있다。

당 선전은 그가 전투적이며 또 그가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방법으로부터의 추호의 리탈과 외곡도 용허하지 않음으로써 위력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은 언제나 당원들에게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개개의 공식이나、문구나、글 줄들을 외우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세계를 개혁하는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리론과 방법의 본질을 깊이 습득할 것을 요구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의 고유한 특성은 리론과 실천의 유기적인 통일이며 그것은 추상적인 것、독경적인 것、주관주의적인 것、문자에 매달리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당 선전 사업의 성과는 당이 제기한 임무 실행을 그가 어떻게 방조하였는가에 의해서 규정하게 된다。

그런데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 연구 그루빠들에서 일부 선전원들은 문헌 내용을 현실과 당 단체 및 당원들의 실천적 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당원들에게 해설하지 않으며 그들로 하여금 당 정책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고 당 정책의 실천을 위한 투쟁에서 불요불굴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옳게 방조하지 못하고 있다。 류사한 결함들이 쎄미나르、꼰쑬따찌야 및 강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선전원들은 문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충분히 분석 해설하며 론증할 대신에 문헌의 글 줄을 단순히 랑독 소개하는 데 흔히 그치고 있다。 이런 선전원들은 당원들이 문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깊이 리해하며 혁명적 리론과 사상 그리고 그 본질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보다 오히려 개개의 문구와 공식、수자들을 기억케 하거나 암기시키는 데 더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일부 문헌 연구 그루빠들에서는 당 학습을 현실 및 실천적 과업들과 결부시킨다 하여 문헌 연구를 행정적 성격을 가진 『훈시』로서 또는 당원들의 사업상 결함들을 비판 추궁하는 『비판 회의』 형식으로서 대신하는 현상들도 발생시키고 있다。

당 선전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당 단체들의 중요한

임무는 맑스—레닌주의 리론、四월 전원 회의 문헌 학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술한 형식적 독경식 태도를 청산하며 맑스—레닌주의 리론 및 사상에 대한 각종 외곡과 비속화를 용허하지 않도록 선전원들을 지도하는 데 있다。

최근 당 단체들에서는 당 선전에 있어서 유해한 형식주의、주관주의、독경식 태도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당 단체들은 아직도 학습에서 형식주의와 독경식 태도가 어디에서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매개 선전원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알도록 방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당 단체들에서는 당 선전 문제를 토의함에 있어서나 문헌 연구 그루빠 지도자들이 진행한 당 선전의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흔히 주의를 학습의 회수、그의 출석률 그리고 선전원들이 학습 자료에서 리탈하지나 않았는가를 검토하는 데만 돌리고 있다。

학습에서의 사상적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키며 학습이 보다 생기있고 흥미있는 것으로 되게 하며 그것이 실지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당 단체들은 당 선전의 지도에서 상술한 형식주의와 주관주의、독경식 태도들을 근절하여야 하며 정치 리론 학습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 산 모범과 실례들로써 선전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당 선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사상적 내용이다。

당 선전의 고상한 사상성을 제고시킴으로써만 당은 당원、비당원들에게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사상、우리 당과 정부 정책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선전의 사상적 내용과 학습의 질에 대하여 일상적인 주의를 돌리는 것은 당 단체들이 당 교양 사업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 단체들이 당원들의 학습을 지도한다는 것은 수업、강의、꼰쑬따찌야、강연의 사상 리론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선전원들의 사업에 정확한 방향을 주며 방법상 유익한 조언을 제때에 주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와서 도、시、군 당 위원회들은 당 선전에 대한 지도 사업에서 현저한 개선을 가져 오고 있다。 당 단체들의 회의들에서는 당 선전——四월 전원 회의 문헌 연구 그루빠 및 야간 당 학교들에서의 수업、강연、쎄미나르、꼰쑬따찌야 사업의 개선을 위한 문제들이 자주 토의되고 있다。 당 단체 회의들에서의 이러한 문제의 토의와 해당한 결정들의 채택은 당 선전에서의 좋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당 선전에서의 본질적인 결함을 적발하며 그의 퇴치 방도를 옳게 제시함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당 단체들은 당 교양 사업에 대한 문제를 토의함에 있어서 거의 전적으로 통계 수자들을 분

석하는 데만 국한하고 있으며 학습의 실지 내용에는 침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당 단체들에서 실시하는 당 교양 사업에 대한 지도는 흔히 당 학습의 조직적 면에만 주의를 집중하면서 당 선전의 질과 사상적 내용에 대하여서는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않고 있다。

당 선전에 있어서 조직상 문제에 대한 지도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학습의 조직상 문제에 대한 일상적 연구와 지도는 그것이 학습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이며 본질적인 지도와 결합되는 그런 경우에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당 교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은 학습의 진행 회수나 출석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소여의 학습 문제를 어떻게 리해하였는가에、 다시 말하면 학습의 사상—리론적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당 교양의 사상적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를 돌리지 않는 일부 당 단체들이 간혹 실시하는 당 교양 사업 문제에 대한 지도 검열 사업에서는 아직도 규격화된『검열 요강』에 의하여 교양망의 수와 그의 청강자 구성、 출석률、 학습의 중단의 유무、 학습 장소의 보장 정형、 강연과 쎄미나르의 진행 회수와 참가자 수、 선전원들의 강의 원고와 청강자들의 필기장의 유무 등등에 관한 것을 조사하며 그 비률을 산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당 교양 사업에 대한 이와 같은 피상적인 지도 검열 방법은 당 선전에서 본질적인 결함들을 제때에 발견하여 낼 수도 없으며 그의 시정 방책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도 줄 수 없으며 따라서 당 학습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도움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당 선전의 내용、 당 교양망에서의 수업의 사상적 내용에 대한 지도는 이것이 계획적으로、 일상적인 사업으로 실시되며 학습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조직 진행되는 그런 경우에만이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당 단체들이 『시찰』로써 당 선전의 지도를 대신한다면 이러한 경우에 당 단체들은 당 학습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개별적 결함만을 끄집어 내게 되며 이러한 토대 우에서 학습의 사상 수준에 관한 결론을 지으려고 시도하게 되는만큼 당원들의 학습을 본질적으로 개선할 데 대하여 도움을 주며 또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오직 당 교양 사업에 대한 깊은 료해 즉 당 선전의 방향과 취급되는 학습 문제의 기본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당 지도 일꾼들이 학습 내용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깊이 침투하는 그런 때에라야만 학습에서의 우수한 긍정적 경험과 본질적인 결함들을 능히 판단하여 낼 수 있게 되며 당 단체들은 선전원들에게 실제적인 방조를 줄 수 있게 되며 당 선전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제 방책을 찾아 낼 수 있는 것이다。

당 단체들이 당 교양 사업에서 현존하는 결함들을 퇴치하고 학습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선전원들의 학습 지도 방법을 개선하도록 일상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지금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아직도 필기 전달식、 일문 일답식、 랑독식 학습 지도 방법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경험은 이와 같은 학습 지도 방법이 당 학습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하였다。

당 단체들은 당 선전에서 유해한 상술한 편향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학습의 기본 방법으로 되는 해설과 담화 및 토론의 방법을 능숙하게 적용하도록 매개 선전원들을 지도 방조하여야 한다。 매개 선전원들은 교재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필기만 시키거나 랑독만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교재의 기본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리고 당원들이 리해할 때까지 꾸준히 해설하여 주며 추상적인 개념으로서나 빈 말로써가 아니라 당원들에게 가장 가깝고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의 구체적인 실례들로써 설명하여야 하며 그들의 과업들을 이에 옳게 결부시켜야 한다。 그리고 해설은 될수록 실효 있는 자료들——문예 작품들、 지방 자료들로써 언제나 흥미 있고 생생한 것으로 되도록 보충되여야 한다。

학습에서 진행되는 담화와 토론은 설정된 문제에 대하여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도록 지도되여야 하며 일부 당원들에게만 담화와 토론을 편중시키는 것은 극히 유해하다。

담화와 토론의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당원들이 교재의 내용을 심오하게 파악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사상 행동을 심각히 검토 비판하고 새로운 결의를 가지며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결함을 폭로하고 사업 개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찾아 내도록 방조하는 데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 선전에 대한 지도는 당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당 선전은 우리 사업의 개선을 위한 예리하고도 실효 있는 무기이다。 그런 것만큼 당 선전 사업을 당 단체들 앞에 제기되여 있는 다른 그 어떠한 과업들과도 분리시켜서 진행할 수 없다。 당 선전은 항상 당 앞에 제기된 정치 경제적 과업들과 결부되여 진행되여야 한다。

그러나 정치 사업은 경제 사업과 분리될 수 없다고 말로서는 강조하면서도 실지 행동에 있어서는 당 선전 사업을 일상적인 경제 건설 사업과 결부시키지 않으며 리론과 실천을 분리시키며 당 선전 사업을 선전 일꾼들에게만 전적으로 일임하여 버리고 돌보지 않는 그러한 당 단체와 지도 일꾼들이 아직도 있다。 이러한 당 단체와 지도 일꾼들은 당 선전 문제를 항상 부차시함으로써 당원들의 사상—정치적 장성에 대하여서는 배려하지 않는다。

당 사상 사업을 부차시하며 과소 평가하는 옳지 못한 현상은 자기의 정치 리론적 준비를 높일 데 대하여 노력하지 않으며 자기의 지식을 부단히 보충할 데 대하여 망각하고 있는 그런 당 단체 지도 일군들에게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실지 경험은 간부들이 그가 어떠한 부문에서 사업하든지 그가 맑스—레닌주의의 심오한 지식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유능한 지도 일군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실지에 있어서 자기의 사상 정치 교양에 대하여 태공하며 사상 사업을 과소 평가하는 일부 당 단체 지도 일군들은 점차로 보잘 것 없는 실무주의자로 전락되거나 정치적 활동가의 면모를 상실하게 되여 결국에는 당과 국가에 손해를 주는 결과들을 산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는、당 사상 사업의 의의를 망각하고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적 교양에 대하여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일군들의 태도는 맑스—레닌주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엄격히 지적하였다。

당 단체들과 그의 지도 일군들의 중요한 과업은 당 선전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들을 결정적으로 청산하며 당 선전 사업에 대한 지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을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데 있다。 만약 당 단체들과 그 지도 일군들이 당원들의 사상—정치 교양 사업 문제를 항상 자기 사업의 전면에 내세우고 그를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또 당원들의 학습 문제를 지도 일군들 자신이 심각히 연구하고 취급하게 된다면 당 선전 사업은 확실히 개선 강화될 것이다。

당 내에서 계급적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하며 당 교양 사업에서 형식주의적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퇴치하기 위하여서는 당 및 국가 기관의 지도적 간부들의 맑스—레닌주의적 정치 학습에 대한 지도를 개선 강화하여야 한다。 간부들의 사상—정치 리론 수준의 제고는 당 앞에 제기된 혁명적 임무의 정확한 실행을 보장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당 선전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제고하며 당 교양에 대한 그들의 지도 수준도 높일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지도적 간부들의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학습에 대한 당 단체들의 지도와 방조는 일반적으로는 우리 사업의 개선에、특수적으로는 당 선전의 개선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한다。

그러나 지금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간부들의 정치 리론 학습에 대한 지도를 단지 그들을 당 문헌 연구 그루빠와 강연에 망라시키는 것으로써 대신하고 있으며 간부들의 정치 리론 학습에 대한 개별적 지도 사업——리론 담화、꼰쑬따찌야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며 그들의 학습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지도 감독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당 단체들의 일상적인 지도와 통제를 받지 않는 일부 간부들은 자기의 정치 리론 수

준을 부단히 제고할 데 대한 당적 의무를 망각하고 사실상 학습하지 않고 있으며 또 학습한다 하여도 매우 형식적으로 학습하고 있다。 이러한 간부들은 한 두번의 강연과 강습회에 참가한 것으로써 자기는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 내용에 『정통』한 것처럼 여기면서 문헌 연구 그루빠의 학습에조차 열성적으로 참가하지 않고 있다。

례컨대 화학 공업성을 비롯한 일부 성 기관 간부들은 자기 당 단체의 문헌 연구 그루빠의 학습에조차 잘 참가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일부 기술 일군들은 기술 일군이라는 『리유』에서 자기의 정치 리론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부 간부들은 정치 학습에 대하여 무관심한 나머지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의 사상 리론적 내용을 아직 명백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당 단체들은 간부들의 정치 리론 학습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며 그들의 학습을 그들 자신의 『자각』에만 말길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를 통제하며 그들의 학습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열하여야 한다。 또한 당 단체들은 매개 간부들로 하여금 당원들이 학습하는 일정한 리론 문제들과 당과 정부의 정책 문제、현행 정치 문제들을 가지고 당원들과 인민 대중 앞에 의무적으로 출연하여 강연、보고、해설들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선전에 있어서 간부들의 맑스—레닌주의 학습의 기본 방법은 자습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 단체들은 四월 전원 회의 문헌 연구를 위한 간부들의 학습을 문헌 연구 그루빠 및 강연회에의 참가만으로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간부들은 각자의 준비 정도에 따라 四월 전원 회의 문헌을 맑스—레닌주의 고전들과 김 일성 동지의 제 로작과 밀접히 결부시켜 체계적으로 심오하게 연구하여야 하며 현실 가운데서 즉 실천 활동 가운데서 직접 자료를 취하여 학습을 창조적으로 진행하도록 당 단체들은 요구성을 높이며 지도 방조하여야 한다。

당 단체들의 중요한 임무는 간부들의 정치 리론 학습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조를 주기 위하여 그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응하게 보충 강연、쎄미나르、꼰쑬따찌야 및 담화를 더욱 많이 조직하여 줌으로써 간부들의 정치 리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제고시키는 데 있다。

당 단체들이 당 선전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선전원들과의 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당 선전의 사상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정치 리론적으로 준비되고 당원들에게 당과 정부 정책의 본질을 명확히 리해시킬 줄 알며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동원적、조직적 역할을 밝힐 줄 아는 일군들로 선전원들의 대렬을 강화함이 없이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창조적 연구나 당 학습의 높은 사상성을 보장할 수 없으

며 당원들의 계급적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할 데 대한 당의 과업을 성과있게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 단체들은 당 교양 사업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선전원들의 선발 배치에 대하여 당적 관심을 높여야 하며 그들의 리론적 및 실무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지도 방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 단체들의 선전원들과의 사업에는 아직도 많은 결함들이 존재하고 있다。 종전의 교양망 수보다 四월 전원 회의 문헌 연구 그루빠의 수가 적으며 따라서 선전원들의 구성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조성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 단체들의 문헌 연구 그루빠 지도자 구성은 도리여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황남도의 일부 군 당 위원회 같은데서는 선전원들을 개별적으로 검토 료해함이 없이 다만 명단에 의해서 『비준』한 결과 그들중 적지 않은 수는 문헌 연구를 위한 당원들의 학습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준비 부족한 당원들로 배치되여 있었다。

잘 준비되고 재능과 열성있는 선전원들을 육성하기 위하여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만큼 우선 선전원들을 고착시키며 그들이 부단히 장성하도록 배려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부 당 단체들이 선전원 선발 배치에 대하여 아직도 주의를 미약하게 돌리는 까닭에 선전원들을 상당한 리유없이 빈번히 교체하는 사실이 적지 않다。 평양시 서구역 당 단체들에서만 하여도 최근 약 四개월 간에 각종 리유로써 一〇〇여 명의 선전원들이 교체되였다。

선전원들의 선발 배치에서 상술한 결함이 지속되며 일부 선전원들의 리론적 준비와 지도 수준이 낮은 데서 四월 전원 회의 문헌 연구 사업에서는 여러가지 결함들이 나타나고 있다。

당 선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선전원들의 질적 구성을 현저히 개선하여야 한다。

당 간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당 선전에 참가하며 당 단체들이 선전원들을 고착시켜 자기 사업에 전력하도록 일상적으로 배려하며 선전원들의 후비를 양성하는 데까지 주의를 돌린다면 선전원 대렬은 더욱 확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며 당 학습에 현존하는 결함들을 더욱 속히 퇴치할 수 있을 것이다。

선전원들과의 사업에서의 결함은 당 단체들의 선전원들과의 사업에서의 기본 형태인 선전원 쎄미나르 사업을 과소 평가하고 있는 데서와 이것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시、군당 위원회들에서는 문헌 연구 그루빠 지도자들을 한 두번의 강습에 참가시키는 그것만으로써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당 단체들에서 조직하는 선전원 쎄미나르는 그것조차 선전원들이 작성하여 온 학습안에 대한 검열、 몇몇 선전원들의 학습안의 발표、 술어 해설、 학습 문제에 대한 몇 마디의 지시로써 대

체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선전원 쎄미나르가 이렇게 불만족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당 위원회들은 례하면 주로 쎄미나르의 조직 형식、 참가시킬 인원、 조직할 회수、 장소 등에 관하여서만 관심을 돌리며 쎄미나르 학습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데 대하여서는 응당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있다。

당 단체들이 선전원 쎄미나르 사업을 개선하고 그의 질을 제고하면 할수록 당 교양의 사상 수준은 그만큼 제고된다。 왜냐 하면 선전원들의 준비를 위한 쎄미나르의 수준은 대체로 선전원이 진행하는 당 선전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선전원 쎄미나르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준비된 일꾼들을 쎄미나르 지도에 광범히 인입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쎄미나르 참가자들인 선전원 자신들로 하여금 취급되는 문제들을 미리 충분히 연구하도록 하며 쎄미나르 학습을 보다 더 다양하게 그리고 현실과 보다 밀접하게 련결시킴이 필요하다。 선전원 쎄미나르에서 제강의 기본 내용을 어떻게 당원들에게 해설하며 심오하게 리해시킬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해명되며 당 선전의 방법적 문제들에 대한 가치 있는 경험들이 교환되며 선전원들의 과업들이 명확히 제시된다면 그러한 쎄미나르는 확실히 선전원들에게 유익한 방조로 될 것이다。

당 단체들의 선전원들과의 사업은 이상의 것으로만 그칠 수 없다。 당 단체들은 선전원들의 학습 준비를 일상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리론 문제들과 선전 방법들에 대한 개별적 및 집체적 꼰쑬따찌야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주며 학습 참고 자료와 직관물들을 소개하여 주며 그들에게 선전원으로서의 사업 이외의 과중한 부담을 주지 말도록 함으로써 그가 당 선전에서의 전문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참말로 당 단체들의 당 선전 사업 지도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되고 실지 집행에 옮겨지는 그러한 때에라야만 선전원들과의 사업은 결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당 교양망들에서의 학습의 질과 사상적 수준의 현저한 제고는 보장될 것이다。

당 선전 사업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지도적 당 위원회들이 당 도서실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 도서실 사업의 훌륭한 조직은 간부들과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적 교양에 있어서 당 단체들 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당 중앙 위원회는 당 선전——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 교양에 있어서의 그의 중요한 과업들을 당 도서실에 부과하였는바 당 도서실들은 선전원들과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학습하는 당원들에게 방조를 줄 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결정이 있은 후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증대된 정치 리론 학습에 대한 제 요구에 수응하기 위하여 당

도서실들은 많은 사업을 하게 되였으며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일부 당 도서실 사업은 당 선전의 현실적 요구에 뒤떨어지고 있으며 당 도서실 계획은 실행되지 않은채 남아 있으며 도서실은 서고의 역할 밖에 놓지 못하고 있다。

당 도서실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지도적 당 위원회들과 그의 선전 선동부가 당 도서실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 도서실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 도서실에서 사업할 전임 일군들과 직외 선전원들의 선발과 교양이다。 그러나 일부 도、시、군 당 단체들에서는 오래 동안 도서실 일군들의 사업 수준을 제고할 데 대한 문제가 도외시되고 있었으며 당 도서실 사업에 필요한 직외 선전원들—열성자들을 전혀 망라시키지 않고 있었으며 지어는 당 도서실 주임마저 흔히 다른 사업에 동원시키고 있다。

만약 도 당 위원회들에서 도서실 일군들을 위한 강습 혹은 쎄미나르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여기에서 리론 문제、당 선전 방법 및 당 도서실 사업에 대한 문제들을 취급하며 이런 문제들과 관련된 모든 경험들을 연구하며 일반화하기 위하여 당 도서실 사업의 여려가지 형식과 방법들을 신중히 토의하게 된다면 좋은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만일 당 위원회들이 당 도서실에 배치된 전임 일군들의 힘만으로써 당 도서실의 다양한 사업들을 보장하려고 기도한다면 기필코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당 단체들의 당 도서실 사업에 대한 지도는 당 선전 부문의 다른 사업들과 분리시킬 수 없으며 당 도서실 사업의 성공은 그것이 곧 다른 선전 부문의 사업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 간부들과 전체 당원들의 기본 학습 제강으로 되여 있는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은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우리 혁명 실천의 통일의 산 모범을 뵈여 준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 우리 당 정책의 본질과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 그리고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투쟁 승리의 필연성과 우리 혁명의 명확한 전망으로써 우리 지도 일군들과 당원들을 무장시키며 그들의 계급적 각성을 일층 제고시킬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지어주며 맑스—레닌주의 혁명 리론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학습하여야 하며 이 혁명적 리론과 방법을 우리 당이 제기한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투쟁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어떻게 창조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준다。

당 단체들은 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결정을

지침으로 하여 당 선전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개선함으로써 당 선전에 현존하는 결함을 결정적으로 퇴치하고 이 력사적 문헌의 사상 리론적 내용을 매개 지도 일군들과 전체 당원 대중에게 계속 철저히 침투 소유시켜야 하며 당 선전에 부여된 영예로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당 선전의 수준을 현저히 제고시켜야 한다。

농업 협동 조합에서의 로력일과 그 역할

홍 달 선

오늘 우리 당은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하여 이미 조직된 농업 협동 조합들을 조직—경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강구 실시하고 있다。 그 대책들 중 중요한 것의 하나는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로력일의 역할을 가일층 제고하는 문제이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고정 작업반 제도와 도급제 기준에 의한 로력일의 정확한 평가와 그의 정확한 결산 그리고 그에 의한 분배 사업의 보장은 로력일의 역할 제고와 직접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그것은 로력일의 역할이 제고됨으로써만 매개 조합원들이 영농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토지의 단위당 수확고와 공동 부업 수입을 부단히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력일은 농업 협동 조합 경리에만 고유한 독특한 경제적 범주이다。 이것은 협동 조합 내에서 조성된 인간들 간의 새로운 관계、 조합과 조합원들과의 관계、 조합원들 호상간의 생산 및 분배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서 농업 협동 조합 경리 자체의 경제적 성격을 반영한다。 로력일은 농업 협동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조합의 공동 경리에 지출한 로동을 측정하는 척도로 되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개인 소비로 분배될 조합의 수입 중에서 매개 조합원들이 차지할 분배의 『몫』을 규정하는 척도로도 된다。

농업 협동 조합은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에 속하는 만큼 여기에서는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이 작용하는바 로력일은 바로 이 원칙의 작용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 원칙의 작용의 정확한 반영인 로력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로력일은 농업 협동 조합에서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쏘련에서는 이것이 꼴호즈 운동의 대중적인 실천 행정에서 발생 발전하였으며 꼴호즈 제도

의 빛나는 승리를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로서의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의 작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 창설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에는 국영 경제와 협동 경리의 두 가지 부문이 있는바 그들은 발생 토대와 형성 경로가 다르며 또한 발전 방도도 다르다。 이들 간의 이러한 차이는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들 자체의 경제적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영 경제 부문에 속하는 국영 기업소에서의 로동에 대한 지불은 금전 임금 형태로서 미리 제정된 국가의 로임 폰드에 의하여 개별적 기업소의 규모에서가 아니라 전국적 규모에서 제정되여 개별적 기업소의 수입에서가 아니라 전국적 로임 폰드에서 그가 지불된다。

그러나 농업 협동 조합에서의 조합원들의 로동에 대한 지불은 우선 그것이 임금 형태를 띠지 않으며 또 미리 그의 제정된 정액을 규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로동에 대한 지불은 조합 자체의 규모 내에서 제정되며 그것은 조합의 온갖 수입 즉 현물 및 현금 수입에 의하여 진행된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조합의 집단적、 공동적 소유인 생산 수단과 함께 국가 소유인 생산 수단에 의하여서도 생산이 진행되는바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들은 국가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리행함에 충당되는 부분과 조합 자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총수확물 중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 후 남은 생산물 및 금전 수입 중에서 조합의 공동 폰드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합원들의 개인 소비 폰드로 분배된다。

그런데 농업 협동 조합의 총수입은 그 자체가 일정한 고정량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조합에 귀속되는 공동 폰드의 규모도 일정한 정량을 규정할 수 없는만큼 조합원들의 개인 소비로 충당되는 부분도 일정한 고정액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개 조합원들에게 분배되는 부분은 조합 자체의 수입 규모에 의하여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좌우된다。

농업 협동 조합에서의 생산물 중 매개 조합원들에게 분배될 생산물들은 조합 자체의 것임으로 교환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현물 형태로 분배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분배받는 농산물은 국가 통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에로、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시장에로 류통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 조합에서는 우선 조합원들이 조합의 공동 생산에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을 『몫』으로 규정한 후에 그 로동의 『몫』에 해당하는 분배의 『몫』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몫』은 보장된 정액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몫』의 대소는 조합원들이 공동 경리에 참가한 정도에 의하여 규정되며 『몫』에 대한 분배의 다과는 조합 전체의 수입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 『몫』이 바로 로력일인 것이다.

그런데 조합원의 개인 수입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로력일 수에 의하여 또 한편으로는 一로력일에 대한 현물 및 현금의 지불의 크기, 로력일의 『무게』(값)에 의존한다.

로력일 수를 많이 번다는 것은 우선 매개 조합원들 자체의 로력 여하에 달려 있다. 조합원이 조합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조합에서 제정한 작업 정량을 초과 수행하며 국가 및 조합의 생산 수단을 옳게 또한 생산적으로 리용한다면 그 조합원은 많은 로력일을 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로력일의 『무게』는 조합원 개인의 열성만으로는 규정될 수 없다. 그것은 조합 전체의 사업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협동 조합에서 농산물의 수확성과 가축의 산출성이 높고 생산 부문들이 전면적, 균형적으로 발전되여 조합 공동 경리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제고되면 될수록 로력일의 무게는 증대되는 것이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로력일에 의하여 조합원의 개인 수입이 규정된다고 해서 이것이 조합원 개인의 리익만을 반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 하면 조합원의 개인 수입 증대의 기본 토대가 조합 전체의 번영에 있는만큼 매개 조합원들의 더 많은 로력일의 수득은 조합의 공동 경리를 장성시키며 개인적 리익을 국가적, 조합적 리익에 정당히 련결시키며 조합원들의 자기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을 자극함으로써 그들의 생산 의욕을 제고시키기 때문이다.

로력일의 이 두 면을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리용하는 데서만 농업 협동 조합들을 조직적, 경제적으로 공고화할 수 있는 것이다.

로력일은 로동일과 다르다. 로동일은 로동 시간을 표시할 따름이며 로동의 집약도와 로동의 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로력일은 로동의 량의 다과와 함께 질의 고저도 동시에 표시한다. 그러므로 로력일은 조합에서 진행되는 다종 다양한 매종 작업에 대하여 그것들을 직접 로동 자체의 척도로써 측정할 수 있게 한다. 때문에 로력일 평가는 조합에서의 매종 작업이 一로동일 간에 실시되여야 할 제정된 량에 따라 실시되는바 모든 작업들이 五개의 등급으로 구분되고 一로동일 간의 정량이 제정되고 그에 대한 로력일 수가 〇・五부터 一・五까지로 규정되여 있는 『등급별 작업 정량표』에 의하여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정량이 없든가 또 그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로력일이 자체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오직 정확한 등급별 작업 정량표에 의한 로력일 평가에 있어서만 다양한 구체적 로동이 동일한 로동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동일 척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조합원이 작업 정량을 초과 수행하였다는 것은 그 조합원이 조

합 생산에 그만큼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그러한 조합원은 결국 로력일 수를 많이 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업 정량을 옳게 제정하고 그의 로력일 평가를 정확히 하는 문제는 농업 협동 조합들을 조직 경제적으로 공고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로력일을 통하여 다양한 작업들이 동일한 로동으로, 동일 척도로 측정되고 평가된다는 사실은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경제적으로 평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착취로부터 해방되고 사회화된 생산 수단과 로동 능력을 가진 매개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는 동등하다. 로력일을 통하여 남녀 조합원의 로동이 정당히 평가되고 있다. 녀성 로동에 대한 부당한 과소 평가가 로력일을 통하여 여지없이 분쇄되고 있다. 이것은 오늘 농촌에서 특히 농업 협동 조합 내부 생활에서 녀성의 지위를 현저히 제고시키며 그들의 적극성과 창조적 로력을 고무하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은 형제적 나라들의 농업 협동 조합 운동의 경험들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농업 협동 조합 조직의 첫날부터 로력일의 옳은 리용을 위하여, 로력일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여 왔으며 또 계속 꾸준히 취하고 있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로동 조직을 개선하며 분배 절차를 옳게 수립함으로써 로력일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는 것은 협동 조합을 조직―경제적으로 공고화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농업 협동 조합들에 있어서 로력일의 역할을 계속 제고하는 문제는 농촌 당 단체들과 농촌 지도일꾼들의 농업 협동 조합 지도에서의 당면 과업의 하나이다.

❋ ❋ ❋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로력일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로력일에 대한 현물 및 현금 지불의 부단한 증대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조합의 공동 경리를 장성 발전시킴으로써 농산물 생산을 증대시키고 그의 증대에 대한 조합원들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여 로동 생산성의 부단한 제고를 보장하여야 한다.

로력일의 역할을 제고하고 그를 옳게 리용함으로써 로력일의 무게를 증대시키는 주요 원천은 조합의 공동 경리를 부단히 장성시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농업 협동 조합들은 농산물 생산에서 높은 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의 로동 생산성을 부단히 제고시키는 한편 조합의 생산적 토대를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최근 우리 당이 농촌 경리의 금후 강화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알곡 총생산고와 가축 두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구체적 대책인 경지 면적, 관개 몽리 면적,

하천 제방 보호 면적의 확장、 각종 신규 개간지와 휴한지들의 복구、 다수확 작물 면적의 확장、 각종 선진 영농 방법의 창조적 도입 등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이 과업의 철저한 수행은 조합 생산의 장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로력일의 역할을 가일층 제고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된다。

우리 농업 협동 조합들에는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유리한 조건들과 가능성들이 풍부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협동 조합들에서는 이 조건과 가능성들을 원만히 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합원들 사이에 로력일을 많이 벌려는 열의와 로력일의 무게를 증대시키기 위한 투쟁이 미약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일부 농촌 지도 일군들과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이 로력일의 의의와 역할을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 또 조합원들이 그를 자기의 생산 활동과 밀접히 련결시켜 리해하지 못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오늘 우리 농업 협동 조합들의 물질 기술적 기반이 비교적 공고화되지 못하고 또 농업 생산 조직의 수준이 어린 조건 하에서 협동 경리의 우월성은 주로 협동 로동의 우월성에 의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 조합들에서 소여의 로력을 완전히 리용하는 문제는 제一차적인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협동 조합들에서는 동원된 로력을 완전히 리용하지 못하고 로력을 랑비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계절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조합원들의 년 평균 취득 로력일 수를 저하시키거나 혹은 조합원들 사이에 로력일이 몹시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조합의 공동 경리의 발전을 저해하며 농산물 생산의 증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현물 및 현금 수입을 저하시키며 로력일의 무게를 적게 함으로써 로력일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로동 생산성은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업에서의 로동의 계절성을 사전에 타산하고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토지의 리용률을 높이며 축산、 공예 작물、 소채、 양잠 기타 부업 경리 등을 합리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년간을 통하여 로력을 균등하게 리용하는 문제는 로력일의 역할을 제고함에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로력일의 지불을 증대시키며 그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주요한 예비가 있는 것이다。

로력 원천을 생산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농산 작업 부문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운영하는 문제가 중요한바 이의 옳은 해결은 생산의 정확한 계획화에 의존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농업 생산 계획이 구체적이며 산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조합이 처하여 있는 자연적、 경제적 조건들을 면밀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농작물과 기타 다양한 부업 생산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는 동시에 조합의 공동 경리를 장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로동 생산성의 부단한 제고를 예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협동 조합의 매개 작물별、 부문별로 제정된 조합 전체의 로력일 지출 계획 (로력일 투하 계획)이다。 이 계획은 조합에 부과된 국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적、 농학적 및 축산 수의학적 제 대책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는바 이것은 전체 조합의 공동 경리를 강화하며 조합에서 로력일의 역할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농업 협동 조합들은 로력일의 투하 계획을 통하여 조합에 부과된 국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제 대책을 강구 실시하는 한편 그에 투하할 로동량을 결정한다。 따라서 로력일 투하 계획은 앞으로 조합의 공동 경리의 장성 정도를 규정하며 로력일에 대한 지불(그의 무게)의 장성 정도도 규정한다。 그러므로 조합원들은 로력일의 투하 계획을 통하여 직접 자기들이 투하하는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자기들의 수입이 규정되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정당한 결합의 기초 우에서 조합원들의 개인적 수요의 충족은 조합의 공동 경리의 장성 발전에 의존한다는 것을 리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자기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을 제고하고 자기들의 창발성、 창조적 로력을 발휘하여 증산 운동을 힘차게 전개하게 된다。

로력일 투하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로력일의 투하 실적을 월별、 작물별、 기본 작업별로 항상 대비함으로써 계획 미달성의 원인을 적발하고 계획의 성과적 완수를 보장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부 협동 조합들에서 적지 않은 경우에 투하된 로력일을 계획과 대비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곳에서는 투하 로력일의 투하 실적이 계획의 二〇—三〇%를 초과하는 형편에 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관리 일군들은 어느 작물에서 또 어떤 작업에서 무엇이 예견되지 못하였으며 로력일이 어떻게 랑비되였는가를 알아 내지 못하고 있다。

결과에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로력일의 무게보다 적은 분배를 조합원들에게 주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로력일 수득을 위한 조합원들의 적극성을 저하시키며 조합의 조직적、 경제적 공고화를 저해하는 일부 부정적 경향들을 발로시키고 있다。

로력일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은 로력의 합리적 조직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로력의 옳은 기준화(작업 정량 제정)와 로력일의 옳바른 계산 사업은 로력 조직 개선의 전제 조건이다。 작업반별、 또는 분조별로 조합원 군중을 로력일 투하 계획 작성에 광범히 인입하며 또 그의 집행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로력일 실적에 의하여 계획을 정밀화하는 사업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로력일의 지출을 경제적、 합리적으로 하

게 하며 그의 무게를 크게 할 뿐만 아니라 로력일을 랑비하며 략취하는 일체 현상을 근절하는 투쟁에 나서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합원들은 조합 생산의 경제적 결과가 로력 조직 여하에 많이 의존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로력 조직을 개선하며 로동 생산성을 제고하며 그의 필수적 전제 조건의 하나인 고정 작업반 제도의 확립을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만 조합원들로 하여금 로동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케 하며 그들의 증산 경쟁 운동을 더욱 힘차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로력일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서 로력 조직의 부단한 개선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은 로동 시간을 더욱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하여 정확한 작업 정량의 제정을 요구하게 된다。 협동 조합들에서 작업 정량이 옳게 제정되였다면 매개 조합원들의 작업 정량 완수는 조합의 전체 농산 작업의 적기 수행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된다。 협동 조합에서 진행되는 작업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지출한 로동을 로력일로 평가하는 것은 로력 지불에서의 평균주의를 퇴치할 가능성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로력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그러므로 로력일에 의한 작업 정량의 평가는 조합원들의 로동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 되는 동시에 조합 공동 경리의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는 수단으로도 된다。 따라서 이것은 조합에서 로력 원천의 리용을 통제하며 조합원들에 대한 수입 분배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정량을 옳게 제정하는 문제가 로력일의 역할을 제고함에 있어서 결정적 조건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농업 협동 조합 운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작업 정량을 정당히 제정하며 로력일 평가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지도와 방조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작업 정량의 제정과 그에 의한 로력일 평가 사업에 대한 당적、 국가적 지도는 작업 정량을 제정하여 그에 대한 전국적 유일 평가를 주는 데서 반영되며 또 한편으로는 전체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로력일 평가의 옳바른 적용에 대한 통제와 지도에서 반영되고 있다。 협동 조합에서의 『등급별 작업 정량표』와 관리 일꾼들의 로동 지불 규정 및 로력일 계산 절차의 제정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당과 정부는 국가의 수중에 장악되고 있는 생산 수단 및 기타 수단을 통하여 농업 협동 조합 생산을 지도 방조하고 있는바 농기계 임경소 및 우마 임경소의 역할의 제고는 농업 협동 조합 생산의 기술적 장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조합에서 제정된 작업 정량의 완수를 보장함에 있어서도 결정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 국가가 협동 조합에 대하여 주고 있는 농학적、 축산학적

및 기타 기술적 방조도 국가가 농업 협동 조합의 작업 정량 제정 사업을 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되는 것이다。

농업 협동 조합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작업들을 가장 낮은 것으로부터 가장 높은 것에 이르기까지 五개의 계단으로 구분하고 있는 『등급별 작업 정량표』는 농업 협동 조합의 작업 정량 작성에 대한 국가적 지도의 구체적 표현이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을 五등급으로 구분하고 그들 사이의 로력일 평가의 간격을 어떠한 비률로 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장 낮은 등급의 작업의 一일간 정량과 가장 높은 등급의 작업 정량과의 사이를 로력일 평가에서 어떠한 비률로 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업 정량의 구분은 그 작업을 수행함에 소요되는 조합원들의 기술 수준、 로력의 집약 정도、 그 작업의 복잡성、 시기성 등을 타산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제정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이것은 로력일의 역할을 제고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당과 정부가 농업 협동 조합의 작업 정량 제정 및 그의 실시에 대한 지도 방조를 강화하는 리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작업 정량을 제정함에 있어서 처음에 매 등급 사이의 평가의 간격을 〇・一 로력일로 제정함으로써 가장 낮은 등급의 작업 정량과 최고 등급의 작업 정량에 대한 로력일 평가의 차를 〇・八 로력일과 一・二 로력일 즉 五〇%의 비률로 제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지 생산 행정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로동 생산성의 장성을 추동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우리의 기술 수준이 비교적 낮고 영농 작업에서의 로동의 숙련의 도가 아직 어리다 할지라도 최저 등급의 작업과 최고 등급의 작업 간에는 로력일 평가에 있어서 적어도 수배의 등차를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바 그 하나는 등급의 수를 증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로력일 평가의 간격을 넓히는 그것이다。 우리 당과 정부는 후자를 택하였다。 매 등급 사이의 로력일 평가의 등차를 〇・二五로 넓힘으로써 최저 등급의 작업 정량에 대한 로력일 평가를 〇・五로부터 一・五로 즉 三배의 평가의 등차를 두게 하였다。 이것은 우리 농업 협동 조합들을 조직—경제적으로 공고화하고 로력일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시기 적절한 대책이다。

농업 협동 조합들은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의 지도 하에 새로 제정된 로력일 평가 방법에 의하여 로력일의 역할을 현저히 제고시키고 조합원들의 로동 생산성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고 있다。

작업의 등급을 옳게 구분하고 매 등급 사이의 평가 간격을 정당하게 규정하기 위한 당과 정부의 정확한 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로력일 평가는 일정한 등급으로 구분된 작업의 일정한 량에 대하여 제정되는만큼 그 작업의 정량이 옳게 규정되지 못한다면 로력일의 조직적 역할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등급별 로력일 평가에 대하여 전국적 규모에서 유일적인 지도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매개 협동 조합에서 작업 정량을 정확하게 제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전국적 규모에서 어느 조합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유일적인 작업 정량은 있을 수 없다。

농업 협동 조합에서의 작업 정량——이것은 원래 그 조합이 처하여 있는 자연적 및 경제적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지 않고서는 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개 조합들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여기에서 매개 조합들이 자기의 구체적 실정에 적합한 가장 합리적인 작업 정량을 제정하기 위하여 부단한 로력을 경주하여야 할 필요성과 또 국가 측으로부터의 개별적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작업 정량을 너무 높게 제정한다면 비록 로력일의 무게를 크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조합의 일간 총작업량을 완수치 못하게 함으로써 영농 작업의 적시를 상실케 하며 조합원들이 규약상 의무인 최소한의 로력일 수를 벌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조합의 공동 경리의 공고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는 조합원들의 열성을 고무하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작업 정량이 너무 낮으면 조합원들의 로력에 여유가 생기게 되며 조합원들이 작업 정량을 초과 완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전반적 영농 작업을 적시에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조합의 공동 경리의 총수입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것은 로력일의 무게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생산 의욕을 제고함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

작업 정량이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제정되지 않는다면 협동 조합 내에서 조합원들과 관리 일군들 간의 리해 관계에 약간의 모순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것은 관리 일군들에 대한 로력일 지불이 조합의 규모에 따라 일정한 로력일 수로 제정되여 있는 사정과 관련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관리 일군들이 받는 로력일 수는 조합원들의 로력일 취득과는 달리 매월 일정하다。 따라서 그들의 년간 로력일 취득 총수도 거의 고정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일군들과 조합원들 간의 리해 관계에 있어서 로력의 무게가 크게 되면 될수록 관리 일군들에게는 유리한 것이다。 개인 소비 폰드 총량의 절대적 증

대에 의하여 로력일의 무게가 증대된다면 일반 조합원들과 관리 일군들 간의 리해 관계의 모순은 완화된다。 그러나 일정한 개인 소비 폰드 총량을 분배함에 있어서 량자 간에는 일정한 모순이 존재한다。 즉 조합원들이 벌은 총로력일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 소비 폰드 중에서 관리 일군들에게 분배되는 비률은 저하되며 반대로 조합원들이 벌은 총로력일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개인 소비 폰드 총량 중에서 관리 일군들에게 분배되는 비률이 높아지게 된다。

사실 일반 조합원들의 개인 소비량의 크기는 로력일의 무게에 의하여서도 규정될 수 있으며 로력일의 무게가 적은 경우에는 로력일 수의 증가로도 동일한 량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여 있다。 그러나 관리 일군들에게는 이것이 없다。 그들은 로력일의 무게가 절대적으로 증대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유리하며 로력일의 무게가 절대적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불리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관리 일군들의 로력일에 대한 두 가지 경향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첫째 경향은 관리 일군들이 개인 소비 폰드 총량의 절대적 증대로서 로력일의 무게를 높이려는 성실한 태도이다。 이러한 관리 일군들은 공동 경리를 백방으로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확한 작업 정량을 제정하며 로력일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그의 무게를 증대시키고 조합 생산의 장성을 보장한다。 그리하여 조합의 공동적 리익과 자기들의 개인적 리익를 정당히 결부시킨다。

그러나 둘째 경향은 개인 소비 폰드 총량의 절대적 크기에는 관계 없이 그 폰드 중에서 관리 일군들의 분배 비중을 높이려는 불성실한 태도이다。 이러한 불성실한 관리 일군들은 조합원들이 로력일을 되도록 적게 벌게 하기 위하여 작업 정량을 부당하게 높이며 조합원들의 로력을 효과있게 공동 생산에 인입하지 않음으로써 공동 경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지난 시기에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몇명의 파리 일군들이 수득한 로력일 총수가 전체 조합원들이 벌은 로력일 총수에 비하여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으며 따라서 조합의 개인 소비 폰드의 적지 않은 부분이 몇명의 관리 일군들에게 략취된 실례들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결함을 시급히 퇴치 시정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의 월 평균 로력일 취득 정도에 따라 관리 일군들에게 주는 월 정액의 로력일 외에 보충 로력일을 계산하여 주는 규정을 채택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 조합원들의 로력일 수득의 증대에 따르는 관리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함으로써 작업 정량의 정당한 제정을 보장하며 조합원들의 로력일 취득의 증대를 억제하려는 현상을 근절하고 조합의 공동 경리를 강화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조합을 관리 운영하도록 그들을 고무 추동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동 조합에서 작업 정량을 정당히 제정하며 그것을 로력일로 평가하는 사업이 로력일의 역할을 제고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만큼 매개 농촌 당 단체들과 농촌 지도 일꾼들은 이에 대한 지도、방조와 검열 통제 사업을 계통적으로 조직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 단체들과 농촌 지도 일꾼들은 조합원들의 월 평균 수득 로력일 수가 현저히 적거나 또는 조합원들의 一로동일 평균 수득 로력일이 一〇〇에 도달하지 못하는 협동 조합들에 대하여서는 특히 예리한 눈초리를 돌리여 우선 조합원들의 작업 정량 실천 정향을 상세히 검토하고 관리 일꾼들의 조합 관리 운영 사업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로력일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일체 부정적 현상들을 제때에 적발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농업 협동 조합을 조직적、경제적으로 공고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로력일의 역할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 * *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로동의 척도로서、소비의 척도로서의 로력일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케 하기 위하여서도 조합원들이 조합 생산에 투하한 로동의 량과 실제 그들이 수득한 그의 결과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관리 일꾼들은 우선 조합원들의 로력일 수첩과 로력일 계산장에 그들의 로력 실적을 제때에 기입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공개 발표하는 사업을 조직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매개 조합원들의 로력일 취득 정형을 그라프로 표시하여 공개 게시하게 된다면 로력일의 부당한 지출과 랑비 또는 절취 현상들이 조합원들의 군중적 비판에 의하여 폭로 시정될 수 있으며 로력일 취득에서 락후한 조합원들은 자기의 불명예와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공동 로동에서 분발하게 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은 로력일 평가에서 무원칙한 평균주의에 대하여 견결하게 투쟁하게 되며 자기의 로력일 수첩과 그라프와를 대조하여 계산의 오유 혹은 부정확한 점을 시정케 하며 조합원들의 일로동일 작업량이 평균하여 一로력일에 얼마나 도달하지 못하였는가 혹은 一로력일을 얼마나 초과하였는가를 대비함으로써 작업 정량을 정확히 제정하도록 사업을 개선케 하며 자기들의 로동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욕을 제고하게 된다。

조합원들이 수득한 로력일을 정확히 제때에 기록하는 사업은 로력일이 정당하게 지출되도록 통제하는 사업의 출발점이며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정당히 결부시키는 기초 우에서 조합의 분배 사업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의 하나이다。 조합원들의 수득한 로력일을 정확히 기록하여 그것을 그라프를 통하여 공개

발표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로력일의 의의와 역할을 깊이 인식시키는 것은 협동 조합을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리 일꾼들이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필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 관리 일꾼들은 경험이 없고 실무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구실로 아직도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당 단체들과 농촌 지도 일꾼들은 이러한 조합 관리 일꾼들에 대하여 지도와 방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로력일의 역할을 제고하는 투쟁에로 추동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것은 불순 분자、해독 분자들이 조합에 잠입할 수 있는 간격을 폐쇄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한 대책의 하나인 것이다。

년간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벌은 로력일 수가 정확히 제때에 계산되며 또한 작업반 혹은 분조에 부과된 생산 과제가 타당한 것이라면 또 이러한 때에라야만 로력일은 조합원들이 지출한 로동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로동이 가져온 결과에 대하여서까지도 책임을 지게 하는 통제 수단으로 된다。 조합원들이 지출한 로동이 질적으로 보장되였는가、못되였는가는 로동을 지출한 당시의 실적을 접수할 때에도 판단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의 최종적인 판정은 작물의 수확고에 의해서 확인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반 혹은 분조의 성원들이 작업 수행 당시에 받은 로력일 수는 최종적인 평가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원들의 작업이 질적으로 우수하였는가 혹은 조잡하였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에 따라 이미 평가한 로력일에 대하여 다소의 수정을 가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 문제는 생산 계획을 초과 실행한 작업반원 혹은 분조원에 대하여 보충 로력일을 가산하여 주든가、또는 생산 계획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로력일을 삭감하는 방법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로력일을 가산 혹은 삭감하는 계산의 토대로 되는 것은 그들이 이미 벌은 총로력일 수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이미 벌은 로력일 평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조합원들의 작업이 일시적으로 혹은 외견상으로만 요구를 만족시키고 실제적으로 질을 보장하지 못한 불성실한 태도의 결과에 대한 추궁 수단으로써 로력일의 기능을 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로력일은 조합원들에게 자기들의 작업을 량심적으로 성실하게 수행케 하며 조합의 공동 경리를 공고 발전시키는 방향에로 그들을 교양하며 단련하는 수단으로 된다。 일부 락후한 조합원들 가운데는 작업의 질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곤난한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악용하여 불순한 방법으로써 로력일을 취득하려는 데 급급하고 조합의 공동 경리의 공고화에 대하여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는 현상들이 발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정 작업반이 합리적으로 조직되지 못하였거나 혹은 작업반 분조들에 생산 과제가 정확히 부과되지 못하였을 때에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협동 조합들에서 로력일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만 이러한 현상을 퇴치할 수 있는 것이다。

농업 협동 조합에서 로력일의 랑비、 혹은 절취 현상을 근절하며 조합원들의 로력 지출과 수득 생산물의 정당한 계산은 로력일의 역할을 제고하며 협동 조합을 조직 경제적으로 강화하는 중요 조건의 하나이다。 로력일은 협동 조합에서 로력 조직을 개선하며 조합원의 수입을 분배하는 기초로 되고 있다。 로력일의 역할의 부단한 제고는 조합의 공동 경리를 공고 발전시키며 조합원들의 생활을 유족하게 함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로력일의 역할이 제고되고 로력일의 무게가 증대되면 될수록 조합 내에서 로동 규률이 자각적으로 준수되며 조합원들의 로력일 취득을 위한 적극성이 앙양된다。 때문에 로력일의 조직적 역할을 제고하는 것은 조합의 조직—경제적 공고화를 보장하는 중요한 고리이며 조합이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결정적 조건의 하나로 된다。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로력일에 의하여 작업을 평가하며 수입을 분배하며 지불을 규정하는 동시에 로력일의 절취 현상과의 투쟁을 강화하며 조합 생산에서의 생산 혁신자들을 표창한다。 로력일은 개별적 조합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협동 조합의 전체적 범위에서 로동 원천을 완전히 리용하게 하며 로동 생산성을 제고하며 조합 호상간의 생산적 성과를 대비케 한다。

그러므로 오늘 협동 조합에서 로력일의 역할을 가일층 제고하는 것은 조합의 공동 경리를 장성 발전시키며 조합원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협동경리의 조직—경제적 공고화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수 단의 하나이다。

피폐한 남조선 농업

박 치 영

우리 조국이 해방된 후 미제의 침략 정책에 의하여 국토가 남 북으로 량단된 조건 하에서 남 북 조선의 농촌 경리는 판이하게 다른 두 길을 걷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의 농촌에서는 력사적인 토지 개혁의 결과 농민들은 지주의 착취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여 자유로이 농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오늘에는 농민들이 점차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에로 들어섬으로써 농촌 경리의 더욱 급속한 번영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남조선의 농업은 미제의 식민지 노예화 정책으로 인하여 해방 이후 계속 쇠퇴와 령락의 일로를 밟고 있다。

북반부의 농촌 경리는 오늘 당과 정부의 정확한 농업 정책에 의하여 전쟁에서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급속히 복구 발전되고 있는바 우리 농촌에는 전체 농가 호수의 약 四四%에 해당하는 농민들이 이미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의 길에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우리 농촌에는 농업 협동 조합 이외에도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즉 앞으로 농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농업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주요한 거점으로 되는 국영 농목장、 농기계 임경소 및 우마 임경소들이 있으며 농업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공업적 토대가 구축되고 있으며 소비 조합、 농민 은행、 농업 부업 생산 협동 조합、 국가 수중에 있는 관개 시설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농업의 협동화、 기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을 보다 높은 계단으로 발전시키고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공간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미제의 식민지로 전변되여 있는 남조선의 농업은 미제의 식민지 노예화 정책과 리 승만 매국 역도들의 반동적、 반인민적 농업 정책으로 인하여 그의 발전이 완전히 저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피폐의 도를 심화하고 있으며 남조선 농민들은 점점 더 처참한 빈궁과 압박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미제와 그의 주구 리 승만 역도들은 우리 조국 남반

부를 미제의 식민지로、군사 기지로 전변시키면서 일제가 해방 전에 우리 나라에 남겨 놓은바 남조선 농민들의 빈궁과 세기적 락후성의 근원으로 되는 식민지적、봉건적 착취 관계를 자기들의 침략 정책 수행에 알맞게 개편하면서 이를 보존하는 대책을 취하였다。

조국 해방 전쟁 초기에 남반부 전 지역의 九三%에 해당하는 광대한 해방 지구에서 남반부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세기적 숙망을 달성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정책과 남반부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 참가 하에 실시되였던 력사적인 토지 개혁의 성과를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강압적으로 말살하였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남조선 농민들과 인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방 지구에서 남조선 농민들이 무상으로 분여받았던 토지를 총검으로 강탈하여 반동 지주들에게 다시 돌려 줌으로써 남반부 농민들이 쟁취한 토지 개혁의 성과를 박탈하고 그들을 또 다시 봉건적 착취의 멍에에 얽매여 놓았다。

그러나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정책에 의하여 비록 일시적이나마 땅의 주인으로 되고 그의 혜택을 받아 보았던 남조선 농민들은 농촌에서의 봉건적 착취 관계를 영원히 청산한 조건 하에서 농촌 경리가 급속히 복구 발전되고 농민들의 생활이 급속히 개선 향상되고 있는 북반부의 농업 발전에 더욱 고무되면서 남조선에서도 이와 같은 토지 개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그를 위하여 미제와 리 승만 역도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의 이와 같은 대중적 요구와 투쟁이 격화됨에 따라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그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하여 투옥、고문、테로、학살 등 야만적인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그들의 요구를 말살하기 위한 기만 술책으로써 소위 토지의 유상 구입、유상 분배의『농지 개혁 법안』을 안출하게 되였던 것이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야만적인 탄압과 기만적인 회유 정책을 통하여 남조선 농촌에서의 봉건적 착취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발전의 기본 조건으로 되는 관개 수리 시설 및 농경지의 복구 확장、선진 농기계의 도입、선진 영농 방법의 적용 등 농업의 기본 시설의 확장과 그 기술적 장비의 강화를 억제함으로써 남조선의 농업을 일제 하에서 보다도 더 기술적으로 락후케 하고 있으며 령세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남조선의 농업을 쇠퇴의 일로로 이끌고 있으며 남조선 농민들의 생활을 빈궁과 령락의 구렁으로 몰아넣고 있는바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노예화 정책의 결과이며 농민들에 대한 착취와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자기의 경제적 지반을 강화하기 위한 리 승만 매국 역도들의 반인민적 농업 정책의 결과이다。

오늘 남반부의 산업은 거의 폐쇄되고 로동자들은 혹

심한 노예적 로동과 실업에 강박당하고 있으며 농촌은 황폐화되고 농민들에 대한 지주들의 착취는 더욱 혹심하여지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아직도 침략적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군비 확장에 광분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그들의 농민들에 대한 량곡 수탈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가렴 잡세、강제 징모、물가 등귀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경제적、경제외적 부담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에 의하여 남조선에 조성된 이와 같은 형편은 전체 남반부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남반부의 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한 우리 나라 사회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황폐화한 남조선의 농업에 발전의 길을 열어 주며 기아와 빈궁 속에 시달리고 있는 남조선 농민들을 식민지적、봉건적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미제의 침략 세력과 그의 세력을 부식하며 그의 동맹자로 되고 있는 남반부의 국내 반동 세력을 타도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과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여야 한다。

세계 제패를 몽상하는 미제는 우리 조국 남반부에 상륙한 첫날부터 남반부를 아세아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 기지로、자기들의 식민지로 전변시킬 목적으로 리 승만을 비롯한 국내 반동 세력을 규합하여 식민지적、봉건적 착취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기만적인『농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봉건적 착취 체계에 기초하여 실시된 이『농지 개혁』은 처음부터 철두철미 반인민적인 토지 정책의 표현이였다。 미제의 식민지 노예화 정책의 한 측면으로서 리 승만 도당들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수행된 남조선 『농지 개혁』은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그대로 보존하면서『농지 개혁』이라는 간판 하에 남조선 농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며 그 실에 있어서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농지 략탈을 위하여 조작해낸 토지 매매에 불과한 것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농지 개혁』은 무상 몰수、무상 분배의 원칙에서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청산하고 농촌에서의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방향에서 수행된 것이 아니라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농민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량곡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상 구매、유상 분배의 형식으로 진행되였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남조선 농민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출된 이『농지 개혁』은 처음부터 반동적이며 략탈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자기의 정치적 지주인 지주、예속 자본가들의 경제적 지반을 옹호하는 한편 농민들의 투쟁 의욕을 말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농민들의 념원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토지를 미끼로 하여 농민들로부터 해마다 막대한 현물을 수탈할 목적 밑에 실시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실시된 남조선 「농지 개혁」은 남조선 총경지 면적의 二五·四%에 불과하는 五二만 六천 一四二정보를 유상으로 매상하여 남조선 총 농가 호수의 六八·五%에 해당하는 一백 六九만 三천 六八四호에 유상으로 분배하였는바 이것은 대부분의 토지가 아직도 지주들의 수중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또 농민들에게 유상 분배한 농경지의 농호 당 평균 분배 면적은 〇·三정보 밖에 되지 않는 극히 적은 면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남조선 농촌에서 가장 혹심한 압박과 착취를 받는 二七만 一천 五七八명의 고용 농민들은 영농 능력이 없다는 리유로 이 「농지 개혁」의 대상에서조차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농지 개혁」이 예속 자본가들과 지주들의 경제적 토대를 공고화하고 농민들에 대한 고률 소작 제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리 승만 역도들이 감행한 「농지 개혁」의 결과와 「상환곡」이라는 명목 하에 실시되고 있는 「지가 보상 제도」 그 자체의 본질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남조선의 「농지 개혁」은 농민들에 대한 대량적인 량곡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 있는바 그것은 토지를 유상 분배 받은 농민이 매년 토지 수확고의 三〇——六〇%씩의 현물을 토지 대금으로 五년 간에 걸쳐 상환하면 토지를 완전히 분배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그들의 「농지 개혁」의 지가 상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소위 「농지 개혁」 규정에는 매년 토지 수확고의 三〇——六〇%씩 五년 간에 지가를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六〇%를 훨씬 초과한 七〇——八〇%에 해당하는 「상환곡」을 바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여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상환곡」의 수량이 농작물 실수확고에 기초하여 산출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리 승만 역도들은 농민들의 량곡을 더욱 많이 수탈하기 위하여 실수확고보다 훨씬 높은 예상 수확고에 의하여 「상환곡」의 수량을 정하고 이를 강압적으로 수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평균 〇·三정보의 토지를 「분배」 받은 남조선의 농가들에서 년 수확고의 七〇——八〇%의 「상환곡」을 바치고 나면 한 사람의 식량도 모자라는 형편이다。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금년 二월 二일부 「조선 일보」는 「농지 개혁의 비현실적 조치는 남조선 집권자들이 지주들의 리익을 옹호하여 五년간 평년작의 년 수확

고의 五〇%를 납부케 하였는바 이것은 흉작시에 년 수확고의 七〇——八〇%를 바쳐야 당년의 지가 「상환곡」을 납부한 것으로 된다」고 보도함으로써 남조선 「농지 개혁」의 반동성과 략탈성을 자체 폭로하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경찰 테로 통치의 지주로 되고 있는 지주들은 이와 같이 농민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면서 농민들의 곤난한 처지를 리용하여 략탈적 가격으로써 토지를 략탈 집중하고 있다。

남조선 「정부」는 미제의 식민지 노예화 정책의 수행과 침략적 군비 확장을 위하여 「농지 개혁」에 의하여 유상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것은 예속 자본가들과 지주들에게 농민들의 토지를 략탈하고 그의 집중을 강화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는 것이다。

남조선 「정부」는 지난해에 이미 유상으로 분배되였던 토지들 중 이전 불교 사찰들과 교회의 소유였던 토지를 「문교재단」의 토지 소유권을 부활시킨다는 명목 하에 그를 박탈하여 옛 주인들에게 다시 돌려준 사실은 이를 실증하여 주는 것이다。

리 승만 매국 역도들의 남조선 농민들에 대한 토지 대금 「상환곡」의 과중한 부과와 농민들에 대한 현물 수탈의 강화는 소수 지주들의 토지 수탈 집중을 방조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 「정부」가 축소하여 발표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토지를 유상 분여 받은 농민들의 「상환곡」은 「농지 개혁」 후 四년 간에 그의 「정상확량」의 四一%가 미납 되여 있는바 자난해 一二월말 현재 四五%가 미납으로 되여 있다。 또한 최근 「조선 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신사리에 거주하는 리 면선 농민은 「농지 개혁」이 수행된 후 자기가 분여 받은 땅값도 다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 승만 경찰 통치의 권력에 등을 대고 있는 전 지주 최 점순에게 자기가 분배받았던 토지를 박탈 당하였다。

남조선 「농지 개혁」은 지주들에게 「지가 증권」을 발부하여 줌으로써 이것을 「귀속 재산」을 획득하는 데 투자케 하여 지주들에게 예속 자본가로 전환하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이와 아울러 남조선 「정부」는 매년 「지가 증권」에 대한 막대한 현금을 지불함으로써 지주들에게 자금 원천을 제공하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농민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고리대금업자로、투기업자로 전환시키고 있다。

더우기 「농지 개혁」에 의하여 「토지 대금 상환곡」과 종래의 지세에 해당하는 「토지 수득세」를 비롯한 「정부 량곡 매상」 「수세」 등 각종 형태의 현물 수탈을 감행하고 있는바 이것은 실지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일단 유상 분배한 토지를 재차 수탈하고 봉건적 고률 소작 제도를 유지 강화함으로써 농민들을 채무 농노의 형태로 얽매여 두자는 것이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이와 같은 기만적인 『농지 개혁』의 악독한 결과는 남조선의 지주들과 부농들의 손에 다시금 토지를 집중시키며 농촌에서의 봉건적 착취 관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남조선 농업을 가일층 피폐 령세화하고 남조선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 넣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농산물 수확고의 격감、농민들의 막대한 부채、비인간적 생활 조건、대중적 농촌 리탈 등 참혹한 현상들은 이 『농지 개혁』의 반동적 본질을 폭로하는 명백한 증거로 된다。

금년 一월 三일부 『조선 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 『정부』의 『농림부』가 발표한 축소된 수자에 의하더라도 남조선 농민들의 토지 소유 정형은 五담보 미만의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이 전체 농가 호수의 四五・〇三%、一정보 미만이 三四・四八%、二정보 미만이 一六・二七%、三정보 미만이 四・〇八%、三정보 이상이 〇・一四%로 되여 있다。따라서 이 축소된 수자에 의하더라도 一정보 미만의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령세 농민들이 전체 남조선 농민의 약 八〇%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一년간의 식량을 생산할 수도 없는 극히 적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이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다。최근 남조선의 출판물들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 농가의 매호 당 평균 경작지 면적은 〇・八정보로 격감되고 있으며 농촌 인구의 一五——二〇%는 아직도 지주의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모든 사실들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침략적 노예화 정책의 한 표현으로서 리 승만 역도들에 의하여 수행된 남조선 『농지 개혁』의 반동적、략탈적 본질을 실증하여 주고 있는바 남조선 농민들은 소위 『농지 개혁』에 의하여 명목상으로는 토지의 유상 분배를 받았으나 그러나 그 토지의 대가로서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모두 다 바쳐도 『토지 대금 상환곡』과 『토지 수득세』 기타 가렴 잡세를 감당할 수 없으며 그 우에 각종 잡부금과 고리의 부채로 말미암아 그들은 또 다시 지주에게 토지를 방매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하고 있다。

금년 一월 一五일부 『한국 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작년 一년 동안에만도 남조선 농민들의 토지 방매 건수는 一만 三천 六백 여 건에 달하는바 그 면적은 三、一四六정보에 달하고 있다。그중에서도 곡창 지대인 전남、전북 량도에서 토지 방매가 성행되고 있는바 이 두 도에서만도 작년도에 六、九〇〇 여 건에 二천 여 정보의 토지가 방매되였다。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 토지는 지주들과 투기업자들의 모리의 대상의 하나로 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이 미국의 잉여 상품의 중요한 판매 시장으로、저장 농산물의 소비지로 전변되고 있는 형편하에서 이러한 사정은 도시와 농촌 간의 적대적 모순을

격화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착취를 강화하는 주요 조건의 하나로 되고 있다。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농민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된 『농지 개혁』의 반동성은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고 농업 생산물 수확고가 격감되는 데서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남조선 농업의 경지 면적의 격감、관개 수리 시설의 파괴、관개 몽리 면적의 격감、농촌 경리의 기술적 락후성과 령세성、농기구、축력、비료、농촌 로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농산물 총수확고의 격감과 절량 농가의 격증 등 남조선 농업의 피폐、령락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침략적 식민지 노예화 정책의 소산이며 반동적 『농지 개혁』의 결과이다。

남조선 농민들의 량곡 수탈에만 급급하고 있는 리 승만 도당들의 략탈적 농업 정책에 의하여 남조선의 황폐화된 토지는 계속 그대로 방치되여 있으며 미곡 생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관개 수리 시설은 날이 갈수록 파괴되여 몽리 면적이 격감되고 천수답만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주 국민당』 출신 『국회 의원』 윤 보선까지도 『해방 후 오늘까지의 수리 사업의 실적은 미미하며 기공되였던 몇개의 수리 사업도 경제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의 정치적 배경에 의거하여 자금의 반액은 정부 융자로、나머지 반액은 기채에 의하여 조달할 것이 예견되였는바 융자도 기채도 모두가 여의치 못하여 모두 폐공의 운명에 봉착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상과 같은 제 사실은 곡창으로 알려진 남조선을 해방 후 매년 三——四백만석의 량곡 부족을 당하고 있는 기근 지대로 전변시키고 있는바 一九四六년부터 一九五〇년에 이르기까지의 남조선의 평균 미곡 총수확고는 미제가 남반부를 강점하기 직전의 미곡 평균 수확고의 六八%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농지 개혁』 후 미곡 총수확고는 더욱 격감되고 있다。一九五一년도의 미곡 수확고는 평년작에 비하여 二〇%、一九五二년도에는 五〇%、一九五三년도에는 三〇——四〇%가 감소되여 현재 평균 년 수확고는 더욱 격감되고 있다。

남조선 농업이 이와 같이 피폐 령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그를 복구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 실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농민들에 대한 략탈 정책을 강화하고 농업의 기본 시설과 그의 기술적 장비의 강화를 억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남조선의 농업 생산력을 파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조국 남반부를 미제의 식민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리 승만 역도들의 매국적 정책의 한 측면으로서 남조선 농촌을 미국의 저장 농산물의 소비 시장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실시

하고 있는 반동적、 식민지 노예화 정책의 한 표현인 것이다。

리 승만 역도들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터무니 없는 예상 수확고에 기초하여 『상환곡』『토지수득세』를 징수하고 그외에 량곡 강제 매상 등을 감행함으로써 심한 경우에는 농가의 실수확고의 八〇——九〇%를 수탈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조선 농민들을 참을 수 없는 빈궁과 기아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바 이것은 남조선 농민들을 자기들이 생산한 량곡을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에게 강탈당하고 미국의 저장한 부패 변질한 곡물을 비싼값으로 사먹지 않을수없는곤경에 빠뜨리고있다

사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남조선 농민들로부터 략탈한 쌀 수백만석을 일본으로 실어가고 미국의 부패 변질된 저장 농산물을 대량적으로 남조선에 반입하여 고가로 팔아 먹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경제적 침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경제 원조』라는 미명하에 잉여 농산물을 대량적으로 방출하고 있는바 미국 정부는 금년도에만도 이미 七〇억 딸라에 달하는 잉여 농산물을 구입 저장하고 있다。

미국 대외 활동 본부는 금년 초에 그의 중요한 판로 중의 하나인 남조선에 미국의 잉여 농산물 구입 자금으로서 三五八만 딸라를 할당하였던 것이다。 더우기 미국 정부는 남조선에 주재하고 있는 자기의 대사관을 통하여 원면 一천만딸라、 연초 五백만딸라 도합 一천 五백만딸라의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구매할 것을 남조선『정부』에 통고하였다。 머지 않아 미국의 이 잉여 농산물이 남조선 시장에 들어 오게 된다면 남조선의 연초 생산과 원면 생산은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해방 이후 一〇년 동안에 미국의 이와 같은 저장된 부패 변질한 농산물의 대량적 반입은 남조선의 농업 생산력을 계통적으로 파괴하여 왔으며 남조선을 미국의 잉여 농산물의 소비 시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는바 잡지 『신 천지』의 보도에 의하면 해방 후 매년 미국 잉여 농산물의 수입량은 년 평균 三四〇만석에 달하며 一九五三년도에 남조선에 반입된 미국의 잉여 곡물은 六五〇만석에 달하고 있다。

미제의 침략적 노예화 정책의 한 련쇄로서의 반동적 농업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리 승만 역도들은 군비 확장에 광분하면서 남조선 농민들에 대한 군사적 부담의 증대와 량곡 수탈을 강화하고 있는바 그들은 남조선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일본으로 실어가고 일본으로부터 군수 물자들을 수입하고 있다。

『북진 라발』을 고창하고 있는 리 승만 역도들은 농촌 로력의 부족으로 남조선 농업이 피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청 장년들을 강제 징모하며 군사 훈련、 군수 시설 건립 작업에 대량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강

제로 동원된 이 농민들은 『로무 동원』이란 명목 하에 참호 굴착、 군사 도로 시설 공사 등에서 비인간적인 강제 로동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주들의 착취의 강화로 인한 농민들의 토지의 상실과 정치적인 박해로 인한 농민들의 대량적인 리농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농촌 로력의 부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리 승만 역도들의 농민들에 대한 군사적 강제 징모는 남조선 농업을 파탄시키는 주요 조건의 하나로 되여 있다。

군비 확장에 광분하고 있는 남조선 『정부』는 매년 방대한 군사 예산을 수립하고 그의 집행을 위하여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에 기초한 고률 소작료와 채무 농노적 형태로써 농민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농민들에게 경제적、 경제외적 과중한 부담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통화 팽창에 의한 물가고를 초래함으로써 그들을 채무 노예의 처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금년 一월 八일부 『조선 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一九五三년 五월 현재 남조선 농민들의 매호 당 부채액이 四、〇三六환이였다면 一九五四년 一一월 현재로는 八、九七一환으로 되며 一년 전에 비하여 二배 이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남조선의 고리 부채 총액은 一九五四년도 六월말 현재로 六九억환에 달하고 있다。 농민들의 이와 같은 부채는 『장리변』 혹은 『장리쌀』등의 형태로서 남조선 농촌에서 성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부채의 환상 방법의 하나가 곧 『립맥 선매』、『립도 선매』인 것이다。

二분의 一도 못되는 가격으로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벼포기채로 빼앗기는 『립도 선매』는 남조선 농촌에서 점점 더 성행되고 있는바 一九五四년 七월 四일부 『서울 신문』 보도에 의하면 一九五三년도에만도 그 건수는 三七四、八〇〇건에 달하며 그 금액은 八억 九천여환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보리 파종 직후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농민들의 『립맥 선매』도 커다란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한국 일보』는 『이것도 당면한 호구지책이 없어 하는 수 없이 단행되는 것인만큼 「립맥 선매」를 아무도 막아낼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또 금년 五월 二七일부 『한국 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립맥 선매』와 병행하여 전북도 금제군을 비롯한 남조선 각 농촌들에서는 모판에서 자라고 있는 모를 본답에 이앙도 하기 전에 벌써 『립도 선매』를 하고 있는바 이것은 추수 정조한 후 벼 한 가마니에 二천환이라는 략탈적인 가격으로 선매를 예약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남조선 농민들의 생활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며 또 농민들을 채무 노예로 착취하고 있는 고리대금업자들이 얼마나 악랄한가를 단적으로 말하여 주는 것이다。

농민들의 생활 형편이 이와 같이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자기들의 전쟁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농지 개혁』에 의한 『상환곡』과 『토지 수득세』를 비롯하여 각종 가렴 잡세와『공과금』을 징수하고 있는바 남조선 『정부』는 남조선 농민들에게 실로 직접적 국가 세금의 八五% 이상의 과중한 부담을 걸머지우고 있다。

지난 八월 三일 서울발 『합동 통신』에 의하면 전라북도 순창군에서는 소위 공인된 『잡부금』 四〇여 종 외에 각종 『잡부금』 四〇여 종을 합하여 八〇여 종의 잡부금을 징수하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이와 같은 반인민적인 과세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농민들의 이와 같은 강력한 요구를 반영하여 금년 七월 八일부 『조선 일보』도 『이와 같은 악세는 폐지되여야 한다』고 쓰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 투쟁을 말살 회유하기 위하여 리 승만 도당들은 『토지 수득세』에 대한 『물납세』를 『금납세』로 변경한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전쟁 재도발에 광분하고 있는 리 승만의『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종전대로 물납세를 계속하겠다』는 발언으로써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자기들의 침략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남조선의 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경제외적 부담을 증대시킴으로써 중세기적 착취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식민지적、 봉건적 착취 체계에 기초한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와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략탈 및 경제외적 과중한 부담은 농촌에서의 계급 분화를 촉진시키며 수 많은 농민들을 리농시키고 있다。

금년 一월 一九일부 『조선 일보』에 의하면 남조선 『정부』가 발표한 극히 축소된 수자에 의하더라도 一九五四년도의 리농 호수는 一〇만호에 달하며 그 농민의 수효는 五〇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적지 않은 농민들은 극도의 곤경으로 말미암아 리농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고 있다。 금년 三월 三일부 『조선 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평강군에 거주하는 유 인현 농민은 그를 방문한 동 신문 기자와의 담화에서 『움직일 수도 없어 리농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다 싶이 팔거나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갈래도 나와 어린것도 그렇지만 안해와 큰 딸이 여름에 입던 삼배옷 한겹으로는 움직일 수도 없어 그도 못하고 있습니다。 구호 량곡이라니 다 무엇입니까?』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이 농민이 자기의 암담한 생활 처지를 말함으로써 자기와 동일한 형편에 처하고 있는 남조선 농민들의 비참한 형편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남조선 농촌에서는 『농지 개혁』은 실시되였다고는 하지만 농민들의 생활 형편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에 기초한 농촌의 계급적 모순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남조선의 농촌에는 한편에서는 중농이 령락하여 빈농、고농들이 증대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극소수의 대지주들에게 광대한 토지가 집중되고 부농들이 지주로 장성하는 계급 분화가 촉진되고 있다。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에 기초한 남조선 농촌에서의 이와 같은 농촌 계급 분화는 남조선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마비시키고 확대 재생산이란 고사하고 단순 재생산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농업을 피폐화하고 광범한 근로 농민들을 기아와 빈궁 속에서 허덕이게 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서의 계급적 모순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은 자기들에게 강요된 이러한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은 남조선 전체 인민과 더불어 북반부에서 찬란히 복구 건설되고 있는 인민 경제 건설의 모습을 우려려 보고 있으며 여기에서 자기들의 장래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찾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은 자기들의 생활을 통하여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반인민적、반동적 농업 정책의 본질을 더욱 명백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의 통치 하에서는 자기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남조선 농민들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를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힘차게 나서고 있다。

남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전변시키고 있는 미제의 침략 세력과 그의 동맹자로 되고 있는 국내 반동 세력은 식민지 노예화 정책을 반대하며 농촌에서의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는 남조선 농민들과 전체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야수적인 테로、투옥、고문 학살 등으로써 탄압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반동적 농업 정책을 반대하며 낡은 생산 관계를 옹호하는 로후한 반동 계급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농민들은 전체 인민과 더불어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식민지 노예화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남조선 인민의 이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식민지 경찰 테로 통치 제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남조선 인민을 야수적으로 착취 압박하고 있으며 농민들을 기아와 빈궁으로 몰아 넣으며 민족 산업의 발전을 백방으로 억제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노예화 정책을 강화함에 있어서 조선 인민의 원쑤인 지주、예속 자본가、친일、친미파、민족 반역자 등 반동 세력을 자기의 동맹자로 삼고 있는바 이들은 남조선 농민들을 착취 억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식민지적、봉건적 착취 체계를 공고

화하기 위하여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의 제 요구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봉건적 착취 관계의 지배는 남조선 농민들을 참담한 노예적 생활에서 신음하게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산 의욕을 극도로 저하시키며 농업 생산력을 파괴함으로써 남조선 농업의 기술적 락후성과 령세성의 도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봉건적 착취 관계는 다만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페쇄와 아울러 남조선 전체 사회 발전을 장애하는 중요한 질곡의 하나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락후한 생산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생산 관계를 수립함이 없이는 피페한 남조선의 농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킬 수 없으며 빈궁과 기아 속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농민들을 해방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 과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미제의 침략 세력과 그의 동맹자인 국내 반동 세력의 경찰 테로 통치 제도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 농민들을 해방시켜야 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 앞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완성하며 그의 현실적 담보로 되는 혁명적 민주 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가일층 공고화하며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축성할 기본 임무가 제기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우리 혁명을 더욱 앞으로 전진시켜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가일층 제고하는 것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식민지적、봉건적 착취와 압박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에게 미래의 광명한 전망을 뵈여 주며 그들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는 강력한 물질적 력량으로 된다。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낡은 생산 관계를 계속 유지 강화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 세력과 리 승만 역도들로부터 남조선 농민들을 해방시킴으로써만 남조선의 피폐한 농업을 복구、발전의 길에 들어 서게 할 수 있으며 남조선 농민들을 행복과 문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제一차 五개년 계획에 있어서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공업 발전

아·마끌라꼬브

공산당의 령도 밑에 중국 인민이 다년간에 걸쳐 진행하여 온 외래 제국주의자들과 봉건 반동을 반대한 투쟁은 一九四九년 一○월 전 세계사적 승리로써、중화 인민 공화국의 창건으로써 완수되였다。 중국 경제의 전면적 발전과 그의 민족 문화의 개화와 인민의 물질적 복리의 향상을 위한 광범한 전망이 열려졌다。

중국에는 반봉건적 및 반식민지적 제도에 교체하여 로동 계급이 령도하며 로 농 동맹에 기초한 새로운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수립되였다。

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이전에 외국 자본、전범자들 및 매판 부르죠아지의 수중에 있던 대규모적 산업、은행、대상업 기업소、철도 운수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켰다。 토지 개혁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지주 소유는 청산되고 농민들의 토지 소유제로써 교체되였다。 농촌에서의 봉건적 착취는 근절되였다。 토지에 대한 수천만 중국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은 실현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이 창건된 후 첫 三년 동안에 공업과 농업、운수와 상업이 복구되였으며 재정이 강화되였다。 一九五二년 즉 인민 경제 복구의 마지막 해에 공업 및 농업의 총 생산고는 一九四九년에 비하여 七七·五% 증가되였다。 복구 시기의 말에 거의 모든 기본적 종류의 공업 제품 생산에 있어서 인민 공화국 창건 전의 최고 생산 수준을 릉가하였다。 공업 및 농업의 총생산액에 있어서 현대적 공업 총생산액의 비중은 一九四九년의 一七%로부터 一九五二년에는 二六·七%로 증가되였다。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공고화됨에 따라 경제에서의 국가 쎅또르의 지도적 역할도 장성하였다。 농민 경리와 수공업자들을 협동화하는 데 있어

서 중요한 전진이 이루어졌다。

중국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에 의거하여 국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하며 이 기초 우에서 사회주의의 로선에 따라 경제를 성과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예견한 과도기의 총로선을 작성하였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 정부는 전체 인민을 결속시켰으며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성과를 위한 투쟁에 전체 인민을 인입하였다。 민주 진영 국가들 간의 형제적 친선과 호상 원조는 중국 인민의 성과를 촉진시키고 있다。

一九五四——一九五五년에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一차 및 제二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과 인민 경제 발전 제一차 五개년 계획은 국가 생활에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헌법은 인민 혁명의 승리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였다。 五개년 계획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근로 대중의 장성하는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의 충족을 위한 중국 인민의 앞으로의 투쟁 로선을 규정하였다。 복구 시기에 달성한 중국 인민의 성과는 제一차 五개년 계획에 의한 광범위한 경제 건설에로의 이행을 위한 조건을 준비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은 쏘련의 경험을 따르면서 자국의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길에 들어섰다。 중국에서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이는 우선 선진적 기술로 장비되고 유능한 간부들을 가진 중공업 기업소들의 건설이다。 왜나 하면 대규모적인 현대적 중공업은 사회주의의 건설의 물질적 기초이기 때문이다。

* * *

一九五五년 七월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二차 회의는 장구한 기간을 타산한 대규모적 경제 건설의 첫 계획인 一九五三——一九五七년의 인민 경제 발전 제一차 五개년 계획을 三주간에 걸쳐서 상세히 토의하고 만장 일치로 채택하였다。

과도기에 있어서의 중국 공산당의 총로선——중국 인민과 그의 국가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는 로선에 따라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은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농업 및 수공업 합작사를 조직하는 방법에 의한 농업 및 수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초보적 기반을 창설하며 개인 기업소들의 기본적 부분을 국가 자본주의의 궤도에 이행시키는 방법의 도움을 받아서 개인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기반을 창설하는 것이다。 제一차 五개년 계획에 있어서 주요 력량과 기본 자금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집중된다。 이것은 전 중국의 공업、농업 및 운수의 앙양、국가 방위의 강화를 보장하게 하며 또 인민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 수준의 향상을 보장하게 한다。

五개년 계획 기간에 경제 및 문화 발전에 대한 지출 총액은 계획에 의하여 七六六억 四천만원(새 화페로)

으로 규정되였는바 이는 七억량 이상의 금 또는 二만六천톤 이상의 금(一량——三七·三그람)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제 및 문화 발전에 대한 이와같은 대규모적 자금 지출은 중국 력사에 일찌기 없었다。 상술한 지출액 중에서 절반 이상——四二七억 四천만원이 기본 건설에 투하될 것이며 그중에서 공업에는 二四八억 五천만원 즉 五八·二%가 투하될 것이다。 중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五년 간의 공업에 대한 총투자액의 八八·八%를 이루며 경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一一·二%를 이루고 있다。

五개년 계획 기간에 六九四개의 가장 중요한 공업 단위의 건설과 재건이 예견되였는바 이에 있어서 四五五개 단위의 공사는 반드시 끝나야 된다。 쏘련의 원조에 의하여 건설되는 一五六개소의 기업소들은 공업 건설의 중심으로 된다。 최신식 기술에 의하여 장비된 야금 꼼비나트、석탄 공업 기업소、석유 공업 기업소、유색 금속 공업 기업소、발전소、중형 기계 제작 공장、자동차 공장、뜨락또르 공장、항공기 공장、화학 공장、경공업 및 식료품 공업 기업소들이 건설될 것이다。 최신식 기술에 기초하여 공업、운수 및 농업을 위한 생산 수단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다。

공업 건설、특히 중공업 부문들에서의 건설의 규모에 대하여서는 여러가지 실례로서 뵈여 줄 수 있다。 즉 五개년 계획 기간에 각각 五만킬로왓트 이상의 출력을 가진 一五개소의 화력 발전소들이 건설될 것이며 五六만키로왓트 이상의 출력을 가진 가장 큰 수력 발전소의 하나인 풍만 수력 발전소의 재건이 완성될 것이다。 五개년 계획 말에 황하 연안에서의 대규모적 수력 발전 시설들의 건설이 시작될 것이다。

각각 一백만톤 이상의 계획 능력을 가진 三一개소의 석탄 공업 기업소들을 건설할 것이 예견되였다。 五개년 계획 말에 가서 탄광들과 채탄장들의 생산 능력은 무순 광무국 산하에서는 九三〇만톤、부신 광무국 산하에서는 八四五만톤、개란 광무국 산하에서는 九六八만톤、회남 광무국 산하에서는 六八五만톤에 달할 것이다。 중국 동북에 큰 채탄장들과 많은 지방에 다수의 새로운 큰 탄광들과 보통 탄광들을 건설할 것이 예견되여 있다。

가본 건설 사업이 대규모적으로 진행되는 결과에 석유 채취 및 가공 공업의 생산 능력은 수배로 장성할 것이다。

흑색 금속에 있어서 안산 야금 꼼비나트의 건설 및 완전한 재건과 병행하여 또 두 개의 새로운 현대적 야금 꼼비나트가 무한과 포두에 건설될 것이다。 이 기업소들은 모든 필요한 각종 흑색 금속과 코크스、내화물 각종 코크스 화학 제품을 생산할 것이다。 유색 금속에 있어서는 대규모적 동 제련 공장의 건설、광산 및 선광 공장들의 건설과 확장에 의하여 동、알미늄 생산이 증가될 것이다。 기타 유색 금속——연、아연、탕구스텐、몰

리부텐 등 기업소들의 생산 능력도 증가될 것이다。

제一차 五개년 계획 기간에 건설、재건되는 기업소、또는 설계되는 기업소들의 광물 원료 보장을 위하여 계획에는 대규모적 지질 탐사 탐색 사업을·예견하고 있으며 이에 있어서 낡은 광업 지대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공업 건설 지대에서까지 탐색 탐사 사업을 진행할 것이 예견되여 있다。 화학 공업、소다 생산、류산、초산、인조 비료、합성 고무、유기 염료 생산에서도 일련의 새로운 기업소들의 건설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소들의 재건이 예견되고 있다。

五개년 계획에서는 중공업의 중추인 자국 기계 건조 공업 발전에 특별한 주의가 돌려지고 있다。 기본 건설에 예정된 자금의 약 三八%가 이 부문에 돌려지고 있다。 중국에서 기계 건조 공업은 본질상 새로 창건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중화 인민 공화국이 창건되기 이전에는 중국에 기계 건조 공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一년에 도합 九만대의 화물 자동차를 생산할 두개의 자동차 공장과 큰 뜨락또르 공장이 건설될 것이다。 五개년 계획 기간에 야금 및 광산 시설을 생산할 최신식 기술로 장비된 두 개의 대규모적 중형 기계 공장과 전기 시설품을 생산하는 일련의 기업소들이 조업할 것이다。 중국에서 전기 기계 건조 공장의 건설과 재건이 완성됨과 함께 一만 二천、二만 五천、五만키로왓트의 출력을 가진 발전기와 타빙이 생산될 것이다。

많은 성들에서는 농기계들과 영농 도구들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건설되며 여러 농산 지방에서는 새로운 농기계들의 조립 공장이 설치된다。 五개년 계획 말에 중국 기계 건조 공업은 많은 현대적 금속 절단 기대、큰 수력 타빙、증기 타빙 및 발전기、금속 시설품、압연 시설、화학 공업 시설、광산、탄광、기계 및 시설、자동차、운수 시설、기관차、차량、비행기、방직기들을 생산할 것이다。

중공업에서의 대규모적인 기본 건설과 함께 경공업에서의 수많은 단위들——방직 공장、식료품 공장 및 농업 원료를 가공하는 기타 기업소들의 건설을 전개할 것이 예견되였다。 운수——철도、수상 운수、도로、그리고 또한 판개 및 기타 경제 부문에서도 커다란 량의 건설 사업이 예견되고 있다。

이 거대한 건설 계획의 수행은 중국의 경제적 락후성의 청산을 촉진시킬 것이며 중국 인민 경제의 전모를 개조할 것이다。 중국 인민은 생산력의 거대한 장성을 보장하고 있는 자기의 창조적 로동의 열매를 바라보고 있다。

계획에 의하여 예견된 공업 생산의 장성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수자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공업 총생산(총괄적으로)년평균 증가 속도는 一四·七%로 예견되였다。 一九五七년에 전체 공업의 총생산은 一九五

二년에 비하여 九八·三%장성할 것이다。 현대적(공장、제조소)공업의 생산을 매년 평균 一五·三%증가시킬 것이 예견되였으며 五개년 계획말에 가서 그것은 一九五二년에 비하여 一〇四·一%나 장성할 것이다。 공업 장성의 이와같은 속도는 현재 자본주의 나라들에 있어서 생각할 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중국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제一차 五개년 계획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종류의 중공업 제품들의 생산이 급속한 속도로 장성할 것이다。 즉 一九五七년에 전력 생산은 一五九억 二천만키로왓트시까지 즉 一九五二년에 비하여 二·二배로 증가될 것이 예견되여 있으며 석탄 채굴은 一억 一천三백만톤까지 즉 一九五二년에 비하여 一·八배로、강철 제련은 四백 一二만톤까지 즉一九五二년에 비하여 三·一배로 증가될 것이 예견되여 있다。 장춘시의 제一 자동차 공장의 꼰베아로부터 五개년 계획 년간에 이전에 중국에서 생산되지 못하던 자국제 화물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인민 소비품 생산도 장성할 것이다。 례를 들면 一九五七년에 一억 六천 三七二만필(疋)(一필——三六·五七六메터)의 면직물이 생산될 것인바 이는 一九五二년보다 一·五배 이상·많은 것이다。

주민들의 생산적 및 생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계획에는 중앙 소속 기업소들의 생산 장성과 함께 중국 공업 생산의 총용량에 있어서 계속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 산업 및 수공업 생산의 증가가 예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 정부와 지도적 기관들은 현지에서 물자、자금、인재 보장에 있어서나 또한 생산 조직과 그의 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방 산업과 수공업에 앞으로도 방조를 줄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소들 특히 동북 중국과 동부 중국의 구 공업 지대에서의 현존 기업소들의 능력이 광범히 리용될 것이다。 이 기업소들의 생산 능력의 최대 한도의 리용은 제一차 五개년 계획에 있어서 공업 생산 장성의 급속한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로 될 것이다。 계획에 의하면 一九五二년에 비하여 一九五七년에 있어서의 공업 총생산량의 증가의 약 七〇%는 제一차 五개년 계획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증가량의 나머지 三〇%는 五개년 계획 기간에 건설 또는 재건되는 기업소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 예견되여 있다。 공업 제품 생산에서의 이와 같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와 국들은 공업에서의 현존하는 예비들을 전면적으로 발견하며 이에 기초하여 생산 능력의 리용을 최대한도로 개선하며 건설 및 재건되는 기업소들의 조업 개시를 촉진시켜야 한다。

공업에서 소비품(제二부류)생산에 대한 생산 수단(제一부류)생산의 우선적 장성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산업 총생산에 있어서의 생산 수단 생산액의 비중의 가일층의 제고를 가져 온다。 즉 이 비중은 一九五二년의 三九·七%로부터 一九五七년에는 四五·四%까지 높아진다。 그리고 이는 또한 소비품 생산의 비중을 해당한 정도로 감소시킨다。 즉 이 비중은 一九五二년의 六〇·三%로부터 一九五七년에는 五四·六%로 될 것이다。

五개년 계획 기간에 생산 수단 생산의 총 생산액은 一二六·五% 증가될 것이며 소비 자료를 생산하는 공업 생산은 七九·七% 증가할 것이다。

제一차 五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 공업 생산、 특히 중공업 부문 생산의 장성의 이와같은 속도와 규모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공업 발전의 사회주의적 성격에 대하여서는 五개년 계획에서 예견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 형태의 가일층의 장성과 공고화의 속도가 증명하여 주고 있다。 즉 五개년 계획 기간에 전체 공업이 전반적으로 九八·三% 장성하는 조건 하에서 국영 공업의 총생산액은 一三〇·一% 장성할 것이다。 국영、 합작사영 및 국가 자본주의 공업의 총생산액의 비중은 공업 총생산에 있어서 一九五二년의 六一%로부터 五개년 계획 말에는 八七·八%까지 증가될 것인데 이에 있어서 사자본주의적 공업 생산액의 비중은 一九五二년의 三九%로부터 一九五七년에는 一二·二%로 저하된다。

五개년 계획 기간에 사자본주의적 공업의 기업소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자본주의의 궤도에로 이행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국가와 개인 기업가들이 공동적으로 할당제에 기초하여 기업소의 고정 폰드와 류동 폰드를 투자하며 국가 계획의 기초 우에서 생산을 조직하며 관리하는 공사 합영 기업소들은 국가 자본주의의 최고 형태이다。 국가가 개인 기업소들에게 원료의 가공과 완제품 제조에 대한 주문을 주며 사자본주의적 기업소들이 제조하는 제품들을 계약에 기초하여 국가가 도매 또는 판매하는 것은 중국 공업에서의 국가 자본주의의 중급 형태 및 하급 형태이다。五개년 계획말에 가서 사자본주의적 기업소들은 국가 주문에 의하여 제품의 커다란 부문을 생산할 것이다。

五개년 계획은 지방에 의한 공업의 보다 합리적 배치의 기초를 지어 놓을 것이다。 이것은 기업소들을 원료 원천지와 소비 지역에 접근하게 하며 원거리 운반과 비합리적 운반을 축소시키게 하며 국가의 방위력을 강하게 하며 민족 구역들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시키게 한다。 이 목적으로 제一차 五개년 계획에 건설하기로 예견된 가장 중요한 六九四개의 공업 단위들 중에서 四七二개의 단위는 이전에 공업 발전이 미약하였던 화북、 서북、 화중 및 화남에 배치할 것이 예견되였다。 나머지 二二二개의 단위들은 해변 지대들과 기타 지역에 배치될 것인바 一九五二년에 이 지역들에서 생산되는 공업

제품의 생산고는 전체 중국 공업 총생산액의 七〇% 이상을 이루었다。

흑색 금속에 있어서 두개의 새로운 공업 중심이 창설된다。 즉 화중과 내몽고에 두개의 위력한 현대적 야금 꼼비나트가 건설될 것이다。 석유 공업에 있어서는 서북—감숙성 유민 석유 공업 기업소들과 란주시 기업소들이 석유 채취 및 가공의 기본적 지역으로 될 것이다。 동、 연、 아연 및 기타 기본적 유색 금속들의 생산 중심은 동북으로부터 서북 지방 및 서남 지방、 즉 감숙성、 운남성에 이전될 것이다。

화북、 화중 및 서북 지역에서 자국 기계 건조 공업의 대중심지들이 창설된다。 즉 제一 자동차 공장이 장춘에、 뜨락또르 공장이 료양에、 중형 기계 제조 공장이 태원에 건설된다。 이 지역들에는 대규모적인 현대적 화학 기업소、 방직 공장 및 식료품 공장들이 건설될 것이다。 심양 (봉천)、 상해、 길림、 할빈 및 기타 구 공업 중심지들에는 새로운 중공업 기업소들의 건설 이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소들의 광범위한 재건이 예견되고 있다。 제一차 五개년 계획에서 예견된 중국 공업의 지역적 배치는 국가와 인민의 근본적 리익에 부합된다。

五개년 계획에 의하여 인민의 복리의 가일층의 장성이 예견되여 있다。 五년 동안에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약 四二〇만명이나 증가되며 로동 임금은 평균 三三%나 장성될 것이다。 국가 기업소 및 기관들의 로동자와 사무원들의 로동 보호、 의료 및 생활상 봉사와 그리고 문화 시책에 총계 五〇억원 이상이 지출된다。 로동자 및 사무원들을 위하여 총전평 약 四천 六백만 평방 메터의 합숙이 건설될 것이다。 농민들의 구매 능력은 농산물 생산의 증가와 판매의 증가에 의하여 五개년 계획 기간에 거의 二배로 증가될 것이다。 근로자들에게 각종 방조를 주기 위하여 많은 자금이 지출된다。

인민 민주주의 중국은 쏘련 및 모든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과의 긴밀한 경제적 협조에 의거하면서 기본 건설과 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이와같은 웅대한 규모를 예견할 수 있었다。

특히 쏘련으로부터의 원조는 위대하고 각양하다。 즉 중공업의 가장 중요한 一五六개소의 단위들을 건설함에 있어서 그것들의 설계 기술 문건들을 준비하며 설비들을 공급하며 건설 조립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또 생산을 시작하고 개선함에 있어서 설명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써 주고 있는 원조가 그것이며 또 쏘련이 중화 인민 공화국에 유리한 조건 하에서 제공한 크레디트、 국제 시장에서 보다 더욱 낮은 가격에 의한 기계 및 기타 시설품들의 공급 등이 또한 그것이며 과학、 기술 및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 인재 양성에서 달성한 선진적 경험과 성과를 호상 전달하며

호상 리용하는 방법에 의한 과학—기술 협조에 관한 량국 간에 체결된 협정이 그것이다。

쏘련 정부가 파견한 전문가들은 경제 및 문화의 많은 부문에서 중국에 전면적 원조를 주고 있다。 쏘련 기사들—야금 기사、기계 건조 기사、화학 기사、동력 기사들의 방조 하에 중국에서는 많은 공업 기업소들이 설계、건설 및 재건되고 있으며 새로운 종류의 제품들과 선진적 쏘련의 생산 공학이 소유되고 있다。 쏘련 지질 학자들、석탄 및 석유 채취 전문가들은 유용한 지하 자원의 탐사에 있어서 석탄 채굴、석유 채취 및 가공 조직에 있어서、인재 양성에 있어서 중국 형제들을 방조하여 주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쏘련 정부는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며 핵 물리학 분야에서의 연구 발전을 위한 과학 실험 기지를 창설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 과학 기술적 및 생산적 원조를 제공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기초하여 쏘련 정부는 중화 인민 공화국에 대하여 실천적 제의를 하였다。

파란、체코슬로바키야、루마니야 및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중국에 대하여 커다란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를 주고 있다。 중국과 기타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긴밀한 경제적 련계와 협조가 설정되였다。 중국과 민주 진영의 기타 모든 나라들 간의 광범한 경제적 련계와 호상 원조、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다년간의 경험의 리용은 중국으로 하여금 급속한 속도로 그리고 곤난을 보다 적게 겪으면서 제一차 五개년계획에 의하여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의 길을 따라 전진하게 한다。

五개년 계획의 첫 三년 간의 경험이 뵈여 주는 바와 같이 공업 건설의 웅장한 계획의 실행은 중국 로동 계급에게 전체 인민과 국가 및 사회 단체들에게 영웅적 로력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중국의 과거의 락후성의 잔재인 일련의 난관들을 극복하여야 된다。 중공업이 거의 없었던 낡은 반식민지적 중국으로부터 물려 받은 이 락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인민의 노력이 요구된다。

례를 들면 연료、야금、화학 및 중공업의 기타 몇부문의 발전은 광물 원료 기지에 대한 미약한 연구로 말미암아 곤난하게 되고 있으며 경공업의 장성은 농촌에서의 생산 수준이 낮은 결과 농산 원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저해를 받고 있다。 이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계획에는 지질 탐사 사업의 광범한 전개와 급속한 속도가 예견되고 있으며 또한 공업을 위한 농산 원료 특히 공예 농작물과 유료 작물—면화、연초、황마、양마 및 사탕무、락화생、참깨 등의 생산 증가가 예견되고 있다。

기술 인재들—고등 및 중등 기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부족은 중국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에 있어서 엄중한 난관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낡은 중국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극히 적었다。 즉 중국 자료에 의하면 一九五二년에 중국에는 오직 고등 및 중등 교육을 받은 수백명의 지질학자들과 실제 일꾼들이 있었을 뿐이다。 일본이 항복한 후 안산 야금 꼼비나트에는 오직 七九명의 기사—기술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六九명은 일본인들이였다。 일본 점령 시기에 꼼비나트에서는 二천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중국 사람은 극히 적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창건과 동시에 정부는 고등 및 중등 전문 교육 기관망들의 조직、정리 및 확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충실하며 현대적 과학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사、기수、기능 로동자 및 기타 전문가들의 급속한 양성은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업의 하나이다。

제一차 五개년 계획에 있어서 중국 인민은 새로운 종류의 공업 제품 특히 새 기계 건조 제품의 생산을 소유한다。 이것은 복잡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五개년 계획에는 공업의 기술 수준의 제고、연구 조사 실험 사업의 광범한 전개、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선진적 기술 경험의 리용、전문 과학 연구 기관들의 설치、새로운 제품의 제조、발명、합리적 제안 및 개선을 장려하는 특별한 대책들의 강구、기업소들에 있어서、기업소들 간에 있어서 또 공업 부문 간에 있어서 호상 원조와 협조의 강화를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공업에 있어서의 생산의 장성과 기본 건설 사업의 성과적 실행을 위하여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업들이 제기되였다。 즉 절약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며 행정 관리비의 지출을 축소할 것、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제품의 원가와 건설 가격을 저하시킬 것、독립 채산제를 강화하며 공업에 대한 관리를 개선할 것 등이다。 중국의 공업 발전에서의 상술한 모든 난관은 림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난관들은 극복될 수 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전진 운동의 곤난이기 때문이다。

* * *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수행이 시작된 때로부터 二년반 이상이 지나갔다。 이 짧은 기간에 중국 로동 계급은 공산당의 령도 하에 이미 공업의 앙양을 달성하였다。 공업 생산 및 기본 건설에 대한 국가 계획의 과제들이 해마다 실행되고 있다。

이로써 五개년 계획을 실행 및 초과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 一九五三——一九五四년에 인민 경제에 대한 자본 투하의 총액은 五년 동안의 계획에 의한 총투자액의 三二%에 달하였다。 중앙 공업부들에 의한 공업 건설에 대한 투자는 전년에 비하여 一九五三년에는 二배로 그리고 一九五四년에는 三一%증가되였다。

많은 대규모적 공업 단위들의 건설이 시작되여 계속

되고 있다。 그중에는 용광로、 마르뗀로、 압연 쩨흐、 탄광、 자동차 공장、 조선 공장、 수개의 기계 건조 공장들、 면방직 및 아마 가공 공장、 화학 제약 공장 및 고무 공장이 들어 있다。 중공업에서의 기본 건설 과업의 성과적 실행은 초기의 二년 동안에 석탄、 석유、 야금、 전력 공업의 새로운 현대적 기업소들이 조업을 시작하게 하였다。

쏘련의 원조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들 중에서 一七개의 단위들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건설되였다。 그중에는 안산 야금 꼼비나트에서의 자동화된 용광로、 대규모적 압연 공장、 무순의 하이쵸우 채탄장 및 기타가 포함되여 있다。 五개년 계획의 첫 二년 동안에 새로 건설된 一三六개소의 가장 중요한 공업 단위들이 조업을 시작하였다。 중공업에서의 생산 능력은 현저히 장성하였다。 즉 전력 생산에서는 五三만 키로왓트、 석탄 채굴에서는 一三〇만톤、 강철 생산에서는 四二만 七천톤、 쎄멘트 생산에 있어서는 六五만톤、 자동차 다이야 — 一六만개、 종이 — 四만톤、 사탕은 一만 九천톤이나 증가되였다。

一九五五년에 공업에서의 기본 건설은 더욱 보다 광범한 규모를 띠였다。 건설 사업은 一천 七九개의 가장 중요한 단위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二八七개는 새로운 건설물이다。 금년에 중 남 중국에 새로운 야금 기지 — 무한 야금 꼼비나트 건설이 시작되였다。 쏘련의 원조에 의하여 건설되는 기업소들의 총수효 중에서 一九五五년에 九〇개 이상의 단위들이 건설 중에 있다。

신문『인민 일보』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이 모든 기업소들의 건설은 우리 나라에서의 산업 생산과 기술 수준을 현저히 제고시킬 것이다。 우리는 그때에 가서 강철、 선철、 전력、 유색 금속 제품、 화학 비료에 있어서 인민 경제의 장성하는 수요를 보다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야금 시설、 전기 시설、 광산 시설、 석유 공업 시설、 비행기、 자동차、 뜨락또르 즉 중국이 자기 력사에서 아직 생산해 보지 못한 것들을 생산할 수 있다』。

지난 二년반 동안에 철、 석탄、 석유、 만강 및 석의 새로운 매장층들을 발견하기 위한 지질 탐사 사업이 광범히 전개되였다。 례를 들면 사천성에서는 석유 생산지를 발견하기 위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운남성에서 새로운 석 및 동 생산지들을 발견하기 위한 대중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내몽고 자치 구역에서、 황하 상류에서 三년 이상이나 사업한 중국 지질학자들은 북경 — 포두 철도 부근에 있는 높은 질의 큰 철광층과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코크스탄 매장지를 발견하였다。 다예 지방、 중남 중국、 양자강 연안에서 새로운 철광 생산지가 발견되였다。 안산 지역에서 새로운 풍부한 철광 매장지가 발견되였다。 중국 지질학

자들은 쌰깐—지베트의 준엄한 산악 지대의 조사 사업을 시작하였는바 이곳에서는 철광、 三〇종 이상의 각종 유색 금속 및 희금속들의 매장이 발견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 창건 후 비로소 지질 탐사 사업을 조직하기 위한 이와 같은 광범한 가능성이 생겼다。 중국에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과 같이 지하 매장물 탐사가들의 대부대『공업화 삐오네르들』의 부대는 그들의 영웅적 로동을 쉽게 하여 주는 현대적 로동 도구로 지금 장비되여 있다。

중공업의 발전에 기초하여 경공업도 확대되고 있다。 一九五五년에 경공업 부문에는 지난 해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투하되고 있다。

지난 二년반 동안에 전체적으로 공업 총생산고는 현저히 장성하였다。 一九五四년에 총생산의 증가률은 一九五二년에 비하여 五三・七%에 달하였다。 一九五五년 말에 공업 및 농업의 총생산액에 있어서 현대적 공업 총생산량의 비중은 一九五二년의 二六・七%에 대하여 三三・七%까지 증가될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공업은 소비 자료의 생산의 장성에 비하여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의 조건 하에서 새로운 사회 경제 형태 — 국영 합작사영 및 국가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들의 가일층의 장성의 조건 하에서 발전하였다。 례를 들면 금년에는 一九五二년에 비하여 전체 공업 총생산액에서 생산 수단 생산액의 비중은 三九・七%에 대하여 四五・一%까지 증대될 것이다。

공업 총생산액에 있어서 국영、 합작사영 및 공사 합영 공업 기업소들의 생산액의 비중은 一九五二년의 六一%에 대하여 一九五五년에는 七九%에 달할것이며 사자본주의적 기업소들의 몫은 一九五二년의 三九%에 대하여 二一%에 이를 것이다。

현재 선철、 강철、 많은 유색 금속、 석유 및 석유 제품、 코크스、 류산 및 초산、 석회 소다、 석탄 채굴의 약 九〇%、 쎄멘트 생산、 전기 기계의 약 八〇%、 전력 생산、 면사 생산、 식유、 밀가루 생산의 거의 七〇%가 국영 및 공사 합영 기업소들의 몫으로 되고 있다。

중국 경제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 형태의 공고화에 대하여서는 또한 새로운 경제적 쎅또르로부터의 수입으로써 국가 예산의 세입이 더욱 장성하는 것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즉 一九五四년 예산에 계상된 국영、 합작사영 및 공사 합영 기업소들로부터의 리윤과 세금의 총액은 一九五〇년에 비하여 二배 이상으로 증가되였으며 예산 수입 총액의 六九・一%에 달하였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인민 중국에서의 공업 생산의 커다란 장성은 우선 기업소들의 생산 능력이 보다 잘 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술적 혁신과 선진 작업 방법의 소유를 위한 운동이 광범히 전개되였으며 로동 규률이 강화되고 로동 생산 능률이 장성된 것과 관련되

여 있다。 로동자 및 사무원들 속에서 년간 계획을 실행 및 초과 실행하는 기초 우에서 절약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며 제품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한 로력 경쟁이 새로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고되였다。 一九五四년에 로동자、기사、기술 일군들과 사무원들은 八四만 八천건 이상의 합리화 제안을 제출하였다。 이 제안들 중에서 一〇만 三천건이 생산에 도입되여 국가에 一억 七천 四백만원을 절약하게 하였다。

중공업부는 선진적 경험을 광범히 일반화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일련의 부문별 회의를 소집하였는바 이 회의들에서는 쏘련의 선진적 기술 경험이 전면적으로 소개되였으며 중국 로동자들과 전문가들은 자기 자신들의 창조적 생산 경험을 알게 되고 연구하고 교환할 수 있게 되였다。 一九五四년에 북경에서 조직된 안산 야금 꼼비나트의 기술 혁신자들의 특별 전람회는 많은 공장과 제조소들에、기본 건설장들에 선진적 기술을 도입하는 경험들을 가일층 교환함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화 전국 총공회는 로동 계급의 이 진보적 운동을 지도하였으며 전체 직맹 단체들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백방으로 촉진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기업소의 관리 개선、생산 계획 실행 행정에 대한 통제의 조직 및 광범한 대중적 사업은 중국 공업의 전반적 앙양을 촉진시켰다。

이 모든 대책들은 국영 기업소들에서 五개년 계획의 첫 二년 동안에 로동 생산 능률의 二九%의 장성을 가져왔으며 제품의 질을 개선시켰으며 제품 원가를 九・六% 저하시켰으며 계획외의 절약을 얻게 하였으며 많은 공업 기업소들의 수익성을 증대시켰다。

二년 동안에 국영、합작사영 및 공사 합영 기업소들과 국가 기관들의 로동자 및 사무원들의 수효는 약 二백만명 증가하였으며 로동 임금의 총폰드는 五六% 증대되였으며 평균 로동 임금은 一四% 증대되였다。 농업 및 부업 경리로부터 받는 농민들의 수입은 二년 동안에 七% 증가되였다。

一九五五년에 로동자 및 사무원들의 로임은 평균 또 다시 三・三% 높아질 것이 예견되고 있다。一년 동안에 로동자 및 사무원들은 건평 一천 一백만 평방 메터의 주택을 받는다。

공업 및 기타 경제 부문들의 발전은 중국 인민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 수준의 점차적 제고를 가져왔다。 一九五三——一九五四년에 소매 상품 류통액은 一九五二년에 비하여 四一・七% 증가되였다。 금년에 소매 상업에 있어서 一九五四년보다 더 많은 상품들 즉 六・八%나 더 많은 면직물、一〇・八%더 많은 석탄、二〇% 더 많은 식물성유、六・七% 더 많은 사탕、八・五% 더 많은 메리야스 제품、一一・七% 더 많은 고무신들이 주민들에게 판매될 것이다。

지난 기간의 五개년 계획 실행 과정에 관한 상술한 자료들은 공산당에 의하여 령도되는 중국 인민이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꼼무니쓰트』 一九五五년 一三호에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 간의 경제적 련계의 발전

체코슬로바키야 과학 아까데미야 경제학 연구소
소장 율라지미르 까이글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은 제국주의의 련쇄를 그 가장 약한 고리에서 파렬시켰으며 그 결과 자본주의는 세계 경제의 유일한、전체 포괄적인 체계가 아니게 되였다。 쏘련에는 사회주의 경제 체계가 창설되였는바 그것은 부단히 장성 발전하고 있으며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본주의의 부패를 실증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기초를 뒤흔들고 있다。 자본주의는 전반적 위기의 시기에 들어 섰다。

쏘베트 동맹이 지구상의 유일한 사회주의 나라로 있었을 동안까지는 아직 사회주의적 세계 경제 체계를 운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쏘베트 인민은 쏘련 공산당의 령도 하에 사회주의적 세계 경제 체계의 기초를 닦아 놓았다。 쏘베트 인민은 자기 나라에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였으며 제二차 세계 대전에서 파시즘에 대한 전 세계사적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히틀러 기반으로부터의 중앙 및 동남 구라파 제국 인민들의 해방에 결정적인 방조를 주었다。 해방된 이 나라 인민들은 자기 나라에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혁명적、사회주의적 개혁 실시에 착수할 가능성을 얻었다。

제二차 세계 대전 시기와 그 후에 식민지 및 예속국들에서 일어난 민족 해방 투쟁의 새로운 앙양은 식민지 체계 붕괴의 시초를 가져 왔다。 즉 중국 및 아세아의 기타 수개 나라들이 세계 자본주의 체계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제二차 세계 대전 시기、특히 구라파와 아세아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이 자본주의 체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후부터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제二 단계가 개시되였다。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범위는 가일층 현저하게 축소되였다。 강대한 통일적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되여 자본주의 진영에 대립하게 되였다。 단일한 세

계 시장이 붕괴되고 두개의 병행적인 세계 시장이 형성되였다。 세계 자본주의 체계로부터 떨어져 나와 쏘련과 더불어 사회주의 진영을 형성한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호상 련결되여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은 쏘베트 동맹의 사심없는 형제적 원조와 자기들 호상간의 경제적 협조에 의거하여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하며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건설하는 데 착수하였다。

구라파의 모든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인민 경제를 복구하고 전전 생산 수준에 도달한 이후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는 생산력의 강력한 장성을 가져 왔다。 사회주의의 기초 건설 행정에서 이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적 우클라드가 자본주의적 우클라드를 약화시키면서 급속히 장성하였다。 一九五三년에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이 나라들의 경제에서——농촌 경리를 제외하고——사회주의적 우클라드가 우위적 지위를 차지하고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우세하게 될만큼 추진되였다。 이 나라들의 계급 구성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 났다。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였는가에 대하여 체코슬로바키야의 실례를 가지고 보자。 우선 一九四五년에 실시된 제一 단계의 국유화 이후에 있어서의 체코슬로바키야 경제 구조와 一九四八년에 실시된 제二 단계의 국유화 이후에 있어서의 경제 구조와를 대비하여 본자。

인민 경제 각 부문들에 있어서의 三대 기본 우클라드의 비중 (종업원 수에 따라%) 주一

	년도별	사회주의적 우클라드	자본주의적 우클라드	소상품적 우클라드
공업에서	一九四七	八一・六	一八・〇	〇・四
	一九四八	九六・四	三・五	〇・一
건설에서	一九四七	五・五	九一・八	二・七
	一九四八	八三・〇	一六・二	〇・八
상업에서	一九四七	一五・〇	四八・三	三六・七
	一九四八	四三・八	二四・八	三一・四

국민 소득 형성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우클라드의 비중은 다음과 같이 장성하였다:

년도별	사회주의적 우클라드의 비중 (%로)
一九四八년	六一
一九四九년	七二
一九五〇년	七八
一九五一년	八五
一九五二년	八九
一九五三년	九二

제一차 五개년 계획 말 즉 一九五三년에 있어서 체코슬로바키야에서의 사회주의적 우클라드의 몫은 다음과 같다: 공업에 있어서는 九九·六%、 건설에 있어서는 九九·八%、 운수에 있어서는 一〇〇%、 은행업에 있어서는 一〇〇%、 농촌 경리에 있어서는 四五·四%。

사회 경제 구조에 있어서 다른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도 이와 류사한 혁명적 전변이 있었다。 一九五二년에 있어서 공업 총생산고 중에서 사회주의적 우클라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았다: 파란에서는 약 九九%、 웽그리야에서는 九七%、 루마니야에서는 九五%、 불가리야에서는 九八%、 도매 상업에서의 사회주의적 우클라드의 몫은 구라파의 모든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이 一〇〇%이고 소매 상업에서 차지하는 몫은 파란과 웽그리야는 九二% 이상、 체코슬로바키야와 불가리야는 九九% 이상이다。

이 자료들은 구라파의 모든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적 우클라드가 벌써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에서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뵈여 준다。 사회주의적 쎅또르에서 국민 소득의 기본 부분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불가리야를 제외하고)의 농촌 경리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우클라드가 아직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인민 경제 계획 수행의 결과 벌써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인민 경제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들에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명백히 우세한 두 가지 형태(국가적 형태와 협동 조합적 형태) 이외에 소생산자들의 사적 소유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촌 경리와 수공업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수행됨에 따라 점차 집단적、 사회주의적 소유로 바뀌어지고 있다。

도시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적 요소의 잔재와 농촌에 있어서의 꿀라크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들은 전면적으로 제한 구축되고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에 있어서는 공업 총생산고 중에서 국가적 쎅또르가 차지하는 몫은 一九四九년의 三四%로부터 一九五三년에는 五三%로 장성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 공업에서는 아직 사자본주의적 쎅또르가 현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본상 경공업 부문들에서) 그러나 공업 생산에 있어서의 이 쎅또르의 몫은 해마다 저하되고 있다。 만일 一九四九년에는 사자본주의적 쎅또르가 국내 공업 총생산고의 六三·三%를 차지하였다면 一九五四년 말에는 이 쎅또르의 비중이 二四·九%로 축소되였다。 최근 수년 동안에 중요 공업 부문들에서는 더욱 더 많은 수의 사자본주의적 기업소들이 각종 형태의 국가 자본주의적 기업소로 개

조되여 가고 있다。 공업 총생산고 중에서 국영 공업、 협동 조합 공업 및 공사(公私) 합영 공업 생산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一九五二년에는 六一%였던 것이 一九五四년에 와서는 七五·一%에 달하였다。 도매 상업에 있어서의 국가적 및 협동 조합적 쎅또르의 몫은 八九%에 달하였으며 소매 상업에 있어서는 五八%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사회주의적 공업화가 실현되고 국내 농촌 경리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실시됨에 따라 (一九五五년 초에 중국에는 벌써 六〇만 이상의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이 있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 경제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우클라드의 비중은 부단히 장성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경제 발전은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에 의하여 규정되는바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 있어서는 이 법칙의 작용 범위가 아직 제한되여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장성됨에 따라 부단히 확대되여 가고 있다。 그 결과 사회주의 진영의 매개 나라들에서는 생산력이 급속한 템포로 발전하고 있다。 쏘련에서는 금년도에 공업 생산고가 一九五〇년도에 비하여 약 八〇% 증대되게 될 것이며 전전 즉 一九四〇년에 비해서는 三배 이상으로 증대되게 될 것이다。

중국에서는 一九五四년에 현대 공업 총생산고가 一九四九년에 비하여 四배 이상으로 장성하였다。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 있어서의 공업 생산의 커다란 장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립증하여 준다(一九四八년을 一〇〇으로 함):

년도	一九四九	一九五〇	一九五一	一九五二	一九五三
파란	一二三	一六一	二〇〇	二四〇	二八二
체코슬로바키야	一一六	一三七	一五六	一八五	二〇二
웽그리야	一四二	一九二	二五〇	三〇九	三四五
루마니야	一四〇	一九二	二四七	三〇四	三四八
불가리야	一三〇	一六〇	一九一	二二五	二五二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一二一	一五二	一八六	二一六	二四三

一九五四년도 알바니야 인민 공화국 공업 총생산고는 전전 수준에 비하여 一一배 이상으로 장성하였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에서의 생산의 부단한 장성은 세계 민주주의 시장의 범위를 해마다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一九五二년도 대외 무역고는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파란에 있어서는 六배로、 체코슬로바키야에 있어서는 三·五배로、 웽그리야에 있어서는 一三배로、 루마니야에 있어서는 一四·五배로、 불가리야에 있어서는 二·九배로 각각 장성하였으며 독일 민주

주의 공화국에 있어서는 一九四七년에 비하여 一七・七배로 장성하였다。 一九五三년도 알바니야 대외 무역고는 一九四九년에 비하여 약 二배로 증대하였다。 수입 및 수출고가 절대적으로 장성하는 조건 하에서 매개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총 대외 무역고 중에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의 무역고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대외 무역고 중에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의 무역고가 차지하는 비중

년도	一九四八	一九四九	一九五〇	一九五一	一九五二	一九五三
중국			二六	六一	七二	七五・〇
파란	四一	四三	五九	五八	六七	七〇・四
체코슬로바키야	三二	四六	五五	六一	七一	七八・四
웽그리야	三四	四六	六一	六七	七一	七七・〇
루마니야	七一	八二	八三	八〇	八五	八四・四
불가리야	七八	八二	八九	九二	八九	八五・七

一九五三년에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은 쏘련 대외 무역고의 八〇% 이상을 차지하였다。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그리고 후에는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사회주의적 우클라드가 장성하여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지배의 범위가 확대된 기초 우에서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 간의 상업적 련계가 공고화됨과 동시에 사회주의의 진영 나라들 간에는 더 한층 밀접한 경제적 접근 과정이 진행되였다。

사회주의의 진영 나라들 간의 경제적 련계는 자본주의의 진영 나라들 간의 경제적 련계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사회주의의 진영 나라들의 호상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적 팽창에 대한 지향이나、 부등가 교환이나 경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 존재할 수도 없다。 여기에는 보다 강한 국가나 또는 경제적으로 보다 발전한 국가에 의한 약소 국가의 착취나 노예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제 인민의 민족적 및 국가적 독립에 대한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의 진영 나라들 간의 경제적 호상 관계는 그 경제적 및 기술적 발전 수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 모두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의 건설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정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진영 나라들 간의 경제적 관계는 사회주의의 경제 법칙들에 의거하고 있으며 그 법칙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 경제적 련계의 목적은 높은 기술의 토대 우에서의 사회주의적 생산의 부단한 장성 및 완성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사회주의의 진영의 개별적 나라들의 인민 경제를 호상 보충하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호상 원조는 비단 수입 수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원조는 과학—기술적 협조와 생산—기술적 경험의 교환에 의해서와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의 일부 나라들이 다른 일부 나라들에게 주는 직접적、 생산적 원조에 의해서도 실현된다。

쏘련은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 전면적인 원조를 주고 있다。 쏘련은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각종 기계와 생산 설비、 중요 종류의 원료를 공급하며 기술 문건을 제공하며 또 지질 탐사 및 기업소 건설에 직접 참가하는 데 이르기까지의 각종 기술적 방조를 줌으로써 이 나라들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실시를 방조하고 있다。 인민 민주주의의 나라들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있어서는 이 나라들이 리용하고 있는 쏘베트 생산 혁신자들의 경험과 쏘베트 과학 및 기술의 제 성과가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다。 쏘련이 일부 나라들에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는 크레디트와 그리고 곡물 및 기타 식량 상품의 대량 공급은 인민 민주주의의 나라들의 사회주의의 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쏘련은 국제 무대에서 인민 민주주의의 나라들의 독립과 그 리익을 수호하여 주며 또 세계 평화의 유지 공고화를 위한 자기의 모든 투쟁으로써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게 안심하고 일하며 사회주의의 건설의 결실들을 리용할 가능성을 보장하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의 진영의 기타 나라들도 서로 원조하며 호상 련계와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례컨대 체코슬로바키야는 전력 설비、 코크스 공장 및 쎄멘트 공장용 설비、 식료품 기업소、 방직 기업소、 제화 기업소 및 화학 기업소용 종합 설비 등을 인민 민주주의의 나라들에 수출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야와 웽그리야、 체코슬로바키야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불가리야와 루마니야 사이에는 전기망을 련결시키며 전력을 호상 공급할 데 관한 쌍무 협정이 체결되여 있다。 사회주의의 진영의 모든 나라들은 더욱 더 광범한 규모에서 과학—기술적 경험을 교환하고 있다。

이 호상 원조가 개별적 인민 민주주의의 나라들의 공업화와 경제적 위력의 장성을 얼마나 촉진하며 동시에 그들의 우호적 협조의 가일층의 심화를 얼마나 촉진하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의 진영의 개별적 나라들 간에 체결되는 통상 조약에 의한 공급 품종들이 부단히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여 준다。

과거에는 농업 생산물、 원료 및 반제품만을 수출하고 있었던 나라들이 국내 공업의 부단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수출용 공업 제품의 품종을 해마다 확대하고 있다。 례컨대 루마니야는 지금 석유 공업용 설비、 전기 모터、 기대、 뜨락또르、 가성 소다와 그리고 쎄멘트 공장、 벽돌 공장 및 기와 공장용 종합 설비를 수출하고 있다。 파란은 해상 수송선 및 해상 영업선、 기관차 및 차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웽그리야는 해상 및 하천용 선박、 기중기—운수 설비 및 기타 종류의 공업 설비를

수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호상 관계 즉 우호적 협조 및 호상 원조의 관계는 사회주의 진영의 매개 개별적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적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완성을 촉진하며 또 이 기초 우에서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부단한 향상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조로 말미암아 이 나라들의 인민들은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을 더욱 더 성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협조의 발전 자체가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제 요구에 적응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이 협조는 거대한 사회주의 진영 전체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생산의 부단한 장성 및 완성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은 쏘련과 개별적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규모에서 맺어지는 그들 호상간의 경제 관계에서도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범위 내에서는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에 종속되여 있는 기타 경제 법칙들도 또한 작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대외 경제 관계 령역에서의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의 작용은 이 국가들 내부에 있어서의 그것들의 작용과는 구별된다。 매개 개별적 나라 내부에 있어서는 모든 경제 부문들이 통일적 국가 계획의 기초 우에서 발전하며 통일적 지도에 복종한다。 호상간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은 독립적、 자주적 국가로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대외 경제 관계 령역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의 경제 법칙들의 제 요구가 특수한 방식으로 실현된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은 호상 개별적 형태의 경제 협조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는 장기 통상 조약、 지불 협정、 크레디트 제공에 관한 조약、 과학—기술적 협조에 관한 협정 등등이 있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요 종류의 생산물의 생산 계획들을 더욱 더 호상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 진영을 구성하고 있는 매개 개별적 나라의 인민 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계획적 협조를 확대 심화하여야 할 객관적 필연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객관적 필연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매개 나라는 계획 작성시에 개별적 생산 부문의 발전 전망을 알지 못하는 데서 또 그 생산물의 판로와 원자재의 공급을 보장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투자가 비합리적으로 또 비경제적으로 배정되게 될 것인바 이것은 또 생산 장성 템포와 로동 생산 능률 장성 템포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은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을 더욱 더 밀접히 련합시키며 그들의 경제 발전은 더욱 더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규모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의 작용에 의하여 규정되여 가고 있다。

이것은 례컨대 체코슬로바키야의 인민 경제 발전은 쏘련、 파란、 웽그리야、 불가리야 등등의 인민 경제 발전에 의해서도 역시 규정되며 앞으로는 더욱 더 규정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사실들은 쏘련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 토대 우에서 그리고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적 우클라드가 차지하고 있는 우세한 지위의 토대 우에서 사회주의적、 국제적 분업과 전면적 호상 원조의 뉴대로써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나라 인민들을 련결시키고 있는 동일 형의 생산 관계 체계、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 체계로서의 사회주의적 세계 경제 체계가 발생하여 부단히 발전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 * *

사회주의적 세계 경제 체계와 같이 그렇게 광범한 령역에서 작용하는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제 요구의 수행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는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더욱 더 철저한 공동적 리용이다。

인민 민주주의의 나라들이 존재한 그 첫 시기에 있어서는 매개 나라는 아직 다른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인민 경제 계획과의 밀접한 련계 없이 자기의 인민 경제를 계획하였다。 따라서 당시에는 아직 새로 발생한 민주주의적 세계 시장에서 어떤 계획적、 국제적 분업을 광범한 범위에서 조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사회주의적 세계 경제 체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은 그 작용을 전체 사회주의 진영에 미치게 되였다。 이와 동시에 이 광범한 령역에서는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도 그 작용을 확대 심화하여 이 법칙을 더욱 완전히 리용할 조건이 조성되게 되였다。 그러나 일부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인민 경제 계획은 이 가능성을 완전히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마치도 이 나라들이 완전한 자본주의의 포위 하에나 있는 것처럼、 또 그리하여 각각 자체의 힘만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중공업 부문들을 창설하려는 경향이 공업화 행정에서 나타났다。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제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 일부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인민 경제에는 일련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는바 이 불균형은 계획화에 있어서 범한 약간의 착오들로 말미암아 심화되였던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에서 그 작용 범위를 확대한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의 객

관적 법칙의 제 요구는 인민 경제 계획화에 있어서의 결함을 시급히 제거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一九五三년 여름에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 공산당 또는 로동당 중앙 위원회들은 조성된 불균형을 급속히 청산할 필요성을 강조한 일련의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사회주의적 공업화 정책、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가일층 부단히 실시하는 기초 우에서 농업 생산의 급속한 앙양과 인민 소비품 생산의 장성을 달성함으로써 조성된 불균형을 청산하도록 할 데 관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이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인민 민주주의 나라 공산당과 로동당들은 온갖 반(反) 맑스주의적、 기회주의적 견해들과 결정적으로 투쟁하였는바 이 견해의 설교자들은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의 기초인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인민 경제에서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고 불균형을 청산할 데 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노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의 협조 및 호상 원조 관계의 가일층의 공고화이며 이 진영 나라들 간의 국제적 분업의 보다 효과적인 리용이며 인민 경제 계획들의 더욱 밀접한 결합 및 조화이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계획적 협조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국제적 분업을 반영한다。 자본주의적、 국제적 분업은 자본주의 나라들의 지배와 식민지 및 예속국들의 경제적 락후성을 고정시킨다。 이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국제적 분업은 그 나라가 경제적 면에서 발전한 나라인가 또는 덜 발전한 나라인가에는 관계 없이 매개 나라의 국가적 자립성을 완전히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의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전반적、 계획적 발전과 이 진영에 참가한 나라들 하나 하나의 전반적、 계획적 발전을 보장한다。

불가리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수행을 위하여 사회주의적、 국제적 분업이 주는 거대한 가능성을 특징지어 웰끄 체르벤꼬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들은 우리 나라에서 중공업의 모든 부문들을 발전시켜야 할 힘에 겨운 과업을 면하게 되였다。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이 그 매개 성원국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지어져 있는 그러한 중공업 부문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자기의 공업화를 계획할 가능성을 주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정확한 사회주의적 분업을 가진、 또 인민 경제 계획들을 조화시킬 실제적 가능성을 가진 거대하고도 강력한 하나의 협동체로서 사회주의 진영을 본다면 불가리야와 같은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가 가지는 다음과 같은 가장 특징적인 특성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이 나라의 공업화는 모든 중공업 부문들의 발전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 의미할 수도 없다는 것、 그

의 공업적 토대는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 공업적 로대의 한 구성 부분으로 되며 또 반드시 되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주二)

웽그리야 근로자당 제三차 대회에서 웽그리야 당 중앙 위원회 제一 비서 마티아쓰 라코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수단으로서의 사회주의적 공업화 정책과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은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의 경제적 협조에 더욱 현저하게 의존한다。 이 협조가 더욱 높은 수준에서 수행되게끔 해 주는 것은 특히 웽그리야 인민 경제 계획과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제국 및 쏘련의 인민 경제 계획과의 조화인바 이것은 국내 경제 자원、 나라의 특수한 민족적 가능성、 생산 설비를 가장 경제적으로 리용하며 유해한 편향을 청산하며 생산 원가를 저하시키며 생산물의 품질을 제고시킬 가능성을 준다』。(주三)

이와 같은 계획적、 국제적 경제 협조는 위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제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며 이것은 또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몇해 동안에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은 개별적 나라들의 한계 밖으로 그 작용 범위를 본질적으로 확대하여 지금은 개별적 나라들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모든 요구들을 인식하고 이를 사회주의 진영 모든 나라들이 공동으로 리용하는 것은 매개 나라들과 전체 사회주의 진영에서 사회주의의 기본 법칙의 작용을 더욱 확대하게 하며 이 법칙의 리용을 더욱 개선할 수 있게 할 것은 론의할 여지가 없다。 인민 경제 계획들의 적절한 조화와 유해한 편향의 제거는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의 법칙을 포함한 기타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의 제 요구의 실현도 촉진한다。 공업화 정책 실시에 있어서 범한 부분적 착오들은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규모에서 본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장애하였다。 현재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진영에 들어 있는 일련의 나라들이 약간의 주요 제품、 례컨대 일정한 형의 압연(壓延)의 생산、 볼 베아링의 생산 등등을 호상간에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있다。 이것은 개별적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로 하여금 거액을 요하는 일련의 대공장 건설을 중지하고 여기에서 절약된 자금을 그 나라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 지어져 있는 인민 경제 부문들에 돌릴 수 있게 하며 국내 소비에 충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제품과의 교환에도 충용될 그러한 일련의 제품의 련속 생산에 자기의 력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국제적 분업의 발전은 사회주의 진영의 매개 나라에서 로동 생산 능률의 급격한 장성을 가져 온다。 그것은 현재 九억의 인구를 련합하고

있는 전체 사회주의 진영에 있어서의 로동 생산 능률의 현저한 앙양을 촉진한다。 인류의 三분의 一의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의 급진적 장성은 두 체계 간의 경쟁에 있어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국제적 규모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 법칙들의 옳바른 리용은 가치 법칙과 같은 경제 법칙들도 더 잘 장악할 수 있게 한다。

세계 민주주의 시장의 대외 무역에는 자본주의적 리윤과 같은 동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착취에 대한 지향이 없으며 부등가 교환이 청산되여 있다。 개별적 사회주의 국가—소유자들 간의 상품 교환은 등가적 성격을 띤다。

세계 민주주의 시장에서는 각이한 소유자들에게 속해 있는 상품들이 교환되는만큼 여기에서는 가치 법칙이 작용하며 또 그들이 사회주의적 소유자——쏘베트 국가와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이니만큼 여기에는 가치 법칙을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나라 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할 실제적 토대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적、국제적 분업을 심화 확대함과 동시에 공업화와 전기화、높은 기술에 의한 생산의 장비를 토대로 하여 모든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생산원가 수준들을 더욱 더 균등화시켜야 하며 또 그리하여 개별적 나라들의 사회적 상품 가치가 전 사회주의 진영적으로 통일된、더욱 더 저하되여 가는 사회적 상품 가치로 되기까지 균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가치 법칙은 개별적 나라들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총체로서의 전체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에 점점 더 종속되여 가고 있다。

* * *

사회주의적 세계 경제 체계의 형성은 인류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위대한 달성이다。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은 이 체계를 백방으로 강화하면서 사회주의 경제 법칙이 제기하는 모든 객관적 요구들을 과학적으로 인식한 토대 우에서 이 법칙들을 정확히 리용하고 있다。

전체 사회주의 진영 범위에서 작용하는 사회주의의 경제 법칙들을 정확히 리용하여야 할 필요성은 맑스—레닌주의 정치 경제학 앞에 다음과 같은 새롭고 복잡한 일련의 과업들을 제기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진영의 개별적 나라들의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세계 경제 체계에 들어 있는 이여의 나라들의 발전과 관련된 이 나라들의 발전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야 하며 이 광범한 범위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 법칙들의 작용으로부터 나오는 이 법칙들의 요구를 심오하게 연구하여야 하며 끝으로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제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그러한 경제 정책의 수

립 및 수행을 방조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업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주의 진영 나라 경제학자들의 힘을 합할 필요가 있다。

주一 一九四七년에 대한 자료에 있어서는 소위 적산 즉 독일인과 조국 반역자들에게서 몰수한 기업소도 사회주의적 우클라드에 가산되여 있다。 이 기업소들은 그 규모 여하에 따라 국유화의 대상으로 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그것들의 최후 운명은 로동 계급과 부르죠아지와의 가렬한 투쟁 속에서 해결되였다。 적산은 전체 공업의 약 一六%에 달하였다。

주二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인민 민주주의를 위하여!』지 一九五三년 九월 一一일부。

주三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인민 민주주의를 위하여!』지 一九五四년 五월 二八일부。

(『경제 제 문제』 一九五五년 七호에서)

새로운 아세아

브·미헤예브

태평양에서 군사 행동이 종식된 一〇주년이 가까워 온다。이와 관련하여 아세아에서 일어난 몇가지 사건들을 총결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의 이 부분은 여러 세기 동안 세계 자본주의의 광범한 팽창 지역이였다。인도、중국、인도네시야、이란、비르마、말라이 및 기타 나라들의 무진장한 부원、거대한 리윤 획득과 『잉여』자본의 자유로운 투자의 전망에 미혹된 침략자들은 아세아에 침입하였다。 고대 아세아 국가들은 련이어 붕괴되였다。二〇세기 초에 아세아에서 주요 식민지 렬강들간의 지배권 분할은 끝났다。 거의 모든 아세아 제국은 식민지 및 반식민지로 되였다。

현 세기의 상반기、특히 최근 一〇년 간에 아세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바 그것은 더욱 눈에 띄우게 전체 인류 력사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아세아는 지금 민족 해방 운동의 끝 수 없는 불길로 덮이고 있다。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의 일부분인 식민지 체계의 위기는 그 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였는바 그것은 제二차 세계 대전의 결과에 시작되였다。식민주의의 시대는 종말에 가까워 오고 있다。 인민들의 해방 운동은 이전의 식민지 및 반식민지 제국을 자립적 발전의 길로 이끌고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은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제一차 五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서 벌써 六년 동안 존재하고 있다。인도 공화국은 자립적 존재의 수년간에 자기의 경제、정치적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전진을 하였다。八월 중순에 인도네시야의 민족적 독립 선포와 일본 강점으로부터의 조선 해방 一〇주년이 되였다。九월 二일 월남 인민은 자기 공화국의 一〇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일련의 자주적인 아세아 국가들의 재생과 국제 정세에 미치는 그 영향의 강화는 아세아의 정세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세계 정세에 커다란 변화를 주고 있다。

* * *

아세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해방 운동은 력사 발전의 필연적 결과이다。대중의 해방투쟁은 심각한 정치、경제적 제 조건에 의하여 발생되였었다。 민족적 무권리、식민지적 착취、지주의 압박、기아와 빈궁——바로 이것이 아세아에서 민족 해방 투쟁이 장성하게 된 주요 원인들이다。 위대한 과거와 문화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가진 인민들이 민족적 독립을 박탈 당함으로써 받은 식민지적 압박은 괴롭고도 장구하였으나 그러한 처지가 영원할 수는 없었다。

외래 식민주의자들은 중국을 거의 一〇〇년 동안 강점하였으며 아편으로 중국 인민을 중독시키고 중국에서 은、볼리프람、석(錫)、명주、차 및 기타 재부들을 수출하였다。 그들은 중국을 분할하고 괴뢰 정체를 창설하였으며 많은 지역을 강점하였다。 모 택동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 렬강들은 자기의 잔인한 지배를 중국에 수립하고 독립적인 중국을 반식민지 및 식민지 나라로 전환시켰다』(선집 제三권 一四八폐지)。

아세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를 위한 기반으로 된 것은 봉건주의의 거대한 잔재 세력들이였다。구 중국에서는 농민의 七〇%가 토지 없는 혹은 토지 적은 농민이였으며 지주의 토지를 예속적 조건으로 소작하였다。그들은 수확의 二분의 一 내지 三분의 二를 지주에게 바쳤는데 매년 농민들이 지주에게 지불하는 지대는 곡물 五、〇〇〇만톤의 가격에 해당되였다。

영국 자본가들의 二세기에 걸친 지배는 인도를 황페화하였으며 그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영국 자본주의는 수많은 식민지 노예들의 가혹한 로동으로써 영국을 공업화하였으며 영국을 중요 공업국의 하나로、세계의 은행—고리 대금업자로 전환시켰다。 영국 자본가들은 무수한 재부를 인도로부터 영국에 빼앗아 갔다。인도인들의 로동은 영국 은행가들을 부유케 하는 원천으로 되였으며 그리고 영국 자본가들로 하여금 식민지 수익으로써 로동 계급 속에서의 부르죠아지의 사회적 지주인 로동 귀족을 배양할 광범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영국인 통치 말기에 인도 농민 경리의 九四%는 수익이 없고 손해를 보며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것이라고 간주되였다。지주들과 귀족들은 토지의 대부분을 점유하게 되였다。쟈와하를랄 네루가 자기의 저서 『인도의 개화』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례하면 영국의 황마 및 방직 공장의 리익 배당금은 一〇〇% 및 二〇〇%에 달하였으나 한편 인도 로동자들은 굶주리고 있었다。주림과 전염병으로 인도에서는 매년 五〇〇——六〇〇만명이 죽었다。 인도인들의 평균 수명은 二三세에 지나지 않았다。 인도 근로자들이

영국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여러번 궐기한 것이 이상한 일이겠는가? 파연 인도 인민이 수요와 민족적 권리에 대한 그러한 착취, 그러한 멸시를 끝끝내 참을 수 있었겠는가?

一、〇〇〇만명의 인구를 가진 구라파의 적은 나라 화란의 착취 계급들은 부요한 아세아 제국의 하나이며 八、〇〇〇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야를 三세기 이상 압박하였다。제二차 세계 대전 전야에 화란 자본가들은 인도네시야에서 매년 一억 五、〇〇〇만 딸라의 순리익을 얻었다。인도네시야의 경제는 화란、영국 및 기타 식민지 렬강들의 경제의 부속물로 전환되였었다。쟈와도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 농민들의 생활은 화란 자본가들과 지주들의 농장에서 기본 작물이였던 생고무、키니네、차 및 커피에 대한 세계 가격의 동요에 의존하고 있었다。쌀과 기타 식용 작물의 파종 면적은 더욱 적어졌으며 기아는 나라를 더욱 더 휩쓸었다。

불란서 은행가들은 八〇년 이상 인도지나에서 피땀을 빨아 먹었다。불란서 자본가들은 전쟁 전에 쌀의 수출에서만도 一년에 약 一〇억 프랑을 벌었다。생고무、석、아연、불리프람과 또 소금、아편、주제품(酒製品)도 그들에게 거대한 리익을 주었다。그들은 인도지나에서 세금 형태로 수백만 프랑을 받아 냈다。

전 세기 말에 수천명의 비률빈인과 하와이인들은 그들 땅에의 미 군국주의자들의 침입으로 파멸되였는바 미 군국주의자들은 하와이、비률빈 및 태평양의 일련의 기타 도서들을 자기의 식민지로 전환시켰다。아세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와 같이 비률빈에서도 토지는 지주들의 수중에 있는데 한편 고용 농부들의 적은 수입은 심지어 빈약한 식사를 보장하는 데도 부족하다。

조선인들을 四〇년 동안 압박하고 만주와 대만을 예속하며 기타 중국 령토들을 다년간 강점한 일본 식민주의자들은 미증유의 잔인성으로 유명하였다。일본의 식민지들에서는 일본화가 진행되고 원주민들의 모국어는 금지되였고 그들의 민족 문화는 압살되고 있었으며 토지와 산업은 일본 자본가들과 지주들에게 강탈되였었다。

근동 및 중동 제국——이란、이라크、파키스탄 및 기타——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의 처지도 동 아세아에서와 같이 곤난하였었다。기본 주민인 농민은 지주들과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예속되여 토지 없는 조건 하에서 살아 왔으며 또 아직도 살고 있다。외국 상사들의 압제、민족적 노예화、농장에서의 고용 농부들과 산업지들에서의 로동자들의 가혹한 착취、주민들의 저급한 생활 수준——이것은 어데서나 볼 수 있는 동일한 전경이다。

식민주의자들이 예속국들에서 몽매와 락후성을 고의적으로 보존하였다는 그 사실은 그들에 대한 준엄한 고발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에서 인민 교육

의 발전을 일부러 저해하였다。영국인 통치 말기에 인도에는 지식 분자가 一二%였고 중국에는 혁명 승리 이전에 一一%였으며 인도네시야와 인도지나에는 전쟁전에 지식 분자가 五%에 지나지 않았다。

전쟁전 낡은 아세아에서의 수백만 사람들의 생활 조건은 이러하였다。바로 이러한 조건들이 인민적、민족 해방 운동이 장성하게 된 원인이였다。오직 무식쟁이들만이 『혁명의 수출』에 관한 거짓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사실은 이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주지하는 바와 같이 식민주의의 전 시기를 통하여 예속국들에서는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중단되지 않았었다。전 세기 중엽에 중국에서의 수백만 인민이 궐기한 태평 폭동을 상기하면 충분할 것이니 그때 그들은 중국 인민을 노예화한 지주들과 외래 강점자들을 반대하여 나섰다。이 폭동은 중국의 반동 분자들과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련합 세력에 의하여 진압되였다。一九〇〇년의 중국 인민의 봉기도 외국의 압박을 반대하는 데로 돌려졌는바 이것도 역시 제국주의자들의 군대에 의하여 진압되였다。

기타 아세아 제국에서도 이와 같은 정형을 엿볼 수 있다。인도에서의 영국 통치의 전 력사는 정복자들을 반대하는 폭동으로써 충만되여 있다。이미 一八세기에 인도 인민은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완강하게 반항하였으며 여러번 손에 무기를 들고 그들을 반대하여 진출하였다。독립을 위한 전투는 一九세기에 와서도 일어났다。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인민 봉기——一八五七년의 토인들의 봉기——는 각이한 사회적 계층으로부터 나온 수 많은 사람들을 포괄하였다。인도에 있어서의 반제 운동은 특히 二〇세기에 와서 고조에 달하였다。

현 세기의 혁명적 사변들은 철석같이 단합된 인민적 력량을 폭발시켰으며 수백만 사람들을 투쟁에 인입시켰다。현실은、인민 대중은 력사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놀며 또 특히 동방의 근로 대중은 인류의 진보에 거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인정한 맑스주의자들의 결론의 정당성을 확증하여 주었다。二〇세기 초에 동방에서는 자본주의의 일체 모순이 하나의 거대한 매더에 뭉치고 있었다。즉 지방의 착취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의 二중의 압박을 체험한 근로자들은 봉건적 잔재와 자본주의적 착취에 얽매이고 있었다。민족 해방 운동은 지주들、고리 대금업자들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계급적 전투에 의하여 격화되였다。이 모든 것은 자기의 자유와 보다 행복한 미래를 위한 대중들의 강력한 운동을 앙양시키는 원인으로 되였다。

벌써 현 세기 초에 아세아에서는 一九〇五년 로써야 혁명의 영향 하에서 혁명적 불길이 전파되였다。인류 력사에 새로운 기원을 열어 놓은 一九一七년의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아세아에서의 해방 운동의 발전에 거대한 의의를 가졌다。 그것은 一억 五천만의 구라파와 아세아의 주민들을 사회적、민족적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켰으며 인류 해방의 위업을 전진시켰으며 혁명적 구라파인과 혁명적 아세아인들을 민주주의적 통일 전선에 집결시켰는바 아세아도 포함한 식민지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은 세계 반제국주의적 전선의 일부분으로 되였다。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 장성의 그 거대한 의의를 브·이·레닌은 명백히 보았다。 레닌은 三二년 전에 다음과 같이 썼다: 『…자본주의 자체가 지구의 절대 다수의 주민을 결국 투쟁으로 교양 훈련시키고 있다。

투쟁의 결말은 결국 로씨야、인도、중국 등등이 전 세계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 그리고 최근 몇해 동안 비상한 속도로써 자기들의 해방 운동에 궐기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이 절대 다수의 주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전 세계적 투쟁의 종국적 해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털끝만한 의심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전집 제三三권 四五八페지)。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승리의 영향 하에서 식민지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은 급속히 장성하기 시작하였다。 수백만의 중국인、인도인、인도네시야인、월남인 및 기타 아세아의 광범한 인민들은 투쟁에 궐기하였다。 一九一九년은 중국에서의 혁명 운동의 새로운 앙양을 의미하였다。『五·四운동』으로 알려진 一九一九년의 사변은 혁명적 시대의 시초로 되였다。 一九二一년에 중국 공산당이 탄생되였으며 一九二四년에 반제 반봉건적 인민 혁명이 전개되였는바 이는 二五년 후인 一九四九년 一〇월에 위대한 승리로써 완수되였다。

일본인들에 의하여 강점된 조선에서는 一九一九년에 대규모의 인민 봉기가 일어났다。 농민 진출의 물결은 一九一九—一九二一년에 인도를 휩쓸었다。 一九二一년에 내몽고의 근로자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령주들의 주권을 타도하고 독립을 달성하였으며 그리고 一九二四년에는 자기의 민족 국가—몽고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였다。 一九二六—一九二七년에 수 많은 인도네시야인들은 화란 억압자들을 반대하여 궐기하였다。봉기는 잔인하게 진압되였으나 그것은 인도네시야인들의 의식 속에 심각한 흔적을 남겨 놓았으며 해방 운동의 부단한 발전을 촉진시켰다。

제二차 세계 대전은 식민지에서의 사태를 격화시켰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어깨에 새로운 부담을 부가하였으며 그들의 처지를 악화시켰다。 인민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항과 자기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가능성과를 련결시켰다。 로동 계급과 공산당은 낡은 식민주의자들을 추방 하고 그들이 다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데로 대중을

궐기시켰다。 대중의 정치적 의식은 장성되였고 애국주의 정신이 강화되였다。 예속된 인민들은 전쟁의 결과에서 자기의 협악한 처지가 식민주의에 의하여 초래되였고 또 국내의 반동적 계급들이 식민주의의 사회적 지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공산당의 지도 하에 중국에서 인민 해방군은 국민당 도당의 배신적 행위를 무릅쓰고 일본인들을 반대하는 광범한 전선을 견지하였으며 一九四五년에 一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령토를 해방시킬 수 있었다。 거의 모든 동 아세아 제국에서 대중적 반팟쇼 통일 전선이 발생하였으며 빨찌산 부대들과 민족 해방 군대들이 출현하였다。 一九四五년 八—九월에는 인도네시야 공화국、월남 민주 공화국이 수립되였으며 비르마에서는 완강한 투쟁이 전개되였고 인도에서는 영국의 지배에 대한 분노가 강화되였다。

독일 파시즘과 일본 군국주의의 괴멸은 민주 력량에 유리하게 국제 정세를 변화시켰으며 아세아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을 쉽게 하여 주었다。 一九四五—一九四八년에 아세아 제국은 봉기에 불타 올랐다。 중국에서 인민 해방군은 장 개석과 간섭자들의 련합 세력을 격멸하였다。 인도네시야、말라이、인도지나、비률빈에서 인민 군대들은 거기에 래도한 간섭자들의 군대를 반대하는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인도의 일련의 지방(하이다라바드、안드흐라、마드라스、벤가리야)에서 농민 봉기가 시작되였는바 그 봉기들은 지주의 토지를 점령하고 인민 정권 기관들을 창설하였다。 수개 나라에서 로동자들은 외국인들에게 속한 산업 기업소와 농장들을 탈취하기 위하여 진출하였다。

동남 아세아 나라들의 민족적 해방의 전망은 열려졌으며 근동 및 중동에서 식민주의자들의 지위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인민들의 투쟁은 광범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바 그것은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중국으로부터 물러서며 쫓겨 나가도록 하였으며 인도、인도네시야、비르마 및 기타 아세아 제국의 국가적 독립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끌었다。

민족적 독립과 새로운 생활을 쟁취하는 데로 나아가는 아세아 인민들의 도정에서 거대한 도표로 된 것은 一九四九년에 중화 인민 공화국의 성립으로써 완수된 중국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였다。 六억의 중국 인민은 공산당의 지도 하에 제국주의자들의 멍에를 집어 던지고 봉건주의의 잔재들을 종식시켰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광범한 길에 들어섰다。 중국 혁명의 승리는 전체 아세아 인민들의 해방을 위하여 보다 더 유리한 조건들을 조성하여 놓았다。

중국 인민의 영웅적 혁명 투쟁、인도지나、인도、인도네시야、비르마 및 기타 아세아 제국에서의 해방 운동의 거대한 장성은 아세아의 면모를 변화시켰다。 아세아는 식민지 압박에서 더욱 더 해방되고 있다。 식민주의자들의 지배가 아직도 이 대륙의 일련의 나라들에

보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一〇억 이상의 아세아 주민들은 독립적 민족 발전의 도상에 선 새로운 국가들을 가지고 있다。아세아 주민의 약 반수는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인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몽고 인민 공화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월남 민주 공화국에서 살고 있다。정치적 독립을 쟁취한、재생한 아세아 제국—인도、비르마、인도네시야의 국제 무대에서의 역할은 현저히 장성되였다。독립과 자주적인 대외 정책을 위한 투쟁에서 씨리야、레바논、아프가니스탄은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기타 아세아 제국에 있어서 해방 운동은 그치지 않고 있다。

낡은 아세아는 과거로 물려 갔고 매개 인민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장래 발전의 길을 선택하는 권리를 옹호하는 새로운 아세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벌써 명백하여졌다。인류의 운명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 새로운 아세아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아세아가 발생된 사실을 벌써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최근에 외국에서 아세아의 형편에 관한 많은 저서、론문과 오체르크들이 출판되였다。그러한 론문들 가운데는 이전의 인도 주차 미국 대사 츠・보우르쓰와 그의 저서 『대사의 총화』、오・라찌모르의 저서 『아세아의 형편』、루・뻬인의 『아세아에 대한 적색 위협』、이・키므헤의 『七개의 대가정의 붕괴』、드・구레비츠의 『근동의 티렘마』、미 합중국에서 출판된 론문집『아세아에서의 당면 과업』등등이다。이 모든 저서들과 론문들의 내용은 아세아 형편의 근본적 전환을 지적하고 있으며 식민지 시대의 멸망을 인정하고 있다。례하면 오・라찌모르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아세아는 一九세기와 二〇세기 초에 렬강들이 수행한 것처럼 더는 자기 의사를 강요당할 수 없는 세계의 일부분으로 되였다。지금 우리들은 회담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로운 아세아의 재생은 세계의 전경을 일신시켰다。식민지 후방을 상실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 지위는 약화되였다。지금 세계 자본주의는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위하여 아세아 제국의 거대한 물적、인적 예비들을 이전과 같은 그러한 규모로 리용할 수 없게 되였다。새로운 아세아의 주민의 대다수는 공고한 평화와 민족의 친선、각이한 사회적 체계를 가진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진출하고 있다。

* * *

현재 아세아에는 사회적 및 정치적 체계로 보아 서로 다른 나라들이 공존하고 있다。그 차이는 인민들의 력사적 과거와 그들의 생활 및 투쟁의 특수성에 의하여 산생된 것이다。그러나 이 차이는 아세아 제국 간의 친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다。왜냐 하면 그들은 다년간 동일한 불행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아세아 인민들은 쟁취한 권리와 경제 및 문화 발전에 있어서 호상 원조에 노력하면서 호상 깊은 동정을 표시하고 있다。

아세아의 약 七억의 주민들은 지금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에 속하고 있다。그 중에서 三개 나라—중화 인민 공화국、월남 민주 공화국 및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기타 청소한 아세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제二차 세계 대전 후인 최근 一〇년 간에 탄생되였다。이 나라들에서는 인민 대중이 주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맑스—레닌주의당들—중국 공산당、월남 로동당 및 조선 로동당이 그들을 지도하고 있다。바로 여기에 아세아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거대한 우월성이 있다。혁명 투쟁에 있어서 가장 철저한 로동 계급은 온갖 형태의 민족적 및 사회적 압박을 청산하는 데로 확신성있고 단호하게 인민들을 동원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근로자들은 정치、경제 생활에 있어서 근본적 전환을 수행할 수가 있었다。

중국과 북조선에서 진행된 토지 개혁은 수세기에 걸친 지주의 예속으로부터 농민들을 해방하고 그들에게 토지를 분여하여 주었다。식민주의자들은 자기의 주요한 지주의 하나인 봉건 지주를 상실 당하였다。한편 인민 민주주의 제도는 근로 농민들의 믿음직한 지지를 쟁취하면서 거대한 력량을 가지게 되였다。

기본적 산업 부문、은행、대외 무역의 인민적 국가 수중에의 이행、국가의 중공업 창설은 아세아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의 경제적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다。이러한 시책들은 보다 발전된 경제를 가진 사회주의 진영의 다른 나라들의 형제적 방조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아세아 제국에서의 근본적 개조는 오직 그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정치、경제적 지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또 따라서 자기의 경제를 사회주의적 길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중국은 이 면에 있어서 현저한 전진을 하였는바 경제에 있어서 현대적 공업 제품의 비중은 一九四九년의 一七%로부터 一九五四년에는 三三%로 증가되였다。제一차 五개년 계획을 실행하면서 중화 인민 공화국은 약 七〇〇개의 대산업 기업소를 건설하고 있다。수십개의 공장과 광산들은 이미 조업을 하고 있다。공업 제품은 一九五四년에 一九五二년에 비하여 五三・七%로 장성하였다。八시간 로동제、휴가 지불、六〇% 이상의 로임의 장성、사회 보험、새 주택에의 수 많은 근로자들의 이주—이 모든 것은 곧 로동 계급의 처지가 개선되였다는 것을 뵈여 주는 것이다。

八월 一五일 조선 인민은 쏘베트 군대에 의한 일본 식민주의자들로부터의 자기 조국의 해방 一〇주년을 기념하였다。一九四八년 북반부에 수립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주민들은 이 날에 이미 수행한 민주주

의적 개조를 총화하였다。 인민 정권의 창설、토지 개혁 및 산업、은행 및 운수의 국가 수중에로의 이행은 인민 경제의 급속한 앙양과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강화를 촉진하였다。 一九五〇——一九五三년의 전쟁은 이 진보를 중단하였으며 인민 경제에 심한 손실을 주었다。

현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은 경제 복구의 三개년 계획(一九五四——一九五六년)을 실행하고 있다。 정전 후 二년 동안에 二九〇개의 기업소를 신축 및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복구 확장하였으며 一九五五년 상반년에 있어서의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 생산액은 一九五三년 상반년에 비하여 二·五배로 장성하였다。 파종 면적은 증가되였고 농촌에서는 협동 조합 운동이 확대되고 있는바 약 四四%의 농호가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되고 있다。

로동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지금 一九五七——一九六一년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제一차 五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광범한 경제 건설을 전개하면서 북조선 인민은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자기의 주요 과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김 일성 수상은 八월 一四일부 자기의 보고에서 국가의 모든 관심은 조선에서 평화의 강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호소하였으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남조선 정권 당국과 사회 계층과 교섭을 진행할 용의가 있으며 나라의 량 부분 간의 경제적、문화적 련계를 확대하며 통일적 국가를 복구할데 대하여 언명하였다。 통일——이것은 지금 전체 조선 인민의 열렬한 지향인바 조선 인민이 종국적으로 통일될 것은 의심할바 없다。

九월 二일로써 월남 민주 공화국은 창건 一〇주년이 된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인민 해방 전쟁의 결과에 북부 월남에 창건된 공화국은 곤난한 시기를 겪었다。 영웅적 월남 근로자들은 식민주의 정체를 복구하려고 기도한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八년 간의 장구한 전쟁에서 자기의 청소한 공화국을 고수하였다。 전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의 지지 하에 월남 민주 공화국은 인도지나에서의 정전을 달성하였으며 지금 인민 경제의 재건에로、토지 개혁의 광범한 실시와 민족 산업의 창설에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적 독립을 달성한 이전의 식민지들이 아세아 제국의 다른 그루빠를 구성하고 있는바 그 나라들은 지금 국제 무대에 독자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력사적 제 조건으로 말미암아 외국 자본의 경제적 예속으로부터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한 례로서 약 五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三개의 새로운 아세아 국가들——인도、비르마、및 인도네시야에서는 외국 자본의 경제적 지반이 아직 강하다。 외국 자본은 이 나라들의 은행、전체 산업 부문、운수 및 대부분의 대외 무역을 통제하고 있다。 인도、파키스탄、비르마 및 기타 자기의 이전 식민지들의 독립을

인정할데 대한 조약을 조인할 때 영국 정부는 영 제국 자본가들의 경제적 리익을 보호하는 대책을 취하였다。 비르마와의 협정에 의하여 석유、석 등등을 장악하고 있는 영국 상사들은 그곳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바 거의 모든 쌀의 대외 무역은 영국 상사의 수중에 장악되고 있다。 인도네시야에서 외국 자본은 쟈와와 스마트라의 농장의 九六%、석유 자원의 대부분、석 광산 및 공업 시설을 점유하고 있다。인도에서 영국 자본가들은 산업、대외 무역、보험、은행업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쟁후 미국 자본은 일련의 아세아 나라들에 자기의 수출을 강화하였다。 미국 자본은 각종 대차와 크레디트 및 소위 경제 원조의 명목으로써 집요하게 아세아 제국에 뿌리박고 있다。

강력한 경제、정치적 압력은 이란、씨리야、레바논、에지프트와 같은 근동 제국에도 있는바 이 나라 인민들은 더욱 더 결정적으로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외국 자본에 의한 경제적 예속은 민족 정부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제기된 거대한 과업의 해결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경제의 세기적 락후성、주민들의 주기적 기아、문맹、실업、흉작、홍수 및 한발、수백만 사람들의 빈궁과 무거처、전문가들의 결핍、자본과 공업 제품의 부족——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아세아 제국의 정부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할 곤난한 문제들이다。

외국 자본에 의한 기존 경제적 예속 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의 국내 생활에서의 매개 전진이 봉건 지주들、대매판 자본가들과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 대리인들과 같은 그러한 반동적 계급 및 그루빠들의 완강한 반항에 봉착하고 있는 것도 이 문제들의 해결을 저해하고 있다。 지주들은 토지 개혁에 관한 법령 채택을 방해하고 있다。 외국 자본들과 경제적 리해 관계를 가진 상인들과 매판 자본가들은 그의 경제적 지배의 근절과 국영 산업의 창설을 방해하고 있다。

八월 一七일 인도네시야 인민은 자기 나라의 독립 선포 一〇주년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공화국 대통령 스카르노는 기념일에 자기의 연설에서 식민주의 잔재의 청산、아직도 화란에게 억압받고 있는 서부 이리안 공화국과의 재통합、민족 산업의 창설과 전체 경제의 앙양과 같은 과업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난 一〇년 간에 인도네시야에서는 주요한 변화들이 일어 났다。 즉 대중의 적극성이 강화되고 로동 계급의 대중적 기관——공산당、및 사회당、 직업 동맹들이 장성되였다。 민족적 자각의 장성、인민들의 열렬한 애국주의는 인도네시야 정부의 자주적인 대외 정책、군사 쁠럭에의 참가 거부 정책、각이한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의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확고한 지주로 되였다。

민족적 통일을 위하여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

을 반대하여 진출하면서 인도、 인도네시야 및 비르마의 로동 계급은 근본적、사회적 제 개혁——토지 개혁、제국주의의 경제적 지반의 청산——의 투사로 되고 있다。 이 나라 공산당들은 민족 정부의 모든 진보적 방책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외국 식민주의자들과 지주들의 진지에 더욱 결정적인 진출을 하고 있다。 인도 출판물들이 보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一九五五년 六월에 개최된 인도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전개된 결정을 채택하였는바 그 결정에서 평화를 위하여 군사 뿔럭을 반대하며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아세아 인민들의 련대성을 위한 네루 정부의 투쟁을 찬동하고 있다。 민족의 일체 진보적 력량의 통일을 달성하면서 공산당은 인도에서 외국 자본을 반대하여 더욱 결정적으로 투쟁하며 봉건주의의 잔존물들을 청산하며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며 민족적 자주권의 물질적 기초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산업의 건설을 광범히 전개할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 공산당은 근로자들의 처지를 개선하여 실업을 청산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며 국내 생활의 가일층의 민주화를 달성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인도네시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一九五五년 五월 二三일부 호소문에서 공산당은 정부의 발기에 의하여 아세아 및 아프리카 인민들의 대회 소집에서 표시된 민족 정부의 평화적 대외 정책과 그의 침략적 뿔럭에의 참가 거부를 찬동하고 있으며 공화국의 경제적 독립과 근본적、민주주의적 제 개혁의 실시를 위한 투쟁을 강화할 것을 호소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세아 제국의 세째 그루빠의 국가들인 파키스탄、타이、비률빈、이라크、토이기 및 기타 일련의 국가들은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나라이나 아세아에서 국제적 반동 계층이 조작한 침략적 군사 뿔럭에 가담함으로써 자기의 자주성을 심히 훼손 당하고 있다。 이러한 아세아 국가들에 대한 군국화의 방침은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 파키스탄、토이기 또는 이라크의 자주성을 그 린접 국가들이 위협하고 있다는 데 대한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실에 있어서 린접 국가들인 쏘련、중화 인민 공화국 및 인도는 평등、호혜、민족적 자주성을 존중하는 기초 우에서 그들과의 통상 및 문화적 련계를 개선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위협성은 다른 방면으로부터 몇몇 아세아 제국에 가해지고 있는바 그것은 오직 서방 계층의 대외 정책 로선에 의한 예속으로 인하여 그의 발전이 저해되며 경제가 파괴되여 근본적 개혁의 실시와 인민들의 처지의 개선 및 민족 경제와 문화의 재생이 방해되고 있다。

전쟁 후 일본은 예속된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민주주의적 운동이 전개되게 되였다。 즉 공산당은 장성하였으며 직업 동맹들은 수십만의 로동자와 사무원들을 련합하였으며 농민 동맹 및 기타 민

주주의적 단체들이 출현하였다。 지주들의 지배를 근절하지 못한、농지 개혁에 의하여 땅을 떼운 농민들의 불만은 장성하고 있다。

일본 근로자들은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평등과 호혜의 새로운 기초 우에서 자기의 린방과 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평화에 대한 인민들의 의지가 장성하고 있는바 그것은 원자 및 기타 대량 학살 무기의 금지를 요구하는 광범한 서명 수집 운동에서 표현되였다。 이러한 요구를 들고 三、〇〇〇만명 이상이 서명하였다。

아세아 및 태평양에는 아직도 완전히 식민지로 남아 있는 나라들이 있다。 그러한 나라들은 말라이、뉴・기니야、사모아 군도、비스마르크 군도、소로몬군도、하와이 및 기타 몇몇 나라들이다。

아세아 제국의 대다수의 인민들은 완전한 경제적、정치적、민족적 독립을 쟁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자기의 과업으로 보고 있다。 이 과업은 이때까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적 계급 및 그루빠들의 지배를 결정적으로 전복한 인민들만이 끝까지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머지 나라들에서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은 현재 사회 생활의 기본 내용으로 되고 있다。 이 투쟁에는 로동 계급、농민 그리고 또 외국 자본과 봉건주의 잔재의 압제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족 부르죠아지의 현저한 부분이 망라되였다。

아세아 제국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계급은 농민이다。 즉 그들은 인도、인도네시야、비르마、파키스탄、이란 및 기타 국가 주민들의 七〇——八〇%를 차지하고 있다。 농민은 도처에서 해방 운동의 적극적 참가자인바 특히 그것은 자기의 혁명적 진출로서 농민을 적극화시키고 있는 로동 계급의 운동이 발전된 곳에서 그러하다。 다수 경우에 지주들은 자기 처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에 매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대중들의 혁명 투쟁은 통례로 지주들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과 결합되고 있다。 이것은 대중적인 운동으로써 농민들이 정치적 독립의 쟁취와 토지에 대한 문제를 결합시키고 있는만큼 계급 투쟁의 가일층의 확대에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례하면 인도네시야에서 지주들의 일부는 대중들의 영향 하에서와 또 민족적 압박이 그들에게도 참을 수 없는 것이였었기 때문에 민족 해방 전선에 가담하게 되였다。 인도에서는 지주들의 대다수가 최초부터 국민 회의파에 가담하여 식민주의를 지지하지 않았다。

해방 운동의 적극적 력량인 로동 계급은 자기 나라의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쟁취함에 있어서 더욱 거대한 역할을 놀고 있다。 로동 계급은 아직도 아세아 제국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로동 계급의 힘은 그의 의식성、조직성、 그의 확고한 국제주

의적 련대성에 있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 나라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지도 하에, 해방 운동에서의 령도권을 위하여서와 또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며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압박의 결과를 청산하는 데로 민족 해방 투쟁을 끝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로동 계급은 자기의 영웅적 행동으로써 모든 인민을 궐기시키고 있으며 민족 해방 운동에 새로운 력량을 인입하고 있으며 민족 해방 운동과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투쟁을 결합시키고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나라 로동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아세아 제국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은 지금 다른 대륙의 인민 대중을 혁명화하며 평화와 사회주의 력량의 승리를 위하여 이전보다 더 유리한 조건들을 조성하면서 서구라파 나라들에서의 계급 투쟁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그만큼 광범한 규모에 이르렀으며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구라파의 로동 계급은 아세아 인민들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거대한 방조를 주고 있다。 불란서、영국、화란 공산당들은 다른 인민들을 압박하는 인민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맑스와 엥겔스의 불멸의 교훈을 근로자들 속에 주입시키고 있다。 최근 년간에 투쟁하고 있는 이전 식민지 인민들과 종주국의 로동 계급과의 협조가 강화되였다。 불란서 프로레타리아트는 월남에서의 『부정의 전쟁』을 반대하여 광범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인도지나에서의 정전을 달성하는 사업에 기여하였다。 영국 로동 계급은 중화 인민 공화국을 지지하고 있으며 아세아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행동을 반대하여 한의하고 있다。 화란 로동자들은 인도네시야 공화국의 성립을 환영하고 있으며 평등과 청소한 공화국의 민족적 자주권을 존중하는 기초 우에서의 화란과 인도네시야와의 협조에 노력하고 있다。

전체 아세아 인민들은 공통적 목적――자기의 민족적 독립의 확보、평화적 발전、자기 생활의 철저한 개선、자기의 고대 문화의 부흥과 새로운 앙양에로 지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아세아 인민들을 련합시키고 있으며 그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기초로 되고 있다。 통일、민족적 자결、평화와 인민들의 협조를 위한 투쟁의 장성――이러한 것이 二〇세기 중엽의 아세아에서의 주요 경향이다。

* * *

一九五五년 六월에 진행된 제네바 四렬강 정부 수뇌자 회의――쏘련、미 합중국、영국 및 불란서――는 중요한 국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여 놓았다。 그러나 이 회의는、쏘련 대표단이 회의 참가자들에게 아세아와 원동의 문제들을 심의할 것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원동에서의 정세는 인민들의 응당한 불안을 일으키

고 있다。 조선과 인도지나에서의 정전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는 긴장 상태가 보존되고 있는바 그것은 현재 위협성을 떠게 되였다。 동 아세아에서의 긴장 상태는 그곳에 군사 뿔력을 창설하려고 애쓰며 태고로부터 중국 인민의 령토인 대만과 기타 도서들을 계속 보존하려고 하는 몇몇 렬강들의 정책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다。

아세아의 정세는 또한 조선 문제의 미해결과 남조선 정권의 군사적 도발에 의하여、인도지나에 대한 작년 제네바 회의의 결정을 파탄시키려고 하는 반동 계층들의 기도에 의하여、세계의 유력한 강국의 하나인 중화 인민 공화국의 유•엔 가입의 합법적 권리의 무시에 의하여 복잡하여지고 있다。

중국을 기타 아세아 제국으로부터 고립시키며 아세아의 사회주의 국가와 대륙의 나라들과의 접근을 방해하여 아세아 제국 간에 존재하는 사상적 및 종교적 불일치를 리용하여 아세아 인민들을 분렬시키려는 시도는 아세아에 있어서의 사태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다。

평화 위업을 위하여 위험한 것은 아세아 제국을 침략적 군사 집단에 끌어 넣는 온갖 종류의 뿔력、조약、호상 협정과 지방적 군사 기구들이다。 그러한 것으로는 一九五四년에 체결된 미 토 조약、토이기―파키스탄 협정、一九五四년에 체결된 미국―파키스탄 조약、토이기―이란 조약、미 합중국과 일본과의 군사 협정、미국과 리 승만 도당 및 장 개석 도당과의 군사 협정、一九五五년 五월에 체결된 캄보쟈와 미 합중국과의 군사 협정들이다。

전쟁 직후 일련의 아세아 제국을 『반공산주의 전선』에 련합시키려는 군사적 기구들을 창설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그러한 기구의 하나는 중동 사령부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 초안은 이미 一九五一년에 준비되였으나 그것은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령토에 외국 군대의 주둔、군국화의 강화 및 군사 기지의 창설에서 자기 나라의 위험성을 본 인민 대중들이 그 기도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기 때문이다。 쏘련 정부는 중동 및 근동 제국의 모든 정부에게 주는 특별 각서에서 중동 사령부의 침략적 성격에 주의를 돌렸다。 이 초안을 반대하여 에지프트、찌리야、싸우디 아라비야 및 기타 아랍 제국으로 구성되여 있는 아랍 련맹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근동 제국 정부는 쌍무 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일련의 군사 뿔럭과 련결되였으나 통일적인 군사 기구를 조작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동 아세아에서는 해방 운동을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 북대서양 동맹에 대한 보충으로서 군사 기구가 창설되였다。 一九五四년 九월에 마니라에서 『동남 아세아 조약 기구』를 창설할 데 대한 조약이 조인되였다。 그 참가자의 제一 그루빠인 식민지 렬강들은 미

합중국、영국、불란서 그리고 영국 자치령인 오스트라리야와 뉴·질랜드이다。 제二 그루빠는 미 합중국에 정치、경제적으로 예속된 나라들、즉 파키스탄、타이 및 비률빈이다。 거대하고 독립적인 아세아 제국은 어느 한 나라도 그 기구에 참가하지 않았다。 아세아 주민의 一〇분의 九가 살고 있는 그 나라 정부들은 이 조약을 거부하였다。

태평양에서의 뿔력의 창설은 중화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여 돌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아세아 제국의 리익에 저촉되며 아세아에서의 새로운 군사적 충돌을 위협하고 있으며 아세아 인민들의 장성하고 있는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

독자적 발전의 길에 들어 서고 있는 아세아 제국 정부는 침략적 뿔력에 참가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평화、국제적 협조 및 각이한 사회적 체계를 가진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의 리념을 고수하고 있으며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의 친선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의심할바 없이 원동의 중요 문제들의 해결은 아세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제 관계에서의 긴장 상태를 가일층 완화하는 데로 이끌 것이다。 이 문제들은 오직 렬강들이 아세아 인민들의 운명에서의 이 력사적 변동들을 고려하며 적당한 존경을 가지고 청소한 아세아 제국의 요구와 자주권에 대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만 성공적으로 해결될 것은 명백하다。

아세아 인민들은 이미 다른 나라의 평화 애호 력량과 함께 조선과 인도지나에서 군사 행동을 정지시키고 평화 위업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실천이 뵈여 준 바와 같이 첨예한 문제들을 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등과 상대방의 리익을 호상 존중하는 기초 우에서의 평화적 회담이다。 쏘련、중화 인민 공화국 및 몇몇 아세아 국가들은 이 방향에서 최근 새롭고 귀중한 제안을 작성하였다。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아세아 제국 및 미 합중국을 포함하는 태평양 제국을 적대적 전쟁 뿔력의 현 체계에 대치시킨 집단적 평화 조약에 조인하기 위한 제안을 제기하였다。 이 제안은 수 많은 아세아 제국의 지지를 받았다。인도에서는『힌두스탄 스탄다르』지가 쓴 바와 같이 인민 중국의 이 조치를 미래에 대한 훌륭한 전조로서 환영하고 있다。 또한 八월 一일부터 제네바에서 미 합중국과 중화 인민 공화국 간에 개시된 쌍방에 의한 공민들의 송환 및 기타 실무적 문제에 대한 대사급 회담은 긴장 상태의 완화에 커다란 도움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이 회담에 의하여 간첩으로 판명된 一一명의 미국 비행사들을 기한 전에 석방한 중국 정부의 선의의 조치는 또한 그에 도움을 주었다。

전체 진보적 인류의 지지 밑에서 아세아 인민들은 자기의 대륙을 평화와 안전의 지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세아 인민들의 이 노력은 평화의 강

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 아세아에는『공산주의의 위협』에 관한、자본주의와 인연을 끊고 사회주의의 도상에 선 인민들 측으로부터의 전쟁 위협에 관한 거짓말을 믿을 수 있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적어지고 있다。 생활 자체는 쏘련、중화 인민 공화국 및 기타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존재가 민족 해방 운동의 적의 행동을 억제하며 평화、민족적 독립 및 자유를 위한 아세아 인민들의 투쟁을 쉽게 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평화、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청소한 아세아의 어느 한 나라도 장구한 투쟁에서 쟁취한 자기의 독립을 보존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은 완전히 명백한 일이다。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은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적 권리를 부단히 옹호하고 있다。 쏘련 정부는 유·엔에서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권리를 철저히 지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의 대만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야 공화국을 반대하는 화란 군대의 간섭 시기에 쏘련은 유·엔에서 인도네시야의 자주권을 옹호하였으며 청소한 공화국의 적의 술책을 분쇄하였다。 쏘련은 씨리야와 레바논으로부터의 외국 군대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며 조선과 인도지나 인민들의 합법적 권리를 지지하였으며 유·엔에서 모로코、튜니샤、싸이프레스 기타 인민들을 옹호하여 나섰다。

쏘련은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사회적 및 정치적 제도와는 관계 없이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쏘련 인민은 모든 국가들과 인민들 간의 관계의 기초로 되여야 할 유명한 五개 원칙을 제기한 아세아의 두 큰 국가들인 중국과 인도의 귀중한 이니샤티브를 열렬히 환영하며 완전히 지지하고 있다。 쏘련과 인도 정부 수뇌자들의 공동 성명에서 재삼 진술된 이 원칙들은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즉 (一) 상대방의 령토 완전과 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 (二) 불가침。 (三) 상대방 내정에 대한 불간섭。 (四) 평등 및 호혜。 (五) 평화적 공존。

이 五개 원칙들은 평화 위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새 전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광범하고 유익한 국제적 협조의 전개를 위한 전체 인민들의 공동 투쟁의 확고한 기초로 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세아와 전 세계에서 더욱 많은 지지자들을 획득하고 있다。

동방의 큰 국가들에 의하여 五개 원칙이 엄숙하게 선포된 사실은 국제 문제에서 아세아가 놀고 있는 그 새롭고 거대한 역할을 표현하였다。 이 원칙들은 그들의 사회 경제 제도의 차이와는 관계 없이 평화 유지와 자기의 민족적 권리의 수호에 동일하게 관심을 가진 모든 아세아 제국의 지향에 부합되고 있다。

새로운 아세아는 그의 증대되는 영향과 아세아 제국

의 자주적인 권리에 부합되게 모든 국제 기구들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정당하게 노력하고 있다。 아세아 인민들은 중국에 대한 불공정한 현 사태를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세아 인민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을 평화와 민족 해방 운동의 성새로 보면서 유•엔에서의 그의 권리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야 전국 평화 옹호 대회의 특별 결정에는 유•엔에서의 인민 중국의 권리의 회복을 요구하였다。 인도네시야 공화국과 기타 아세아 제국의 저명한 국가 활동가들은 이와 같은 성명을 수차 발표하였다。 인도、비르마、월남에서 이 요구는 신문 지상에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각종 군중 대회와 집회들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도 수상 쟈와하를랄 네루와 인도 정부의 많은 각료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권리의 회복을 거듭 요구하였다。『유•엔은——네루는 말하였다——공산주의 중국을 가입시키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어느 누구도 국제 관계에서 적극적 력량으로 되고 있는 수백만 아세아 사람들의 합법적 권리를 끝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국제 문제에서의 새로운 아세아의 역할과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통일을 위한 아세아 인민들의 노력의 장성에 관해서는 一九五五년 四월 반둥에서 개최된 二九개 나라들의 아세아 및 아프리카 회의가 실증하여 주고 있다。 이것은 동방의 력사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현상이였다。 오래 동안 외국 자본가들에게 예속되였던 두 대륙의 대표들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뫼여 앉았다。

반둥 회의의 제 결정은 동방 인민들의 통일의 장성과 평화와 친선、진보에 대한 그들의 노력의 훌륭한 시위이다。 대회는 민족적 독립과 매개 나라들의 리해 관계를 고려하는 기초 우에서의 경제적 협조에 관한、또 상업의 확대、기술적 성과의 교류 등등을 포함하는 호상 원조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문화적 협조、인권 및 자결、예속국 인민들의 문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전반적 평화와 협조에 관한 선언 등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예속된 모든 아세아 및 아프리카 인민들의 해방을 위하여 화란에 강요 당하고 있는 서부 이리안 (뉴•기니야도의 서부)에 대한 인도네시야의 권리와 자결과 독립에 대한、모로코、튜니샤、알제리야 및 아프리카의 뒤떨어진 나라들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결정적으로 주장하였다。대회는 협조와 평화에 대한 지향으로부터 출발하여 군비 축소와 핵 무기의 금지를 호소하였으며 평화와 진보를 위하여 인민들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상설 서기국을 창설하였다。

대회는 동방에 조성되고 있는 정치 정세를 반영하였

다。 민족 해방 투쟁이 오늘과 같이 앙양된 조건 하에서만、수백만 사람들을 운동에 끌어 넣은 결과에 의해서만 이러한 대회를 소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회는 군비 확장과 새 세계 전쟁의 준비를 바대하여 나서면서 평화의 강화와 국제、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위업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대회에서 선포된 각이한 정치적 체계를 가진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의 원칙들은 아세아 제국의 국제적 지위의 강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평화의 강화와 국제적 협조에 호상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접근을 촉진하고 있다。 최근 몇달 동안의 사변들은 반둥 회의 결정의 거대한 중요성을 확증하였다。

커다란 국제적 사변은 금년 六월에 인도 공화국 수상 쟈와하를랄 네루의 쏘련 방문이였다。 네루와 쏘련 정부 지도자들과의 상봉 및 느•아•불가닌과 쟈와하를랄 네루의 공동 성명은 인도와 쏘련 인민들을 더욱 접근시켰으며 평화의 강화와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사업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두 강대국의 인민들의 이름으로 느•아•불가닌과 쟈와하를랄 네루는 공동 성명에서 인도와 쏘련과의 관계는『친선과 호상 리해의 확고한 토대 우에 행복스럽게 놓여 있다』고 강조하였다。 량국은 국제 문제들의 평화적 해결과 모든 대소 국가들의 독립을 위하여、경제적 및 문화적 련계의 강화를 위하여、군비 축소를 위하여、유•엔에서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합법적 권리의 회복과 대만도에 대한 중국의 권리의 충족을 위하여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헌은 평화와 인민들의 안전에 관한 깊은 배려로써 일관되고 있다。 그것은 각이한 사회적 체계를 가진 국가들의 평화적、친선적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은 무엇보다도 먼저 쏘련과 인도가 국제 무대에서 공동적 노력으로 단합되고 있는 그 공통점 즉 평화 애호 및 친선의 사상、수 많은 사람들의 복리에 대한 배려、호상 원조하려는 고귀한 지향、전 인류의 자유와 번영에 대한 념원을 반영하고 있다。 호상 원조와 실무적 협조의 리념은 평화、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모든 대외 정책에 부합되고 있다。 자체의 산업을 창설하며 자기 국가의 경제를 강화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지향은 사회주의 진영 인민들의 진정한 동정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 간의 통상 및 문화 관계의 가일층의 확대를 촉진시키고 있다。

최근 년간에 쏘련은 아세아 제국 특히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과 실무적 련계를 확대하였다。 쏘련은 중화 인민 공화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많은 크레디트를 주었으며 중국에서 一五〇여개의 공업 시설들의 건설 및 재건에 참가할 데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산업、운수 및 농업을 위한 전문가 양성 사업에서 이 나라들에게 방조를 주고 있다。 쏘련은 월남 민

주 공화국 주민들의 생활 수준 제고와 경제 복구를 위하여 무상으로 四억 루블리를 배당하여 주었다。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은 아세아 국가들도 포함하는 미개발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구라파와 아세아의 모든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은 어떠한 정치적 조건이 없이 호혜의 기초 우에서 뒤떨어진 아세아 국가들과의 통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나라들에서 잉여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그 나라들에 설비품、원료들을 주고 있으며 크레디트와 기술적 원조를 주고 있다。 쏘련은 유·엔에 창설된、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에 대한 기술 원조 폰드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거액의 금액을 배당하며 경험 교환을 위하여 전문가들과 쏘련 대학들에서 교육을 위하여 대학생들을 초청하고 있다。 례하면 인도 전문가들의 큰 그루빠는 금년 六—七월에 쏘련에 체류하여 발전소 및 관개 시설망 건설에 대한 쏘련의 경험을 연구하였으며 아세아 및 원동의 지질학자들과 광산 기사들의 그루빠는 八월에 쏘련을 방문하여 쏘련 광업 기업소들의 사업을 견학하였다。

호혜와 평등에 기초한 친선 관계의 모범으로 되는 것은 一九五五년 二월 二일부로 체결된 쏘 인 조약이다。 이 조약에 의하여 쏘련은 인도에 특혜의 장기 크레디트에 기초하여 년산 一백만톤의 강철을 생산할 수 있는 대야금 공장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쏘련은 아프카니스탄에 두 개의 대규모의 곡물 창고、제분소 및 제빵 공장 건설을 방조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야는 원료와 교환부로 방직、제화、고무 공업、디젤、자동차、변압기용 설비들을 인도네시야에 제공하고 있다。 루마니야는 쎄멘트 공장을 건설하도록 인도네시야를 방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의 경제、문화적 련계의 확대는 독자적 발전의 길에 들어선 아세아 국가들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적 독립과 인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촉진하고 있다。

二〇세기의 사변은 식민지 체계가 붕괴되고 그 위치에 식민지적 철쇄로부터 광명과 완전한 해방을 위한 전진을 꾸준히 열망하는 새롭고 청소한 아세아를 장성시키고 있다。 아세아에서 강력한 인민적 력량이 제고되였다。 인민 대중들의 투쟁은 과거의 쓰라린 유물—식민주의를 철페하면서 전 세계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다。 자기 투쟁의 첫 성과에 고무된 아세아 인민들은 보다 완강하고 결정적으로 민족적 독립과 세계 문명 발전에 거대한 역할을 노는 자기들의 위대한 문화를 부흥하고 있으며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참고자료

근세 조선의 진보적 사상가 연암 박 지원

신 구 현

一九五五년 一〇월 二〇일(음력)은 근세 조선의 탁월한 사상가이며 작가인 연암 박 지원의 서거 一五〇주년이 되는 날이다。

연암 박 지원은 조선의 사상사와 예술 문학사에서 뚜렷한 자리의 하나를 차지한다。 탁월한 학자이며 작가인 그의 사상은 一八세기 조선 농민의 해방 운동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박 지원은 그의 다방면적인 활동으로써 조선 력사에서 보기 드문 재질과 독창성과 대담성을 충분히 뵈여 주었다。 지나간 조선 력사에서 우리는 탁월하고 재능 있는 조상들의 활동을 많이 눈주어 볼 수 있으나 연암 박 지원과 같이 탁월한 사상가이며 작가이며 정론가이며 사회 활동가로서의 영예를 한몸에 지니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은 보기가 아주 드물다。 그는 자기의 선행자들의 견해들을 一八세기 조선의 력사적 현실에서 일층 발전 심화시키였다。

박 지원은 수백만 농민 대중의 심정을 충실히 간직한 사람이며 그들의 근본적 리해 관계를 반영한 사람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인민에 대한 충직한 복무자로 자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민의 무궁 무진한 력량을 전적으로 믿어 마지 않았다。 사랑과 존경으로 충만된 심정으로 그는 억압 받는 인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상에서 소위 쓸 모가 있다는 자는 실지에서는 쓸 모가 없고 세상에서 소위 쓸 모가 없다는 자는 실지에서는 쓸 모가 있다』。

박 지원의 전 생애에 걸친 활동은 강력한 창조력을 지니고 있는 자유 애호 인민의 해방 투쟁과 관련되고 있다。 이미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박 지

원의 시선은 인민에게로 향하여졌다。 그는 인민의 자유 행복을 위하여 나섰으며 봉건적 폭정을 반대하여 나섰다。

박 지원은 봉건적 전제 제도가 지배하고 있었으며 국가、사회 생활에서 봉건 관료들이 활개를 치며 싸대고 있던 그러한 시기에 바로 그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으며 이 투쟁에서 탁월한 통찰력과 대담성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여실히 발휘하였다。 박 지원이 탁월하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박 지원의 세계관의 형성 과정

새로운 사회적 사상과 학설은 사회의 물질적 생활 발전의 제 요구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조선 봉건 사회에서 그 경제 기구와 그의 정치적인 상부 구조로서의 전제 정치가 사회 발전의 질곡으로 되였으며 인민의 생활을 극도로 불행의 구렁에로 몰아 넣게까지 위기에 직면한 시기는 바로 一七——一八세기부터였다。

당시 조선의 봉건적 전제 제도는 당해 시기의 생산력 발전을 방해하였다。 그 성격에 있어서 농노적이며 봉건적인 생산 관계는 발전하기 시작한 생산력과 대립되게 되였으며 그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그러나 객관적 현실은 봉건 제도의 파괴와 생산력 발전에 필요한 조선인 새로운 제도의 창설을 요구하였다。

一七——一八세기에 와서 토지 문제는 사회 여론의 초점으로 되였으며 심지어 일부 봉건 지배층까지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현존 제도를 만족스럽게는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 생산력과 낡은 생산관계 사이에 장성하여 가는 모순에 기초하여 현존 제도개혁에 대한 진보적 사상이 발생하게 되였다。 그 시기에 봉건적 현존 제도에 대한 개혁에 크나큰 리해 관계를 가진 것은 무엇보다도 농민 대중이였다。그러나 분산된 농민들의 진출은 농민 혁명으로 전환될 수 없었다。 당시 농민들 속에는 『보다 훌륭한』 왕도(王道) 정치에 대한 환상이 지배하고 있었다。 상업 및 화폐 경제의 발전과 관련하여 부르죠아적 력량이 움트게는 되였으나 그도 역시 미약한 형편이였으며 그나마도 리조 정부의 통제 하에서 봉건주의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었다。 이들은 봉건 통치배들의 억압과 착취에 대하여 때로는 불평을 표시한 것만은 사실이지마는 현존 제도 개혁에 대하여서는 그다지 큰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그 시기에 있어서 조선 사회 발전과 인민의 생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린 것은 량반 출신의 진보적 지식 분자들이였다。 이들을 우리는 『실사구시학파』라고 불러 왔다。 이들은 봉건적 전제 제도가 조선의 민족적 발전의 리해 관계에 대치된다고 생각하였다。

실학파들의 세계관 형성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은 一

五九二——一五九八년의 조국 전쟁과 一六二七년 및 一六三六년의 청나라 군대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투쟁이였다。 이 전쟁들에서 조선 인민은 조국을 위하여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웠으며 자기의 위대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이러한 전쟁들과 이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비등된 애국심은 조선 인민의 민족적 자의식 발전에 있어서 현저한 역할을 놀았다。

그러나 이 전쟁들은 다른 한편으로 봉건적 전제 제도의 제 모순을 적라라하게 폭로시켰으며 첨예화시켰다。 이들 전쟁 행정이 끝난 一七세기 후반기의 사회—정치적 형편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반동이 강화되여 인민에 대한 봉건적 억압이 강화되고 다른 편으로는 진보적 기분을 가진 량반 출신의 젊은 지식층이 자기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날카로운 주의를 돌리고 실지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직접 목격하고 이에 직접 참가한 사람들에게서 민족적 감정이 증대되여 갔다。

젊은 진보적 지식층들은 비분 강개하여 현존 제도를 비판하고 량반 관료들의 횡포를 반대 항의하여 나섰다。 현존 제도에 대한 비판、그에 대한 불만의 앙양은 그들에게 새로운 리상을 찾게 하였다。 그들은 이 새로운 리상의 탐구를 위하여 정치、력사、경제、철학、문학 등등의 연구에 몰두하였다。

실학파들의 세계관 형성에 있어서 중국의 선진적인 문화가 작용하였다。 이들 실학파들은 一七——一八세기의 명말 청초(明末 淸初)의 중국 문화에 주의를 돌리고 그를 배울 것을 열렬히 주장하였으며 『북학』(北學)이라는 한개의 조류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실학파들의 활동에는 허다한 제약성이 있었다。 그들은 인민과 밀접히 련결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인민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아주 무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실학파들은 인민을 각성시키는 일을 도와 주었다。

연암 박 지원의 사회—정치적、철학적 견해는 바로 실학파들의 견해의 계승 발전인 것이다。 서 경덕(徐景德)、리 익(李瀷)、류 형원(柳馨遠)、홍 대용(洪大容) 등등은 연암 박 지원의 직접적인 선행자였다。

박 지원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다 싶이 하여 그의 영광스러운 앞길을 티여 놓은 그 장인과 처삼촌은 바로 성호 리 익의 집안이였다。 박 지원은 一九세 때에 지은 처삼촌의 제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공이 나를 사랑하길 장인과 못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시와 글을 가르치였는데 과제가 엄격하여 사정을 두잖았습니다。 공을 모신지 四년이 되였습니다。 문풍은 세태와 더불어 저락되였는데 공은 그 쇠약을 극복하려 하였습니다。 오늘 글(文)이란 한퇴지(韓退之)의 뼈를 긁고 시는 두목지의 살을 발려 내는 것으로 일삼

고 있잖습니까! 저는 사람같잖아 재조는 둔하고 성질은 옹졸한 것을 공은 부축하여 이깨워 주었습니다。겨우 우매함을 면하고 이제 겨우 전진이 있으려 할 때 공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망망한 기로(岐路)에 내 뉘를 의지하여야 좋겠습니까? 고전을 읽자면 매키는 것이 허다하고 몇줄 내려 가잖아 숱한 의문으로 꽉 막히여 책을 덮고 탄식하고 비애의 눈물을 먹을 따름입니다。 내 의문을 어찌 풀며 내 게으름을 뉘 깨우쳐 주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슬픔을 억제할 바가 없습니다』。

이상 박 지원의 고백은 그의 수학(修學)에 있어서 처삼촌의 영향이 아주 크며 그가 일찍부터 『실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론증하는 것으로 된다。

박 지원은 류 형원을 후일에 그의 단편 소설 『허생전』에서 『일국의 군대의 식량을 능히 조달할 수 있는 인재』로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세계관 형성에 있어서 류 형원의 영향도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홍 대용은 년치로 보아 네살 차이는 있지만 박 지원의 훌륭한 스승이며 학우로서 박 지원의 사회—정치적、철학적 견해의 형성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박 지원은 홍 대용 묘명지(墓銘誌)에서 『덕보(德保)(홍 대용——필자 주)는 모든 것에 통달하고 민첩하며 겸손하고 아량이 있다。 그 식견은 심원하고 그 리해는 아주 정밀하다。 특히 천문、지리에 밝았는데 그가 만든 지구의(地球儀) 등은 로심 초사와 슬기로운 지혜의 결과인 것이다。처음 서양 사람은 지구가 둥굴다는 것을 말은 하였으나 지구가 돈다는 것은 말하잖았다。덕보는 일찍 지구가 일전하여 一일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 학설이야말로 아주 심오한 것이다。 아직 저서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 만년에 자신 지전설을 믿어 의심을 두잖았다』라고 하였으며 『곡정 필담』에서는 『나는 그 (홍 대용——필자 주)의 지전설을 믿어 의심찮았다。 그는 일찍 내가 대신하여 그 학설을 저작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는…무사분주하여 이를 실천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사정은 홍 대용이 박 지원의 사회 정치적、철학적 견해에다 과학성을 부여하는 영향력으로 되였음을 의미한다。

박 지원의 사회—정치적、철학적 견해에 있어서 귀중한 것은 그의 현실성과 실천성인 것이다。 박 지원의 제 견해는 一八세기 력사적 현실의 반영이며 실지 생활에서 그가 얻어낸 경험의 총화인 것이다。 한 가지 례로서 천문학에 관한 박 지원의 해박한 지식은 구라파 자연 과학의 달성을 그냥 맹목적으로 압종하고 인정한 결과가 아니라 일상적인 실험의 결과이다。 이 사정을 박 지원은 『열하 일기』의 『알성 퇴술』(謁聖 退述) 관상대(觀象台)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친구 정 석치(鄭 石痴)는 대를 쪼개여 손수 여러 기계를 제작하였다 …홍 덕보와 같이 석치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두사람은 서로 황도(黃道)와 적도(赤道)、남극과 북극을 론의하는데 혹은 머리를 흔들고 혹은 턱으로 좋다고 한다。 그 학설이 모두 심오하고 알기 어렵다。 량인은 새벽까지 등불을 놓고 마주 앉아 있었다』。 그의 선행자들의 견해에서 볼 수 있었던 공상적인 요소는 박 지원에게 있어서는 극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一八세기 조선의 물질적 생활의 발전과 대중적인 농민운동의 영향인 것이다。 박 지원은 一七九四년 六三세의 로령에 지은 로작 『과농 소초』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의 집안은 천빈하여 전장이란 없었다。 따라서 서울을 도회지에서 자라난 나는 눈으로 콩과 보리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다。 조부의 관록으로만 살아 왔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 붉게 썩은 베를 뜰악에 심어 놓고 그것이 크기만 기다린 적도 있었다。 좀 철이 들면서 선비들을 따라 공부라고 하느라고 농민들에게 접근할 겨를아 없었다。 중년에 불우한 생활을 하면서부터 농촌에 돌아 가고 싶은 생각이 치밀어 소위 농사 일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 농사에 관한 것을 벳기여 두기도 하였으나 사절인즉 전장이 없어 갈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다만 농사 과학을 연구하고 붓으로 농사를 지었을 뿐이였다』。

이는 일찍부터 현실 문제、농민들의 생활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과 그의 사회—정치적、철학적 견해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그의 꾸준한 투쟁 행정에서 형성 발전되여 갔다는 것을 확증하여 준다。 박 지원이 二一세 때에 지은 소설 『민옹전』은 이러한 사정을 더 한층 뚜렷하게 확증하여 준다。

『종로 앞길에 꽉 차 있는 황충들은 모두 길이가 일곱자 이상이며 머리는 검고 눈알을 반짝거리며 아가리는 주먹을 넣어 휘두를만큼 큰 것들이 왁자지껄 짜다니는데 발굽치를 맞대고 궁둥이를 부벼대는데 농사를 해치고 곡식을 축내는 것이 이 놈보다 심한 게 없소。 나는 이 놈들을 잡으려 하여도 잡아 널만한 큰 바가지가 없소그려!』。

이 유령은 두말할 것 없이 기생충적인 봉건 사대부들이다。 박 지원이 일찍부터 농민 생활에다 그 얼마나 깊은 리해 관계를 기울이고 있었는가를、그의 립장과 태도가 얼마나 전투적이였는가를 우리는 확증할 수 있다。 박 지원의 이러한 실천적이요 견실한 태도는 그 자신의 실천적인 사회—정치적、철학적 견해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였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박 지원의 사상의 형성 발전은 국제적 환경과도 련관되여 있다。 一八세기는 대체로 구라파에서 낡은 봉건적 농노 제도가 청산되던 시기이며 새로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확립되던 시기였다。 브·이·레닌이 말한바 『부르죠아지의 대두의 시기、그의 전승 시

기、낡아 빠진 봉건적—전제적 기구의 급속한 붕괴 시기」(전집 二二권 一二六페지)인 것이다。一五——一六세기를 결치여 一八세기에 이르는 력사적 행정에서 구라파가 달성한 자연 과학의 제 분야——천문학、력학、물리학、수학——의 탁월한 제 성과가 중국을 통하여 조선에 보다 많이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이 연암 박지원을 자극하였던 것이다。

박 지원은 그의 선행자들의 뒤를 이어 일찍부터 「북학」을 주장한 사람의 하나였다。이때 「북학」이란 선진적 중국 문화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구라파 선진 문화까지 배워야 되겠다는 하나의 사상상 조류였다。「곡정 필담」에서 박 지원은 이러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극동에 있고 구라파는 태서(泰西)에 있다。극동의 사람으로서 태서 사람을 한번 만나고 싶다。…이제 일단 조국으로 돌아 가면 다시 중국에 오기가 어려울 것이다。이제 다행히도 유명한 분들과 교제하여 많이 배우고 듣고 하여 나의 큰 소원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태서의 먼 손님을 맞나볼 길을 찾지 못하였다。이는 내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다」。

「곡정 필담」및 기타 저서에서 볼 수 있는 구라파와 그 자연 과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아울러 이 고백을 생각하여 볼 때 일찍부터 박 지원이 구라파 자연 과학에 흥미를 가지였고 또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박 지원의 사회—정치적、철학적 견해는 이상과 같은 조선 사회 사상 발전의 력사적 행정에서 준비되였다。

박 지원의 사회 정치적 견해

박 지원은 전 생애를 통하여 봉건적 전제 제도와 봉건 사대부들의 타협할 수 없는 적대자로 등장하였다。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박 지원은 인민의 억압자들을 반대하여 소리 높이 웨치였다。

박 지원이 사회 정치적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농민의 생활상 문제는 보다 신랄하게 론의되였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타 문제들도 제기되였다。

농민 운동과 사회적 여론에 견디지 못하여 리조 정부는 이에 귀를 기울이고 소위 「개혁」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농서」라고 하여 농민 생활 개선에 관한 개혁안들을 널리 구하였다。이 문제가 어찌나 절실한 문제였던지 四〇인이나 이에 호응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초야인(草野人)이였다。농민 생활 문제 개선에는 두개의 로선이 있었는데 하나는 봉건 통치배들의 반동적 로선이요、딴 로선은 박 지원도 포함한 일련의 선진적 학자들의 로선이였다。봉건 관료들은 말로써 「노비법」、「군포법」의 개혁이니、「대용법」、「균여법」의 전면적 실시니 떠들어 대기는 하였으나 진실한 농민 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제 제도와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를 고수하려고 하였다。박 지원은 이러한 반동적인 개혁안들과는 달리 아주 진보적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一七九九년 三월 三〇일에 「과농 소초」에 일련의 안설(按說)을 첨부하여 제출한 「한민 명전의」가 바로 이를 실증하여 주는 것이다。박 지원은 이 개혁안에서 우선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의 략탈적 성격을 폭로하였다。

「…농민들 속담에 한 해 농사가 소금 값도 못찬다라는 말이 있는데 항차 현재 농민 가운데서 자기 발을 제손으로 가는 사람은 열에 한 두집도 못되고 그밖에 국세로 一〇분의 一을 내고 사세(私稅)로 반분을 내니 이를 도합하면 一〇분의 六이나 된다。인민이 농사일에 조예가 깊고 부지런히 게으름없이 一결(結)二부(負)의 모고치 땅을 알뜰히 다룬다 할지라도 실지 나머지 곡식이란 겨우 절량을 면할 정도인데 여기서…태반이나 줄어 가게 되니 어찌 우로 부모를 모시며 아래로 처자를 거느릴 수 있겠는가? 결국은 유리 분산하여 길가에서 굶어 죽잖을 수 없는 것이다」。

박 지원은 기아 선상의 농민들이 소작인으로 농노적 처지에 빠져 들어 가는 행정을 깊은 동정을 가지고 자세히 묘사하였다。

「도대체 사람에게는 입고 먹는 것 이상…큰 일이 없다。혹은 빚에 몰리고 혹은 손해를 입어 속수 무책일 경우에 (그들은 속으로) 여간한 농토로는 더 잘 살 수 없으며 그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금 처지보다 더 가난해질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부호의 집이야말로 자기들을 못 살게 하는 장본인 줄을 모르고 다투어 밭을 값쳐 바치는 것이다。부호는 일부로 그 값을 후하게 하여 잘 되여 오도록 한다。일단 밭을 차지한 다음엔 인차 소작을 주어 짐짓 그 마음을 위안하여 주는체 한다。빈농민은 이미 일시적인 후한 값의 리득을 보았으며 또 전에 자기 땅에서 얻던 소출의 반분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이로 인하여 토지 가격은 날로 올라가 부근의 손 바닥만한 뙈약밭까지도 모두 부호의 집으로 돌아가고 만다」。

박 지원은 착취자들을 대담하고 무자비하게 비판하여 나섰다。그는 빈농민의 토지를 겁탈하는 부호들을 「도적놈의 심보가 있는 죄인」이라고 락인하였고 이러한 사태를 보고도 아주 무심한 위정자들을 「수토분우(守土分憂)의 대의를 저바린자」라고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오늘날 사태로 미루어 보건대 소위 호부의 겸병은 아주 무시무시하여 이를 제지치 못하니 사람다운 사람이 어찌 있다고 하겠는가? 조상 전래의 직업을 지키여 토지를 사람에게 팔지 않는 자는 십중 다섯이 있을까 말까 하고 해마다 토지를 박탈 당하여 마지 않는 자는 십중 팔구는 되니 농민의 토지를 겸병함으로써

부를 축적하는 자의 수도 그 얼마인가를 가히 알 수 있다』。

연암 박 지원의 토지 개혁안은 현실에 대한 이상과 같은 심각한 분석에 기초하여 작성되였다。

박 지원의 개혁안은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토호 렬신들의 겸병을 폐지함으로써 농민이 토지에 안착하여 농사에 힘쓰게 하자는 데 있다。 박 지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공포하기를 모년 모월 이후부터는 이 한정된 토지 외에 더는 가지지 못한다。 법령 이전의 것은 비록 그것의 다소를 불문하고 그 자손들이 이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만일 숨기여서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법령 발표 후에 한정된 토지 외에 더 많이 가진 자가 있어 인민자신이 이를 적발하면 인민에게 분여하며 관청에서 적발하면 관청에서 몰수한다。 이렇게 하면 불과 수십년이 못되여 국내의 전체 토지가 균등하게 분배될 것이다』。

박 지원의 견해에는 계급 사회의 불상용적 모순에 대한 몰리해로부터 오는 제한성이 나타나 있다。 그는 인민 대중의 이니샤티브로써가 아니라 우로부터、즉 법령으로써 토지가 농민에게 균등하게 분여될 수 있다는 것을 공상하였다。 이는 확실히 박 지원의 세계관의 제한성이며 력사적 제한성이였다。 그는 봉전 지주가 인민을 못살게 하며 그를 용납하는 사회 제도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나 그 사회의 계급적 불상용성을 리해하지 못한 데로부터 혁명적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박 지원의 개혁안은 그 시기로 보아 진보적인 문전이다。 박 지원은 봉전적 토지 소유를 반대하고 인민이 토지를 균등하게 점유하는 데서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우리 나라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려고 하였다。

박 지원은 토지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정당한 일이며 불가피한 것으로 확신하였다。 이 점에서 연암 박 지원은 선행자들의 견해보다 선진적이다。

『단성(丹盛) 현감 리 후(李 候)에게 대답하여 진정(賑政)을 론하는 글』에서 박 지원은 주림으로 관청에 쇄도하여 항의하는 천백의 농민들을 보고 『그 얼굴이 수척하고 몸에는 누더기를 걸친 주린 농민들은 오른 손에 쪽박을 들고 왼 손에 오망자루를 들었는데 그 모양은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다。 그들은 허리를 구부리고 뜰에 들어와 제멋대로 법석 야단을 하니 감히 누가 이 것을 막을 것인가?』(방점——필자)라고 하였으며 『술한 남녀들이 늙은이는 부축하고 어린 것들은 손에 잡고 혹은 문짝을 탕탕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혹은 왁자지껄 고아대면서 도무지 꺼리끼는 빛이 없다』(방점——필자)라고 하였으며 『그 주린 모양이란 모두 기진 맥진하여 막 쓰러질 지경인데 그 기세는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하다』(방점——필자)라고 하

였다。

『순찰사에게 대답하여 진정을 론하는 글』에서 박 지원은 인민을 포대기에 싸인 간난 아이에다 비교하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포대기에 싸인 간난 아이가 자잖고 우는 것은 하소연할 수 없고 생각하여 그 소원을 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울음 소릴 듣고 젖을 줄 줄 아는 것은 오직 그 어머니며 젖 가슴을 더듬어 울음을 그치는 것은 젖이 있기 때문이다』。

박 지원의 견해에 의하면 농민들의 폭동은 젖을 찾아 우는 간난 아이와 같이 불가피한 것으로 위정자들은 『그 뜻을 받들어야 하지 호령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이상 박 지원은 류 형원이라든가 리 익 등등의 선진 사상가의 경우와 같이 공상가였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라서 박 지원은 농민의 립장에 립각하고 있으며 그들의 리해 관계를 철저히 옹호하고 있었다。

류 형원과 리 익도 포함하여 박 지원의 선행자들에 있어서는 계급 사회의 불상용적 모순에 대한 몰리해로부터 오는 허다한 제한성、허다한 모순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항상 전체 계급의 립장에서、전체 인간의 리념으로써 봉전적 경제 제도를 비판하였으며 그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실례로 류 형원의 전제 개혁안만 보더라도 거기에는 농민과 함께 기타 사회적 계층이 토지를 분여 받는 데 유생과 직관은 농민보다 훨씬 더 많이 토지를 받게 되여 있다。 그러나 박 지원에게 있어서는 지주들의 무한정한 토지 소유를 부정하고 토지 없는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분여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박 지원의 선행자들의 개혁안에는 확실히 모순이 개재하여 있다。 그들은 두 개의 대립된 것의 조화 즉 국가적 소유 원칙과 개인적 소유 원칙의 조화를 공상하고 있다。 류 형원의 견해에는 국가적 소유의 기초 우에서 전체 계급에게 토지를 분배 또는 회수하는 경향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전지의 일부를 한 농민의 영업전(永業田)으로 한정하고 그것의 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성호의 균전제(均田制)도 본질적으로 류 형원의 견해와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박 지원의 견해는 『한민 명전의』 내용이 뵈여 주다 싶이 당해 물질적 생활에 대한 심오하고 과학적인 분석으로부터 이룩된 것이며 어디까지나 농민들의 리해 관계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서야 겸병자가 종식되고 겸병자가 종식된 후에야 산업이 고루 발전하며 산업이 고루 발전한 후에야 인민은 다 토지에 안착된다』。

즉 그의 토지 소유 제한론은 결국 봉전적 토지 소유 관계를 개선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인민의 생활

을 향상시키는 대책인 것이다。

박 지원의 철학적 견해

연압 박 지원은 근세 조선의 탁월한 사상가의 한 사람이다。 조선 사회의 개혁에 대한 정치적 과업은 연압 박 지원으로 하여 유물론적 견지에 접근하게 하였다。

박 지원의 철학적 견해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실학파들의 우수한 전통과 중국을 통하여 조선에 소개된 구라파 자연 과학이였다。

박 지원의 철학적 견해는 봉건 전제 제도에 대한 랭혹한 비판과 관련되고 있다。 봉건 전제 제도를 합리화하는 유교——주자의 성리 학설은 박 지원에게 있어서 무자비한 비판의 과녁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박 지원의 철학적 견해는 이 관념론적 철학과의 줄기찬 투쟁에서 발전되였다。

이러한 실천적、당면 과업이 박 지원으로 하여 철학적인 제 문제 연구에 접근케 하였다。

박 지원의 유물론적、철학적 견해는 많은 정론 가운데、문학 작품과 문학 비평 가운데、선진적인 사상가들의 작품에 대한 수기 가운데、편지 가운데 반영되고 있다。

이들 작품들에서 박 지원은 철학상 기본 문제들을 유물론적 견지에서 보면서 객관적 실재와 물질적 세계 및 자연의 一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박 지원의 유물론적 견해는 특히 『곡정 필담』에 반영되고 있다。

곡정 기 풍액은 그 당시 중국의 유명한 학자였다。 곡정이 박 지원의 월중 세계에 대하여 반문하여 『만일 달 가운데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는 어떠한 것인가?』고 물었다。 이에 대하여 박 지원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진계(塵界)로써 저 월 세계를 미루어 보면 그 역시 물질이 쌓이고 모이고 엉키여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지금 대지가 「먼지」와 같은 아주 작은 립자(粒子)의 집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다。 립자가 서로 의존하여 엉키여 흙이 되고 굵으면 모래가 되고 굳어 돌이 되고 흘러 물이 되고 덮이여 불이 되고 맺히여 금이 되고 피여 나무가 되고 움직이여 바람이 되고 찌여(蒸)기운이 막히면 뭇 벌레로 화한다。 지금 우리들도 벌레의 일종이다』。

박 지원의 견해는 현대 과학으로 보아서는 소박하다기보다 유치한 데가 있다。 그러나 당해의 력사적 시기로 보아서 소박하나 아주 혁명적인 데가 있다。 즉 그것은 우주 형성을 신의 힘으로 설명하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으며 접근할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존엄한 것으로 보아 오던 중세기적 견해가 지배하던 시기에 있어서 박 지원은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이를 『먼지』라는 물질로써 설명하였으며 무기물로부터 유기체의 생성을 공상하였기 때문이다。

박 지원은 또한 관념론이 인정하듯이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하지 않았다。 인간——이는 자연의 일부분이라고 박 지원은 인정하고 있다。

박 지원은 이상에서 역시 물질의 상호 의존、상호 제약、그의 부단한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

물질의 운동에 관한 박 지원의 견해는 역시 지구에 관한 곡정과의 담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천원 지방』(天圓 地方)이라 하여 지배 계급들의 관념론적 종교 사상과 밀접히 관련되여 있는 천동설이 강요되여 오던 시기에 박 지원은 지구가 구형이라는 것과 지구가 회전한다는 학설을 확신하고 주장하여 나섰다。 『우리 학자들은 요사이 와서 지구설을 아주 믿고 있다。 천원 지방과 천동설은 우리 학자들의 생명인데 서방 사람이 이를 문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는 곡정의 말에 박 지원은 자연、물질 쳐 놓고 둥굴지 않은 것이 없고 둥근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지구 지전설에도 역시 소박하고 유치한 데가 있다。 그러나 선진적인 것은 박 지원이 삼라 만물은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에 하늘이 가만이 있고 이 지구가 움직이지도 돌지도 않고 그냥 허공에 걸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자문하면서 박 지원은 물과 흙은 썩어 흐터지고 하늘은 무너지고 말것이라고 자답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박 지원은 움직임은 생명과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선진적 견해를 뵈여 주고 있다。

박 지원은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현실 인식에서 감각、지각을 중요시하고 있다。 인간의 리성은 감성적인 감각、지각에 좌우된다고 그는 확신하는 것이다。 감각、지각의 기능이 상실될 때 그 리성은 어지러워지며 인간은 위기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창애에게 대답하는 글』에 똑똑히 반영되였다。 박 지원은 여기서 서 경덕의 고사(故事)를 인용하였다。 즉 서 경덕이 길에서 집을 잃고 길바닥에서 꺽꺽 우는 二〇세 되는 젊은 사나이를 만났다。 왜 우느냐고 까닭을 물으니까 그 사나이는 『나는 다섯살 때 눈이 멀어 지금 二〇세가 되였습니다。아침에 집을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 가랴니 갑자기 눈이 띄여 청명한 천지 만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기뻐서 막상 집으로 돌아 가랴니 논길、밭두렁은 이리 저리 뻗히고 집은 비슷하여 우리집이 어느겐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여기서 서 경덕은 그 젊은 사나이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리라 하고 눈을 감으면 곧 너의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이때 이 사나이는 눈을 감고 집팽이에 의지하여 자기 집을 찾아 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 지원은 이렇게 묘사한 후에 이는 색상(色相)의 전도와 관련하여 감정이 작용하여 리성을 어지러이 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색상이란 말은 곧 감각、지각의 기관의 하나인 시각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시각의 전도로 인하여 객관적 현실 인식을 불가능케 한 것이다。

박 지원은 이상과 같이 객관적 실재의 一차성을 지적하면서 리성적인 감정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박 지원은 이러한 감정이야말로 객관적 실재를 진절하게 인상 깊게 반영하는 무기로 보고 있다。

무연한 허허 벌판인 료동 평야에 첫 발을 내여 디딜 때에 위대한 자연이 준 인상적인 감정을 『열하 일기』에서 묘사하면서 박 지원은 『아! 통곡할 장소에서는 꼭 통곡하여야 한다!』라고 웨쳤다。 이 통곡이야 말로 위대한 실재 앞에서 리성적 감정의 폭발인 것이다。『소리가 천지에 가득차 있다』라고 박 지원은 말하고 있다。 이 소리란 객관적 실재에서 인상의 리성을 정당하게 전달하는 희(喜)、노(怒)、애(哀)、락(樂)、애(愛)、오(惡)、욕(慾)이라는『우뢰』에 비할 수 있는 인간의 칠정의 폭발 소리인 것이다。이 소리는 인간의 리성적 감정이 작용하여 객관적 실재와 일치될 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소리、『수족을 펴고 맘과 뜻을 트이게 하는』『참된』인간의 목소리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참된 소리를 박 지원의 로작들에서 어디서나 찾아 볼 수 있다。 박 지원의 작품이 독자들에게 주는 인상은 이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박 지원은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객관적 현실의 인식에 있어서 감각、지각、감정의 의의를 항상 중요시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박 지원은 인간 리성을 억누르는 관념론적 주자 성리 학설의 형식주의와 위선을 극도로 미워하는 것이다。 이 실례로서는 그의 미학적 견해에서 언급되겠지만 우선 한 가지 사실만 들겠다。

역시 『창애에게 대답하는 글』에서 박 지원은 동리 어린 아이가 『천자문』을 배우는 데 어찌나 염증이 났는지 『하늘은 보면 창창한 데 하늘 천자(天字)는 푸르지 않다』라고 한탄하였다는 이야기다。 박 지원은 이야기 끝에『이 아이는 총명하여 창힐(蒼頡)(처음 한자를 지었다는 인물)을 굶어 죽이게 하였다』라고 쓰고 있다。 이는 어려서부터 인간 리성을 쪼들리게 하는 주자 성리 학설에 대한 증오의 표현인 것이다。

객관적 실재에 대한 박 지원의 유물론적 견해는 그로 하여금 종교 일반과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신론적 태도를 취하게 하였다。

연암 박 지원의 무신론적 태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종교에 립각하고 있는 봉건 전제 제도를 반대하는 투쟁과 관련되고 있다。 박 지원의 무신론적 립장은 그의 선행자들의 진보적 전통의 계승으로도 된다。 조선 사회 사상사에서 그의 무신론적、반종교적 립장을 명확하게 취한 사람은 성호 리 익일 것이다。 그는 『천주실의 발문』이란 로작에서 천주교에 대하여 『천주라는 것

은 유교의 상제에 해당한 것이며 그를 경전하게 섬기고 두려워 하고 신앙하기를 불교가 석가무니에게 하듯한다』라고 하면서 그 (리마두) 가 철저히 불교를 배척하였으나 자기의 천주교도 결국『불교와 같이 황망하다는데 귀착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천주교、불교와 더불어 상제를 내세우는 유교를 은연히 비판하고 있는 점이다。 내용은 일찌기 유교 학자들 간에 신앙으로 되여 오던 음양 오행설을 반대하여 나섰으며 소위 풍수설을 반매하여 죽은 송장이 산 자손의 실생활에 대하여 하등의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으며 소위 『점술』을 반대하여 『허망하여 본시 그럴 리치가 없건만도 오래 동안 믿어 온 끝에 없는 것도 있는듯 싶어 이따금 맞는 수가 있다』라고 하였다。

박 지원은 선행자들의 바로 이러한 반종교적、반미신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켰다。

박 지원은 미신과 과학을、유신론과 무신론을 엄격히 구별하고 미신과 유신론을 반대하여 나섰다。

『곡정 필담』에서 곡정 기 풍악이 홍 대용을 점술가냐고 물은 데 대하여 박 지원은 『부스(不是) 부스(不是)』하고 홍 대용이 천문가며 과학자이지 결코 점술가나 미신가는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여 나섰다。 박 지원의 반미신、반종교적 립장은 단편 소설 『민옹전』에서 표현되고 있다。『민옹전』이 박 지원의 二一세 때에 지은 것으로 보아 그가 일찌부터 종교와 미신을 반대하고 증오하는 립장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 지원은 『민옹전』에서 주인공 민옹의 입을 통하여 귀신、신선、불사약 등등 종교 미신의 정체를 통렬히 비판하였다。

민옹은 어떤 사람이 『귀신을 보았느냐?』고 묻는 말에『보고 말고요』라고 대답하고 등잔뒤 컴컴한 곳에 앉아서 환한 데를 엿보고 있는 자를 가리키면서 『여보시오! 귀신이 별게 아니요。 귀신이 저기 있소。 저이가 귀신이요』라고 서슴치 않고 지적하였다。

『여보! 산 사람을 어째 귀신이라고 한단 말이요?』지목을 당한 사람은 노발 대발한다。

『여보시오、그러실 것 무엇 있소! 옛말에 밝은 것은 사람이요、어두운 것은 귀신이라 하지 않았소! 지금 당신이 어두운 데 앉아 밝은 데를 내다 보며 얼굴을 감추고 사람을 엿보고 있으니 이것 귀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민옹은 짐즛 정중한 태도로 시침을 뚝 떼는 것이였다。

박 지원은 민옹의 말을 통하여 귀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리성을 상실하고 마음이 검은 사람、종교와 미신에 사로 잡힌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신선에 대하여서도 박 지원은 민옹의 입을 통하여 『신선은 허다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모두 신선이지요、부자는 항상 세상을 좋다고 하나 가난한 사람은

항상 세상을 싫어하니 세상을 싫어하는 자가 신선이 아니고 무엇이요?』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반종교적, 반미신적 립장을 고수하고 현존 사회 제도를 부정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정신 도덕상 우월성, 그들의 고상한 리성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무신론적 립장은 『민옹전』 외의 많은 작품 가운데 맥맥히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박 지원의 무신론적 견해 가운데는 허다한 제한성이 있는 것이다. 박 지원은 종교와 미신을 극력 반대하여 나서면서도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지배와 계급적 억압에 귀착되는 종교적 억압의 현실적 기초를 알지 못하고 있다. 박 지원은 오직 종교라든가 미신이 사회에 죄악과 불행을 가져 오는 유일한 근본적 원인으로 인정하며 낡은 봉건 제도와 더불어 존속하는 불행이 오로지 종교 및 미신과 지배 계급의 탓으로 인정하고 있을 따름이였다. 봉건적 착취 형태를 반대하면서 박 지원은 종교와 미신을 종국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폐지에서만, 착취 계급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일체 착취 현상의 청산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박 지원은 종교가 억압자들에게는 리익이 되고 인민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불행을 가져 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종교와 미신의 계급적 본질이 그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선명하지 않았다. 이는 력사적으로 불가피하였다. 종교의 본질의 폭로와 종교와의 현실적 투쟁은 오직 프로레타리아트의 세계관인 변증법적 유물론의 립장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봉건 제도 하에서 지주 관료들의 착취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혁명적 계급으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가 없는 조건에서 박 지원의 제한성은 불가피한 것이였다.

박 지원의 미학적 견해

박 지원의 공적은 특히 그의 미학과 문학 비평에 있다. 박 지원은 문학 발전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 놓았다. 그는 수다한 정론들과 수필과 편지들과 문학 비평에서 문학의 사회적, 사상적 역할과 인민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문학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의 고전적 로작인 『열하 일기』, 『충옥(忠玉)에게 주는 답장』, 『홍 덕보에게 주는 답장』, 『홍 덕보 묘명지』, 『리 덕무 행장』, 리 덕무 작 『영초고』 서문, 박제가 작 『북학의』 서문, 『방·경각 외전』 자서, 『록천관집』 서문, 『백소집』 서문, 『좌소산인에게 드림』 등등 일련의 작품들에서 관념론적, 형식주의적 미학에 대하여 결정적 타격을 주었으며 진보적인 문학 발전의 길을 개척하여 놓았다.

박 지원은 미학에 있어서 확실히 유물론적 체계에 서 있으며 예술적 방법에 있어서 사실주의에 립각하고 있다. 그는 많은 로작들에서 미학에 대한 훌륭한 견해들——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의 현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등 문제에서 유물론적 견해들을 피력하고 있다. 박 지원은 자기 창작에서 인민의 리해 관계를 철저히 옹호하는 원칙에서 객관적 현실을 심오하게 주시했으며 그 가운데서 진정한 것과 허위적인 것을 가리여 낼 줄 알았으며 이에 대하여 적당한 비판을 기하였으며 형상 창조에서 재능있는 솜씨를 뵈여 주었다.

박 지원에게 가장 흉악한 것으로 보인 것은 형식주의였다. 『아무(某)에게 주는 편지』에서 박 지원은 다음과 같이 썼다:

『시골 사람이 서울태를 내려는 것은 향암(鄕暗)으로서 이를 비유한다면 주정뱅이가 취하지 않은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박 지원은 이런 형식주의가 오래되면 습성화되고 통속화되여 조선 사람들의 고유한 아름다운 기풍, 아름다운 풍습을 말살하여 버리기도 하여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백소집』 서문에서 량반 통치배들의 극단한 형식주의는 본시 몽고의 의복 제도인 궁양(宮樣)(궁중의 의복 제도)을 다투어 차용하였기로 하여 의복에서까지 민족적인 고유미가 말살되여 버렸다고 박 지원은 지적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그러니까 조선의 고유미는 인민에게서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례의는 상실되여 이것은 인민에게서 찾지 않으면 아니되며 녀자들의 의상의 고전미는 읍기(邑妓)들에게서 보아야 하며 문장의 훌륭한 것을 알려고 하려면 우리는 통역과 같은 미천한 선비들을 대하기가 부끄럽다』.

박 지원은 미는 현실 자체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존중하고 있다. 박 지원의 견실한 미학적 견해는 그의 문학 예술 평가에 뚜렷이 반영되고 있다.

『열하 일기』의 『란하에 배 떠우기』에서 어느 사람이 산수의 자연 풍경을 바라보면서 『강산이 그림과 갈구나』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박 지원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여 나섰다:

『그대는 산수의 아름다움도 모를 뿐더러 그림이 무엇인가도 모르오. 산수가 그림에서 나왔겠는가, 그림이 산수에서 나왔겠는가? 도대체 말에는 같다(似), 답다(如), 비슷하다(類), 닮다(肖), 마찬가지다(若) 등등의 말이 있는데 이는 한 가지다라는 말을 비겨 말한 언사다. 비슷한 것을 가지고 같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같으면서 같지 않은 것이다』.

이상의 평범한 말 가운데는 미란 무엇이며 예술과 현실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예술에서 형상이란 무엇인가 등등의 중요한 미학적 문제에 대한 변증법적 해석이 주어 지고 있다. 맑스주의적 변증법적 방법은 모든 존재에 고유한 가장 일반적인 발전 법칙을 반영하는 바 따라서 인식 방법으로서의 유물론적 변증법은 현

실의 모사(模寫)라는 점에서 볼 때 박 지원의 이상 견해는 아주 선진적인 것이다。

박 지원은 미의 진실성을 관념론적 미학에서와는 달리 리념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생활、객관적 실재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론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객관적 현실의 반영으로서의 진정한 미라는 것은 현실 그대로의 복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것으로 묘사하는 데 즉 형상화에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들 밖에 사물은 존재한다。우리들의 지각과 표상은 사물의 형상이다。이들 형상에 대한 험산(驗算)진정한 것과 허위적인 것과의 분간은 실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레닌 전집』一〇권 九七페지)。레닌의 이말에 비추어 볼때에도 박 지원의 이상 견해는 맑스주의 인식론 이전의 견해로서는 아주 선진적이요 유물론적이다。

박 지원은 그의 미학적 견해를 일층 발전시키여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물질적 생활 발전의 산물이라고 론증하고 있다。 단편 소설 『예덕 선생』은 박 지원의 이러한 리념을 형상의 수법으로 묘사한 것이며 『홍 덕보에게 대답하는 글』은 이러한 리념을 론리적 수법으로 론증한 것이다。 『홍 덕보에게 대답하는 글』에서 박 지원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처리만 하면 그가 비록 도야지를 치는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나의 어진 벗이 될 것이며 옳은 것을 보고 충고하여 준다면 그가 비록 나무꾼이라 할지라도 그는 나의 훌륭한 벗이 될 것이다』。

이상 론증은 『저업행수가 똥을 치며 거름을 쳐서 생활하니까 아주 더럽다고 하겠지만 먹고 사는 길은 아주 향기로우며 몸을 굴리기는 아주 천하지만 의리를 지킴은 아주 높단 말일세、이로써 높은 벼슬에 대하여서도 미루워 짐작할 수 있네 (량반 사대부가 높은 벼슬로써 생활하니까 아주 깨끗하다고 하겠지만 먹고 사는 길은 아주 더러우며 몸 처신은 귀하지만 의리를 지킴은 아주 낮다는 뜻——필자)。이로 보아 소위 깨끗하단 속에는 깨끗치 못한 것이 있고 더럽단 속에는 더럽지 않는 것이 있네』——라는 『예덕 선생』에서의 묘사와 동일한 것으로 『아름다움이란 생활이다』라는 명제를 여기서도 이끌어 낼 수 있다。 현실에 없는 그러한 미의 기적이란 있을 수 없다。 예술에서의 미는 곧 생활에서의 미의 반영이다。

연암 박 지원은 이를 정당하게 자기 창작 사업에서 실천하였다。 우선 문학 비평에서 박 지원은 소위 량반 사대부들의 시문(詩文)이 진실성이란 추호도 없고 완전히 형식주의에 빠지고 있음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이미 一九세 때에 박 지원은 『글이란 한퇴지의 뼈를 긁고 시는 두목지의 살을 발려 내는 것으로 일 삼고 있다』라고 하여 량반 사대부들의 문학의 본질을 폭로하였다。

박 지원은 좌소산인에게 보내는 글에서 무원칙한 형식주의를 반대하고 문학 예술의 진실성을 옹호하여 나섰다。

『우리가 종종 보고 듣고 하는 사실 속에 참된 진리가 있는데 이를 하필 먼데서 취하려 하는가? 한 나라건、당 나라건 지금 세상이 아니매 우리 나라 시가는 중국의 그것과는 다르다。반고(班固)와 사마천(司馬遷)이 재생한다면 결코 옛날의 자기들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는

이상 말 가운데서 주목할 것은 박 지원이 문학에서 객관적 진리를 一차적인 것으로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학에서 예술적 정당성은 객관적 진리와 예술적 형상의 일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문학 예술의 독창성이란 객관적 진리를 아주 심오하고 훌륭하게 묘사하는 데 나타난다。 박 지원은 문학에서 이를 중요시하고 옹호하였으며 이를 부정하는 반동적 문인들의 공격과 비방을 증오하였다。 박 지원에게 리 서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한 구절이라도 조금만 새로우며 한 자라도 기묘한 데가 있으면 문득 사람들은 옛글에 이런 것이 있느냐고 물어 싸며 만일에 없다고 하면 얼굴을 붉히며 어째서 그렇게 하느냐고 시비합니다。 옛글에 있다면 내가 다시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 서구의 호소에 대하여 박 지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그대의 말이 아주 정당합니다。 끊기였던 학문을 부흥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한 말 가운데는 확실히 리 서구의 창작의 예술적 정당성을 옹호하고 온갖 형식주의를 배격하는 박 지원의 고상한 미학적 견해가 집중적으로 반영되여 있다。

새로운 것 즉 독창성을 주장하여 나선다 하여、객관적 진리를 적극 주장한다 하여 박 지원은 과거의 전통을 부정하는 허무주의자는 아니였다。 그와는 반대로 박 지원은 지나간 전통의 계승 발전을 주장하여 나섰으며 실지 문학 창작에서 이 전통의 효과적 리용을 력설하였다。

『록천관집』 서문에서 박 지원은 은고(殷固)와 주아(周雅)는 어디까지나 하(夏)—은(殷)—주(周) 삼대의 시문이지 오늘의 시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동시에 바로 오늘의 시문이 아니라는 데 이 작품들의 매력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이 작품들은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로 그 시대의 사실을 진실하게 묘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리 덕무 행장』에서 박 지원은 리 덕무의 창작을 높이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는 글을 질 때 옛 사람에게서 그 지취(旨趣)를 배웠지만은 허위지사(虛僞之辭)는 답습하지 않았다。

한자 한구가 보다 정리(情理)에 절실하게 부합되고 있으며 진경(眞境)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지취란 예술적 수법이며 진경이란 객관적 진리며 정리는 본질로서 리 덕무의 창작에서 그 예술적 정당성과 전통에 대한 그의 정당한 태도를 옹호하고 있다。

문학 창작에 있어서 전통에 대한 박 지원의 견해는 『초정집』 서문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박 지원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소위 옛 것을 본 받자 하는 사람은 그에 사로잡히여 버리는 것이 협집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사람은 길에 의거하지 않는 것이 걱정이다。 아주 옛 것을 본받되 개변시킬 줄 알아야 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되 길에 의거할 줄 알아야만 오늘의 글은 고전과 같이 좋은 글로 될 것이다』。

여기서 길이란 예술 창작의 객관적 법칙을 의미한다。 박 지원은 문학 창작에서 전통과 혁신 문제에 대하여 정당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박 지원은 미학에서 제기되는 기타 문제、 례를 든다면 예술 문학의 인식론적、 교양적 의의에 대하여서도 고상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박 지원의 문학 비평은 높은 미학적 견해와 전투적 정신으로 일관되여 있다。

박 지원의 로작에서 문학은 그의 경향성으로 보거나 그의 의의로 보아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一八세기 조선에서 문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왜냐 하면 봉건 통치배들의 혹독한 탄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선진적 견해를 피력하고 인민을 교양하는 유일한 연단이였기 때문이다。 다산 정 약용은 『도산 사숙록』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요사이 재사수유(才士秀儒)란 대개가 수호전과 서상기 등등 소설 책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때문에 (그 글은) 뼈를 쏘고 살을 저미여 내는듯 하다』。

재사수유란 박 지원과 같은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며 뼈를 쏘고 살을 저미듯 함은 박 지원의 작품도 포함하여 그 당시 문학이 사회 생활에서 노는 역할이 자못 심각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지원의 미학적 견해와 문학 비평은 오늘 우리들에게 의의가 자못 크다。

※ ※ ※

연암 박 지원은 다방면적인 활동에서 인민의 리해관계의 옹호자로서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대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였다。

사회 정치적 및 철학적 견해에서 박 지원은 조선 사회 사상을 앞으로 보다 한층 발전시키였다。 물론 그의 견해들에는 제한성이 많다。 그러나 이는 박 지원 자신의 제한성임은 물론 一八세기 조선의 력사적 제한성이며 수백만 농민 대중 속에 깃들이고 있던 제한성이였다。 그러나 박 지원은 그 당시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념원하였으며 그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였다。

박 지원의 이 탁월한 리상은 오래 동안 실현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박 지원과 같은 탁월한 사상가들이 품고 있던 그 리상을 계승 발전시키여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해방 후 우리 당의 령도 하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은 수행되였고 식민지 반봉건 사회는 새로운 인민 민주주의 사회로 전변되였다。 우리 당의 령도 밑에 북반부 인민은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장엄한 투쟁에서 조선 인민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남겨 놓은 고귀한 유산들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박 지원의 고상한 애국주의、 억압자들에 대한 불타는 그의 증오심、 인민 대중의 창조적 력량에 대한 그의 신심은 조선 인민에게 친근한 것이다。

근세 조선의 탁월한 사상가 연암 박 지원은 우리 조선 인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유 애호 인민에게서도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이다。

서적 해제 및 평론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저서 「반듀링론」에 대하여

금번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저서 『반듀링론』을 우리 말로 번역 출판하였다。

이 저서는 맑스—레닌주의 보물고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의 하나로서 그것은 맑스주의 학설을 그의 전 령역 즉 그의 세 가지 기본 령역에 걸쳐 체계적으로 서술한 최초의 로작이다。

오늘 이 저서의 조선문판 출판은 우리들의 맑스—레닌주의 고전 연구에 많은 기여로 될 것이다。

이 저서는 『서설』과 『철학』、『정치 경제학』、『사회주의』의 세 편으로 구성되여 있다。

『반듀링론』에는 맑스주의의 세개 구성 부분들이 심오하게 서술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맑스주의의 창시자들이 철학、정치 경제학 및 사회주의 리론의 분야들에서 이룩한 혁명적 변혁의 본질과 세계사적 의의가 해명되여 있다。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이 저서에서는 『철학、자연 과학 및 사회 과학의 제 령역에 속하는 가장 큰 문제들이 분석되였다』(전집 조선 로동당 출판사판 二권 一분책 一五페지)。

이 저서는 원래 한개의 론쟁적인 로작으로서 세상에 나왔다。때는 파리 콤뮨으로써 끝을 맺은 맑스주의 발전의 제一기、즉 폭풍우와 혁명의 시기(一八四八——一八七一년)가 끝나고 그 발전의 제二기(一八七二——一九〇四년)가 시작된 첫 시기였다。

독일에서의 사회주의는 一八七五년、아이제낫흐파와 라쌀르파의 합동을 달성하여 독일 사회 민주당을 형성하였다。당을 한개의 강력한 력량으로 장성시키기 위해서는 방금 전취된 통일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였다。이러한 때에 당 내에 상당한 리론적 영향을 줄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백림 대학 강사 오이겐 듀링은 그가 사회주의로 개종(改宗)하였다고 갑자기 그리고 요란스럽게 진출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 리론』과 동시에 사회적 개혁을 위한 실천적 계획까지 들고 나섰다。

이 소위 새『리론』은 철학과 정치 경제학과 사회주의의 광범한 령역에 걸친 것이였다。그는 새『리론』을 제기하면서 자기의 선행자들、누구보다도 특히 맑스를 비난하였으며 공공연하게 자기 주위에 분파 즉 장래의 독립적인 당을 이룰 수 있는 핵심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맑스와 엥겔스는 중대한 도전을 받았던 것이며 당의 통일은 위협을 당했던 것이다。여기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이 도전에 응하여 싸움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결투의 임무는 바로 엥겔스에게 떨어졌던 것이다。

엥겔스는 듀링을 반대하는 이 로작에서 절충주의자、형이상학자요 맑스주의의 적인 오이겐 듀링의 속물적이며 현학적이며 허구적인 소위『새로운 사회주의 리론』、『완전한 철학 체계』、『완전한 정치 경제학 및 사회주의의 체계』를 철저히 폭로하고 철학、정치 경제학 및 사회주의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맑스와 자기의 과학적인 견해를 그에 대립시켰다。

『반듀링론』은 처음에『오이겐 듀링씨에 의하여 수행된 과학에 있어서의 변혁』이라는 제목으로 一八七七년 초부터 一八七八년에 걸쳐 당시 독일 사회 민주당 기관지인『포르베르쯔』지에 몇개 부분으로 나뉘여 게재되였고 一八七八년에는 이 론문들이 집록되여 단행본으로 출판되였다。이 로작은 엥겔스가 맑스와의 협의 하에 저술한 것으로서 원고가 인쇄에 회부되기 전에 맑스는 이 것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정치 경제학』편의 제一〇장은 자신이 직접 집필까지 하였다。

이 로작에서 엥겔스는 듀링의 견해가 반과학적이며 프로레타리아 혁명 투쟁에 적대적이며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무자비하게 폭로하고 진정한 과학인 맑스주의 리론을 계통적으로 정연하게 서술하였다。

이 저서에서 엥겔스는 듀링은 형이상학자、절충주의자、기계적 유물론자로서 걸음마다 관념론의 립장에로 전락하며 그럼으로써 종교가 숨어들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폭로하였다。이 저서에서 엥겔스는 듀링의 견해가 맑스전 시기의 많은 유물론자들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뵈여 주었다。

듀링과 듀링의 리론은『반듀링론』이 나오자 곧 력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동시에『반듀링론』은 나오자마자 국제 사회 민주주의 대렬 속에 널리 보급되였으며 혁명적인 모든 맑스주의자들의 필독의 저서로 되였고 근로자들에게 맑스주의 세계관을 전파시키는 데 거대한 역할을 놀았으며 또 놀고 있다。

엥겔스가 이미 一八八五년에 이 저서의 제二판 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로작이 세상에 나옴으로써 듀링과 듀링의 리론이 분쇄된 다음에는 이 저서의 론쟁적 의의는 상실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서에서 전개된 엥겔스의 리론적 명제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불후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 * *

이 책의 『서설』과 제一편 『철학』에서 엥겔스는 철학의 기본 문제에 대한 유물론적 해답을 주었으며 그리고 많은 자연 과학적 및 력사적 자료로써 변증법적 유물론의 위력과 생동력을 뵈여 주었다。 물질의 一차성과 의식의 二차성에 관한 철학의 기본 문제에 대하여 맑스주의적 해결을 준 다음 엥겔스는 맑스주의적 철학적 유물론의 기본 명제를 해명하였다。

듀링에 의하면 철학은 세계 및 인간에 관한 의식의 최고 형태의 발전이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온갖 지식 및 의욕의 제 원리를 포괄하며 이 원리는 철학의 대상으로 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서의 제三장에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연도 인류도 제 원리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제 원리는 그것이 자연과 력사에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만 정당한 것이다』(『반듀링론』 조선 로동당 출판사판 四三페지)。 엥겔스의 이 견해는 듀링의 관념론적 견해 즉 존재와 의식과의 호상 관계를 전혀 전도시키며 현실계를 사상으로써 세계에 선행하는 그리고 어디엔가 영원히 존재하는 도식 또는 범주로써 구성하는 그의 반과학적 견해에 대한 철저한 비판으로 된다。

엥겔스는 제三장 『선천주의』、 제四장 『세계 도식론』에서 듀링의 관념론적 견해를 분쇄하고 있다。 듀링에 의하면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연구에 착수할 때에 『세계 도식』의 원칙들을 지침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 모든 노력이 수포에 돌아 갈 것이라고 한다。 듀링은 『세계 도식』의 원칙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해서 선차적이며 최종적인 진리들이라고 말한다。 엥겔스는 듀링의 『세계 도식』이 허위적이며 많은 점에서 헤겔의 『론리학』에서 베껴 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뵈여 주었다。

듀링은 수학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완전히 관념론에 떨어지고 있다。 즉 그는 일체의 순수 수학도 외계로부터 얻은 경험에 의거함이 없이 직접 두뇌에서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듀링을 비판하면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수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도형의 개념도 전적으로 외계로부터 유래한 것이지 두뇌 속에서 순수한 사유로부터 발생한 것은 아니다。 도형의 개념에까지 도달할 수 있기 전에 일정한 형태를 가진 사물이 존재하여야 하였고 또 이들 형태는 비교되지 않으면 안되였다』(상동서 四八페지)。 이것은 엥겔스가 말한 바와 같이 수학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튼튼히 확립된 모든 다른 과학들에도 고유한 것이다。

수학의 대상은 현실 세계의 공간적 형태들과 량적 관계들이며 때문에 수학은 가장 추상적 과학의 하나이며 따라서 마치 수학 원리들의 선천적 성격이 자명

한 것같이 보이는 것이다。 『반듀링론』에서 엥겔스는 수학의 원리들이 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마는 그 명제들이 외부 세계에 기원하는 것은 확고 부동한 사실임을 뵈여 주었다。 『수학적 제 량간의 일견 선천적인 것같이 보이는 호상 유도도 제 량의 선천적 기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들의 합리적 호상 련관성을 립증함에 불과하다』 (상동서 四八페지)。

듀링은 세계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를 해명함에 있어서도 유물론의 견지에서 떨어져 있다고 엥겔스는 지적하였다。 듀링은 세계의 통일성이 다만 세계의 존재에 즉 세계 존재의 사실에만 있다고 주장하였다。 엥겔스는 세계의 통일성을 그 존재의 사실로부터만 증명하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례를 들어 헤겔도 세계의 객관적 존재로부터 출발하면서 그 통일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통일성은 헤겔에 의하면 그 기초에 신적 원리가 놓여 있는 것이다。 세계의 통일성을 세계의 존재로부터 도출한다고 하는 듀링의 주장은 신비론자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다만 이 통일성이 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의 통일성이 세계의 존재 즉 세계 존재의 사실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듀링의 견해는 결국 관념론과 종교가 용납할 수 있는 견지라는 것이 확정되는 것이다。

엥겔스는 듀링의 관념론을 폭로하면서 세계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를 유물론적으로 해결하였다。 『세계의 현실적인 통일성은 그 물질성에 있는바 이 물질성은 몇마디의 요술적 문구로써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철학과 자연 과학의 장구하고도 곤난한 발전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이다』 (상동서 五五페지)。

『반듀링론』의 제五、 六、 七、 八장 『자연 철학』에 관한 문제들에서도 엥겔스는 듀링의 반과학적 견해를 폭로하였다。 엥겔스는 제五장 시간과 공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듀링의 형이상학적 견해를 폭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시간에 있어서의 영원성、 공간에 있어서의 무한성이란 것은 ——일견해서 명백하며 또 이 말들의 직접적 의미에 일치하는 바이지만——전후、 상하、 좌우 어느 방향으로도 종말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다。 이 무한성은 무한 계렬에 고유한 그 무한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왜냐 하면 후자는 항상 바로 一로부터 즉 계렬의 제一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상동서 六三페지)。 그런데 듀링은 시공간에 있어서의 무한성을 1、 2、 3、……과 같이 전개되는 무한 계렬에 있어서의 무한성과 동일시하면서 시간은 시초를 가지고 있으나 종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무한성을 일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초도 종말도 가지고 있지 않는 무한성의 리해와는 전연 다르다。

제六장에서 엥겔스는 물질과 운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의 듀링의 견해를 폭로하였다. 듀링은 운동을 그의 소위 기본 형태로서의 력학적 힘에 환원함으로써 이전의 모든 유물론자들에게도 역시 불명료하였던 물질과 운동 간의 현실적 련관을 리해할 가능성을 스스로 내버렸다. 이와 관련하여 엥겔스는 물질과 운동의 통일에 관한 맑스주의적 명제를 론증하였다. 즉 『운동은 물질의 존재 형식이다. 어디서나 또 언제나 운동 없는 물질이란 있은 일이 없으며 또 있을 수 없다. 우주 공간에 있어서의 운동, 개개의 천체에 있어서의 보다 작은 질량의 력학적 운동, 열로서의 또는 전류 또는 자류로서의 분자 진동, 화학적 분해 및 화합, 유기적 생명——우주 내의 물질 원자는 죄다 각 순간 순간에 바로 이러한 운동 형태들의 그 어느 한 형태 또는 동시에 수개 형태에 있는 것이다. 온갖 정지, 온갖 균형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들은 다만 어떤 일정한 운동 형태에 대해서만 의미를 가진다』(상동서 七七페지). 따라서 물질의 운동은 절대적이고 물질의 정지는 상대적이다. 물질 없는 운동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운동 없는 물질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듀링은 력학적 운동만을 인정하는 결과 물체들과 물질의 세편들이 처하고 있는 상대적 정지, 상대적인 력학적 균형을 사실상 절대적 정지, 절대적 균형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엥겔스는 시간에 시초가 있으며 세계가 최초에는 정지의 상태에 있었다는 듀링의 주장을 여지 없이 폭로하고 있다. 만일 세계가 최초에 정지 상태에 있었다면 세계가 어떻게 이 절대적 불변과 부동의 상태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었겠는가? 듀링은 이에 대답하지 못한다. 그는 절대적 정지의 상태로부터 운동의 상태에로의 이행의 원인을 세계 밖에 있는 어떠한 힘, 외적 충격에서 찾고 있다. 이것은 결국 세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되며 로골적으로 종교에 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七장과 제八장에서는 유기계 발전을 관념론적으로 설명하는 듀링의 견해가 폭로되여 있다. 엥겔스는 자연이 자기 발전에 있어서 실현하는 어떠한 내적 목적들이 그 자체 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듀링의 견해를 폭로하고 있다. 이 견해는 필연적으로 유물론의 립장에서 자연을 설명하는 다윈주의를 반대하게 된다. 여기서 엥겔스는 다윈의 리론이 생물학에 있어서의 관념론과의 투쟁에서 가지는 의의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와 함께 엥겔스는 생물학에 있어서 중요한 명제 즉 유기체와 환경의 통일에 관한, 유기체들의 발전에 있어서의 물질 대사의 결정적 역할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생명이란 단백질의 존재 양식이다. 그리고 이 존재 양식은 그 본질에 있어서 섭

취과 배설에 의한 단백체의 화학적 성분의 부단한 갱신에 있다. …단백의 본질적 기능으로서의 유기적인 물질 대사로부터 또 단백에 고유한 초형성으로부터 생명의 모든 다른 가장 단순한 제 기능 즉 단백과 그 영양물 간의 호상 작용 속에 이미 포함되여 있는 피자극성, 영양물의 섭취에 제하여 나타나는 수축성, 가장 낮은 단계(원충류)에 있어 분렬에 의한 번식을 포함하는 성장 능력, 그것 없이는 영양물의 섭취도 동화도 불가능한 내부 운동이 도출되는 것이다』(상동서 四五四——四五五페지).

엥겔스의 이 주장은 미츄린과 그의 후계자들의 로작들에서 가일층 발전되였다. 쏘련의 생물학에 있어서 미츄린적 리론이 승리한 것은 다윈주의를 말사쓰적 오유로부터 해방시키고 멘델—모르간주의를 분쇄한 결과에서였다.

더우기 최근에는 레뻬쉰스까야의 생물학상의 거대한 발견에 의하여 쏘베트 생물학은 더욱 풍부하게 되였다.

다음 九, 一〇, 一一장에서 엥겔스는 인식과 진리에 관한, 도덕에 관한, 평등에 관한, 자유와 필연에 관한 듀링의 교조주의적, 형이상학적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듀링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진정한 진리는 일반적으로 불변한 것이다. …따라서 인식의 정당성이 시간과 실재적인 변동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통털어 어리석은 일이다』(상동서 一一〇페지).

이와 같이 듀링은 진리를 최후적 불변의 명제들의 총체로 보았다.

변증법적 유물론도 영원한 진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모든 년대기적 기술들, 어떤 사실들을 확정하는 판단들, 장래에도 론박될 수 없는 과학의 모든 명제들은 영원한 진리 혹은 절대적 진리이다. 그러나 변증법적 유물론은 영원한 진리의 문제에 력사적으로 대한다. 과학의 성과로서의 불변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과학의 명제들에 력사적으로 대하였으며 그것을 발전 속에서 고찰하였다. 이리하여 맑스주의자들은 영원한 진리, 과학의 최후적 결과들의 일반화에 주의를 돌릴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새로운 진리들의 탐구에, 인식 과정에 있어서의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와의 호상 관계에 부단히 변화 발전하는 객관적 세계의 반영으로서의 인식의 무한성을 보이는 데 주의를 돌린다.

도덕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증명할 것을 념두에 두는 듀링의 형이상학적 고찰을 비판하면서 엥겔스는 도덕, 도덕률의 계급적 및 력사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도덕계도 또한 력사와 민족적 차별을 초월하는 자기의 영속적 제 원리를 가진다는 구실 밑에 임의의 도덕적 교조론을 영원한 결정적인 금후 불변하는 도덕률로서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온갖 시도를 거부한

다。 이에 반하여 우리는 종래의 온갖 도덕론은 결국에 있어서는 그때 그때의 경제적 사회 상태의 산물이였다고 주장한다。 또 사회가 종래 계급적 제 대립에 있어 발전해 왔으니만큼 도덕은 항상 계급적인 도덕이였다: 즉 도덕은 지배 계급의 지배 및 리익을 변호하였던가, 그렇지 않으면 피압박 계급이 충분히 강력하게 되였을 때에는 이 지배를 반대하는 피압박 계급의 반항을 표현하고 피압박 계급의 미래의 리익을 대표하였던 것이다』(상동서 一二二페지)。

제一〇장에서 엥겔스는 사람들의 평등에 관한 듀링의 견해가 내용 없는 것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사람들의 평등에 관한 사상은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으나 평등의 사상 자체는 주로 경제 발전의 수준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엥겔스는 노예 사회、기독교가 승리한 시기、봉건 시대、부르죠아 시대 등의 인류 사회 발전의 여러가지 시기들에 있어서 평등이 어떠한 것이였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부르죠아지와 같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조건으로 인하여 평등을 법 앞에서의 법률적 평등으로 리해하는 것과는 반대로 프로레타리아트는 무계급 사회에 관한 자기 자신의 요구를 내세우며 이 요구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一一장에서 자유와 필연을 대립시키는 듀링의 견해를 폭로하면서 엥겔스는 『자유란 필연의 인식이다』(상동서 一四八페지)라는 공식의 의미를 해명하고 있다。 그는 이 공식이 인간의 개인적 활동의 문제를 념두에 두고 있는 동시에 그보다 더 인간의 사회적、력사적 활동의 문제를 념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연의 인식』은 원시 인간의 성과로부터 엥겔스 당시의 제반 성과 (그후 훨씬 더 큰 성과로 되였으나)에 이르기까지의 전진적인 성과 달성의 력사 과정이다。

제一二장에서 엥겔스는 객관적 세계의 모순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듀링을 반박하면서 모순이란 전반적인 것이며 객관적 세계와 인간 사유의 발전 법칙이라는 것을 론증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대상 및 현상들은 부단한 운동과 변화의 상태에 있다。 그런데 『운동 자체가 하나의 모순이다。 이미 단순한 력학적인 장소 이동조차도 한 물체가 동일한 순간에 어떤 한 장소에 있으며 동시에 다른 장소에 있다。 동일한 장소에 있으며 또 동일한 장소에 있지 않다는 것에 의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순의 부단한 발생과 그것의 동시적인 해결이 바로 운동이다』(상동서 一五七페지)。

모순은 객관적 세계에 뿐만 아니라 인간 사유에도 고유하다。 엥겔스는 인간의 무제한한 인식 능력과 개인들의 제한된 인식 활동에 있어서의 이 능력의 실현과의 사이의 모순이 인간 사유의 령역에 있어서 중요한 모순의 하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 엥겔스는 듀링을 론박하면서 점차적 량적 변화의 근본적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엥겔스는 사물의 매개의 새로운 질은 부단한 것의 중단 즉 비약의 결과에 나타난다는 것을 뵈여준다。 모든 현상의 새로운 질은 낡은 질로부터의 비약에 의하여 분리되여 있다。 매개 현상은 언제나 내적 규정성 즉 그를 다른 현상과 구별하는 질과 외적 규정성 즉 량、크기、존재、시간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여기서 어떤 대상은 량적으로 점점 변화하면서 그 자체로 즉 소여의 질로 있기를 그만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량적 변화가 일정한 림계점에 이르러 량적 변화가 벌써 낡은 분량 속에서 더 이상 계속될 수 없게 되자 이 순간에 비약이 일어나며 그 결과에 낡은 질이 새로운 질에 의하여 바뀌여지고 이 새로운 질은 현상에 점차적으로 량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례를 들어 『한 운동 형태로부터 다른 운동 형태로의 이행은 의연히 언제나 하나의 비약이며 결정적인 전변이다。 천체의 력학으로부터 개개의 천체 내의 미소한 질량의 력학에로의 이행이 그러하다。 또 질량의 력학으로부터 분자의 력학——고유한 의미에 있어서의 물리학의 연구 대상으로 되여 있는 제 운동 즉 열、빛、전기、자기를 포괄하는——에로의 이행도 역시 그러하다』(상동서 八五페지)。 이리하여 엥겔스는 량의 질에로의 이행 및 질의 량에로의 이행의 법칙이 자연、사회 및 인간 사유의 일반적 법칙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제一三장에서 엥겔스는 맑스가 마치도 소유 형태의 교체、사회 혁명의 력사적 필연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헤겔의 『부정의 부정』의 공식을 리용하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듀링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엥겔스는 헤겔의 관념론적 변증법과 맑스주의적、유물론적 변증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엥겔스는 유물론적 변증법을 『자연、인간、사회 및 사유의 운동 및 발전의 일반적 법칙에 관한 과학』(상동서 一八四페지)이며 세계의 연구와 그의 혁명적 변혁의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였다。

유물론적 변증법은 맑스와 엥겔스가 그것을 창시한 순간으로부터 자기의 해방과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투쟁의 위력한 무기로 되여 있다。

＊ ＊ ＊

『반듀링론』의 제二편 『정치 경제학』에서 엥겔스는 경제학에 대한 듀링의 견해를 비판하고 맑스주의적 정치 경제학의 기본을 서술하였다。제二편에서는 경제 리론의 근본 문제들인 정치 경제학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가치와 잉여 가치에 관한、자본주의 하에서의 생

산의 무정부성과 경쟁에 관한、자본주의적 과잉 생산 공황에 관한 문제들이 해명되여 있다。

제一장『대상과 방법』에서 엥겔스는 듀링이 정치 경제학도 결국 철학의 경우와 같이『궁극의 결정적 진리、영원한 자연 법칙、동어 반복적인 절대로 무내용한 공리로 귀착』(상동서 一九七 폐지) 될 것이라는 것을 폭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치 경제학에 대한 정의를 주었다 :『정치 경제학이란 가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물질적 생활 자료의 생산 및 교환을 지배하는 제 법칙의 학문이다』(상동서 一九○폐지)。생산과 교환은 호상 제약하는 것이며 또 호상 작용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생산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교환하는 조건은 나라를 달리 함에 따라 달라지며 매개 나라에 있어서도 역시 시대를 달리 함에 따라 달라진다。때문에 정치 경제학은 모든 나라、모든 력사적 시대에 대하여 동일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여기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정치 경제학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의 력사적 과학이다。그것은 력사적인 즉 부단히 변화하는 재료를 취급한다。그것은 우선 생산 및 교환의 개별적 매개 발전 단계의 특수한 법칙들을 연구한다。그리고 오직 이 연구의 결말에 가서야 그것은 생산 및 교환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약간의 극히 일반적인 법칙들을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상동서 一九一폐지)。

엥겔스는 듀링의 견해를 반박하면서 정치 경제학의 과업은 모든 법칙들을 발견하며 매개의 사회 구성태에 있어서의 생산 관계의 성격을 뵈여 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즉 우리는 정치 경제학이 사람들의 사회적— 생산적 관계 즉 사람들의 경제 관계의 발전에 관한 과학이며 그것은 생산의 사회적 체제를 연구하며 그 발전의 각종 단계에 있는 사회 즉 원시 공동체적、노예 소유자적、봉건적、자본주의적 및 사회주의적 사회에서의 개인적 및 생산적 소비 재료의 생산과 분배를 지배하는 법칙들을 연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제二、三、四장『폭력론』에서 엥겔스는 력사에 있어서의 폭력의 역할에 관한 문제를 해명하였다。

듀링은『정치 체제가 경제 상태의 결정적 원인이고 그 반대의 관계는 제二차적인 반작용에 불과한 것이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상동서 二○六폐지)。듀링은 사유 재산의 진정한 기초는 강자가 권력에 의하여 재산을 강탈한 데 있다고 인정하면서 비과학적인 폭력론을 주장하였다。

엥겔스는 듀링의『폭력론』이 전혀 부당한 것임을 폭로하면서 이에 대하여 섬멸적인 비판을 가하였다。『일반적으로 사유 재산은 력사상 결코 략탈이나 폭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상동서 二一○폐지)。엥겔스는 사유 재산은 어디서나 생산 관계나 교환 관계가 변화한 결과로서 생산을 향상시키고 교역

을 발전시키기 위하여、따라서 경제적 원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천명하였다。때문에『략탈자가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기 이전에 사유 재산 제도가 이미 존재해 있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폭력은 재산의 소유자를 변경시킬 수는 있으나 사유 자체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는 것은 실로 명백하다』(상동서 二一一폐지)。

강탈한 재산이 어떻게 리용되며 누구의 소유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배적인 사회 관계 여하에 달린 것이지 결코 폭력이라는 사실 자체에 달린 것은 아니다。따라서 례컨대 최초에는 전쟁에서 강탈된 재산은 사회적 재산으로 되였었고 사유 재산으로는 되지 않았던 것이다。

엥겔스는 력사적 자료에 기초하여 사회의 계급에로의 분렬의 원인이 물질적 부의 생산 방식의 발전에、사회의 경제 발전에 뿌리 박고 있다는 것을 뵈여 주었다。사회의 계급에로의 분렬은 경제적 과정 즉 로동 생산성의 장성、사회적 분업과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발생의 결과이다。국가는 사회의 계급에로의 분렬의 결과 다수의 피착취자들에 대한 소수의 착취자들의 압박의 기관으로서 발생하였다。폭력 현상은 사회의 계급적 분화 과정에 동반되였으나 그러나 결코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놀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이 과정의 발생、발전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듀링의『폭력론』을 론박하면서 엥겔스는 전쟁과 혁명에 대한 맑스주의적 리해를 주고 있다。맑스주의적 변증법적 방법을 적용하면서 엥겔스는、폭력은 그것이 착취 계급들의 지배 유지와 인민 대중에 대한 압박을 위하여 리용될 때에는 최대의 사회적 악으로 되나 그러나 혁명적 계급들과 피압박 대중들이 자기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폭력에 의거할 때에는 그것은 력사에서 현저한 진보적 역할을 논다고 지적하였다。

폭력은 사유 재산、사회의 계급에로의 분렬 및 계급적 착취의 출현의 제一차적 원인은 아니였으나 그것은 그의 강화와 공고화를 촉진하였다。『폭력은 력사상 또 하나의 역할、즉 혁명적 역할을 논다는 것、그것은 맑스의 말에 의하면 새로운 사회를 잉태한 낡은 사회의 산파이라는 것、폭력은 사회의 운동이 자기의 진로를 개척하고 화석화된、사멸한 정치 제 형태를 파괴하는 도구이라는 것—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듀링씨는 한마디의 말도 없다』(상동서 二四○폐지)。폭력을 가지고 혁명적 계급은 낡은 사회의 로후한 제 관계를 분쇄하였다。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폭력은 자기 만족적인 힘은 아니였다。그것은 경제적 제 관계의 변화의 원인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러한 제 관계의 결과이였다。

엥겔스는 제五장 이후에서 가치、자본 및 잉여 가치에 관한 듀링의 견해를 폭로하였다。듀링은『가치란

그러면 이 기본 모순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회적 생산과 자본주의적 점유 간의 모순은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 간의 안따고니즘으로서 표면에 나타난다』(상동서 三五八페지)。 그리고 『사회적 생산과 자본주의적 점유 간의 모순은 개개 공장들에 있어서의 생산의 조직화와 전 사회에 있어서의 생산의 무정부 상태 간의 대립으로서 현상한다』(상동서 三六一페지)。

이상과 같은 기본 모순과 그의 발현 형태의 첨예화는 『사회적 생산과 자본주의적 점유 간의 모순이 폭력적인 폭발에 이르는』(상동서 三六五페지)주기적인 과잉 생산 공황을 초래한다。

과잉 공황은 한 국에의 상품의 거대한 퇴적과 조업 정지로 인한 로동자들의 대중적 실업에서 오는 타국에서의 비상한 빈궁을 가져 온다。 이것은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적 형태 간의 모순에서 초래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부르죠아지는 이리하여 자기 자신의 사회적 생산력을 이 이상 더 관리해 나갈 능력이 없다』(상동서 三七七페지)는 것을 의미하며 또 이것은 주식 회사、트레스트、나중에는 국가 소유에로까지 발전해 나가게 되는 생산력의 사회적 성격과 더불어 『부르죠아지는 불필요한 계급으로 되고 만다』(상동서 三七七페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은 객관적 사회 발전 행정에서 도출되며 이것은 곧 사회주의 승리의 필연성으로 된다。

엥겔스는 이와 같이 제二장에서 력사의 유물론적 리해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승리의 불기피성을 론증하고 새로운 무계급 사회의 창조자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위대한 력사적 사명을 해명하였다。

제三、四장에서 엥겔스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듀링의 『사회주의』의 소부르죠아적 환상을 폭로하면서 『그의 사회주의는 궁극의 결정적 진리』(상동서 三七八페지)에 뿌리박고 있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제三、四장에서는 듀링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내용이 비판 폭로되고 있다。

듀링은 공황을 『정상적인 상태』로부터의 일시적인 리탈에 불과한 것으로 보면서 그 원인을 대중의 과소 소비에서 찾고 있다。 엥겔스는 이러한 견해의 계급적 본질을 폭로하면서 대중의 과소 소비는 『오늘날 존재하는 공황의 원인에 대해서도、이전에는 왜 공황이 없었던가 하는 데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바 극히 적은』(상동서 三八〇페지)것이라는 것을 뵈여 주었다。

다음 엥겔스는 듀링의 『사회의 자연적 체계』를 분석 비판하고 지금까지 존재해 온 모든 생산의 기본 형태를 이루는 사회 내부의 분업과 매개 생산 기업소 내부의

분업 문제를 취급하면서 적대적 계급 사회에서 로동의 분화가 가지는 노예적 성격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하에서만 로동은 인간을 노예화하는 수단으로부터 그들의 해방과 전면적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된다는 것을 뵈여 주였다。

엥겔스는 도시와 농촌 간의 대립의 폐절을 자본주의의 전복 후에만 가능하다고 교시한 후 사회주의 하에서의 생산력의 발전에 관한 륜곽을 뵈여 주었다。

분배를 생산과 분리시켜 그와 하등의 관련도 없다고 하는 듀링의 부당한 견해와 그가 고안해낸 『경제 콤문』에 있어서의 분배 및 교환이 그 본질에 있어 자본주의적 분배 및 교환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폭로하면서 엥겔스는 가치 법칙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과 분배를 분석하고 사회주의하에서의 분배 정형을 고찰한 다음 제二편 제六장에서 폭로된 『로동의 가치』리론의 부르죠아적 본질이 바로 『경제 콤문』의 부르죠아적 본질을 낳게한 원인이라는 것을 뵈여 주었다。

엥겔스의 가치 법칙에 관한 사상은 쓰딸린의 로작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제 문제』에서 더욱 심화 발전되였으며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법칙에 관한 쓰딸린의 명제는 이미 엥겔스의 이 로작에서 기초지어져 있다。

제五장 『국가、가족、교육』에서 듀링이 『개인의 주권』은 그의 미래 국가의 기초라고 선포하고 그 국가 내에서 군대、경찰、헌병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프로씨야인 사회주의』(상동서 三九五페지)에 대한 듀링의 견해를 엥겔스는 허망한 것으로 폭로 비판하였다。

엥겔스는 종교를 그의 발생의 물질적 기초와 분리시키여 그를 고려함이 없이 『철폐하지 않으면 안된다』(상동서 四一九페지)고 주장하는 듀링을 비판하면서 원시 종교 발생의 인식론적、계급적 근원、그의 일신교에로의 발전、부르죠아 사회에서의 종교의 물질적 근원을 해명하면서 종교는 결국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뵈여 주었다。

다음 가족에 대한 문제에서 듀링은 가족을 다만 하나의 『상속』 단위 즉 『재산 소유 단위로서밖에 생각하지』(상동서 四二二페지)않으면서 가족 제도와 경제적 기초를 분리시키며 그 본질상 부르죠아적 가족 관계를 『미래 사회』의 가족 관계로 선포하고 있는바 이것을 반대하여 엥겔스는 가족 및 남녀 관계의 보다 높은 형태는 사회주의라는 보다 높은 경제적 기초에 대응하여서만 발생한다는 맑스의 사상을 천명하였다。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듀링은 그의 상투 수단인 현실로부터 유리된 공상을 일삼고 있다고 엥겔스는 비판하고 있다。

엥겔스는 『반듀링론』을 총결지으면서 듀링에 대한 총판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과대 망상광의 결과로서의 책임 무능력』 (상동서 四三二페지)이라고。

근로자 제一〇호 (루계 제一一九호)

一九五五년 一〇월 二〇일 인쇄
一九五五년 一〇월 二五일 발행

편집 위원회

발행소 로동 신문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값 四五원)

ㄱ30198호

도서안내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사》

관 형 4×6판
페지수 442페지
정 가 82원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사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 간에 걸친 중국 인민의 찬란한 해방 투쟁 력사를 수록한 것으로 중국 혁명의 전환점인 《5•4 운동》을 계기로 하여 제1차와 2차의 국내 혁명 전쟁과 항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인민 정권을 수립하기 전까지의 투쟁사를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그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장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의 개시인 《5•4 운동》.
제 2 장 중국 공산당의 창립과 중국 로동 운동의 발전.
제 3 장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합작.
제 4 장 1925——1927년 혁명.
제 5 장 제1차 국내 혁명 전쟁의 실패 후 중국 공산당은 홍색 정권의 새 기'발을 높이 들었다.
제 6 장 반혁명측의 《포위 토벌》과 혁명측의 반《포위 토벌》 간의 투쟁.
제 7 장 국민당 반동 집단의 매국'적, 반인민'적 행위와 중국 공산당 및 중국 인민의 항일 투쟁.
제 8 장 항일 전쟁의 전략적 방어 단계.
제 9 장 항일 전쟁의 전략적 대치 단계의 초기와 중기.
제 10 장 항일 전쟁의 전략적 대치 단계의 후반기——지역적인 반격전 및 항일 전쟁의 전략적 반격 단계의 개시. 인민 항일 전쟁의 반격의 승리.

상기 도서는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근일 발간 예정임